



발 간 등 록 번 호

51-B552561-000103-01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

책임 연구원: 강은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위촉 연구원: 남이해(정책연구실 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발 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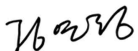
서울시에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82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2020년 기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이 중 56%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중앙정부 및 타 시도에 앞서, 두 자녀 가구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동과 양육자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 왔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와 할인을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실태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다자녀 양육자로서의 경험을 나눠주신 서울시민들과 바쁘신 가운데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연구가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의 체계를 마련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Contents

I 서론 _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6
3. 일러두기	13
4. 연구 수행 체계	14

II 다자녀 가구 현황 및 지원 정책 _ 15

1. 서울시 다자녀 가구 현황	17
1)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규모	17
2) 다자녀 양육자의 특성 및 양육환경	21
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23
1)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23
2) 서울시와 자치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26

III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와 가구 특성 _ 31

1.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1) 다자녀 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2) 다자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
3) 다자녀 가구의 자녀 특성	37
2.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	49
1) 다자녀 양육자의 일자리 특성	49
2) 다자녀 가구의 경제활동 특성	51

3. 다자녀 가구의 주거 현황 및 주거환경 만족도	55
1) 다자녀 가구의 주거 현황	55
2) 다자녀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61
4. 요약	65

IV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돌봄 현황 _ 69

1. 미취학 자녀의 양육 및 돌봄 현황	71
1) 미취학 자녀의 돌봄 현황	71
2) 미취학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	80
2.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97
1)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현황	97
2)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기관 이용 현황	100
3.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108
1)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108
2) 중고등학생 자녀의 민간 교육기관(사교육) 이용 현황	111
4.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 현황	114
5. 성인 자녀 현황	118
6.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및 어려움	120
1) 양육비용 부담	120
2) 돌봄공백의 어려움	124
3) 산후 우울증 경험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	127
7. 요약	132

V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일·생활균형 현황 _ 137

1. 양육자의 노동시간	139
1) 가사노동시간	139
2) 돌봄노동시간	142
3) 취업노동시간	144
2.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	147
1)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 및 만족도	147
2)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 및 만족도	151
3. 양육자의 일 경험	155
1)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155
2)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이직 및 고용 단절 경험	158
4.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62
5.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65
6. 요약	168

VI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_ 171

1.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173
1) 자녀에 대한 인식	173
2)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175
2. 다자녀 양육자의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177
1) 다자녀 가구를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한 평가	177
2) 우리 사회와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179
3) 지역 사회(동네)의 안전에 대한 인식	181
3.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83
1)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	183
2) 육아·교육 목적의 이동 경험과 계획	191
4. 요약	198

VII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정책 이용 현황 및 정책 수요 _ 201

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이용 현황	203
1)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이용 경험	203
2)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이용 경험	205
2.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207
1)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	207
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수요	211
3) 서울시 양육환경 개선의 조건	216
3. 요약	220

VIII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_ 223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225
2.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추진 방안	229
1)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방안	229
2) 실태조사의 향후 과제	243
3.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	244

참고문헌 _ 247

Abstract _ 249

부록1(다둥이행복카드 이용실태 조사 결과) _ 253

부록2(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_ 270

부록3(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_ 271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1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주요 개선 내용	4
표 I-2	설문조사 주요 내용	7
표 I-3	모집단과 설문조사 표본	11
표 I-4	조사 완료 현황	12
표 II-1	2020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비율	18
표 II-2	미성년 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	19
표 II-3	서울시 자치구 별 미성년 자녀 가구 수	20
표 II-4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23
표 II-5	지역별 다자녀 가구 기준	25
표 II-6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27
표 II-7	서울시 출생축하 지원 변경 내용	28
표 II-8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변동 현황	28
표 III-1	다자녀 양육자(응답자) 특성	34
표 III-2	다자녀 가구의 가구 특성	35
표 III-3	이주 배경 가구원 특징(중복응답)	36
표 III-4	자녀 순위별 특성	38
표 III-5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	39
표 III-6	출산/입양 등의 이유	40
표 III-7	이상적인 자녀 수	41
표 III-8	선호하는 자녀 성별	42
표 III-9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	43
표 III-10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방법	44
표 III-11	자녀 수를 늘리려는 이유	45
표 III-12	출산/입양/위탁 예상 시기	46
표 III-13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없는 이유	47
표 III-14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없는 이유(계속)	48
표 III-15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고용형태	49
표 III-16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소득	51
표 III-17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맞벌이 현황	52
표 III-18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지출	53
표 III-19	다자녀 가구의 주관적 계층의식	55

표 III-20	거주 중인 주택 유형	56
표 III-21	주택 점유 형태	57
표 III-22	주택 관련 부채 여부	58
표 III-23	주택 관련 부채액	59
표 III-24	주거 유지를 위한 월평균 지출 비용	60
표 III-25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62
표 IV-1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일과 시간)	73
표 IV-2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일과 시간)(계속)	74
표 IV-3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저녁)	75
표 IV-4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저녁)(계속)	76
표 IV-5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말 및 공휴일)	78
표 IV-6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말 및 공휴일)(계속)	79
표 IV-7	미취학 자녀의 기관 이용 개괄	81
표 IV-8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여부(주중 일과 시간)(중복응답)	82
표 IV-9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여부(주중 저녁 시간)(중복응답)	84
표 IV-10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여부(주말 및 공휴일)(중복응답)	85
표 IV-11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86
표 IV-12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일과 시간)(중복응답)	88
표 IV-13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일과 시간)(중복응답)(계속)	89
표 IV-14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저녁 시간)(중복응답)	90
표 IV-15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저녁 시간)(중복응답)(계속)	91
표 IV-16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말 및 공휴일)(중복응답)	93
표 IV-17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말 및 공휴일)(중복응답)(계속)	94
표 IV-18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96
표 IV-19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주로 돌보는 사람	97
표 IV-20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주로 돌보는 사람(계속)	98
표 IV-21	초등학생 자녀의 기관 이용 개괄(주중 일과 시간)	101
표 IV-22	초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중복응답)	102
표 IV-23	초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104
표 IV-24	초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기관 이용 현황(중복응답)	106
표 IV-25	초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이용 일수, 시간, 비용	107
표 IV-26	중고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중복응답)	109
표 IV-27	중고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110

표 IV-28	중고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이용 현황(중복응답)	112
표 IV-29	중고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이용 일수, 시간, 비용	113
표 IV-30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둘째 자녀 기준)	115
표 IV-31	부돌봄자의 돌봄 지원 및 비용 소요 현황(둘째 자녀 기준)	117
표 IV-32	성인 자녀의 현재 하는 일	119
표 IV-33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121
표 IV-34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계속)	123
표 IV-35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124
표 IV-36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시 주된 대응 방법	126
표 IV-37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	128
표 IV-38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	130
표 IV-39	부양육자에 따른 자녀 양육 스트레스(둘째 자녀 기준)	132
표 V-1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140
표 V-2	1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142
표 V-3	지난 1개월 기준 1일 평균 취업노동시간	145
표 V-4	맞벌이하는 응답자의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평일 기준)	147
표 V-5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방식(유배우 응답자)	148
표 V-6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유배우 응답자)	151
표 V-7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방식(유배우 응답자)	152
표 V-8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유배우 응답자)	155
표 V-9	일과 개인 생활 및 자녀 돌봄 병행의 어려움(전체 응답)	156
표 V-10	일과 자녀 돌봄 병행의 어려움(응답자 성별)	157
표 V-11	일과 자녀 돌봄 병행의 어려움(자녀 수)	158
표 V-12	첫 번째 자녀 양육 이후 직장 이직 횟수	159
표 V-13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160
표 V-14	직장을 그만둔 경험('있음' 응답)	161
표 V-15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 여부: '있음' 응답	162
표 V-16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의 만족	165
표 V-17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66
표 VI-1	자녀에 대한 인식	174
표 VI-2	가족 간 부양에 대한 인식	176
표 VI-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178
표 VI-4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180

표 VI-5	지역 사회(우리 동네) 안전 인식	182
표 VI-6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 정도	184
표 VI-7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는 이유(1순위)	185
표 VI-8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는 이유(1순위)(계속)	186
표 VI-9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1순위)	188
표 VI-10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1순위)(계속)	189
표 VI-11	출산, 양육, 교육 목적의 지역 이동 경험	191
표 VI-12	출산, 양육,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 이동할 계획	194
표 VI-13	계획 중인 이동의 가장 주된 이유	196
표 VI-14	계획 중인 이동의 가장 주된 원인(계속)	197
표 VII-1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두 자녀 이상 가구)	204
표 VII-2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세 자녀 이상 가구)	205
표 VII-3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206
표 VII-4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209
표 VII-5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계속)	210
표 VII-6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 정책 필요 여부	212
표 VII-7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1순위)	214
표 VII-8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1순위)(계속)	215
표 VII-9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가장 중요한 조건(1순위)	217
표 VII-10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가장 중요한 조건(1위)(계속)	218
표 VIII-11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단위 구분(안)	241
부표 1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실태조사 내용	255
부표 2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정도	256
부표 3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경로	258
부표 4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경로(계속)	258
부표 5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경험	259
부표 6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경험	260
부표 7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빈도	261
부표 8	다둥이행복카드 주된 사용처	262
부표 9	다둥이행복카드 주된 사용처(계속)	263
부표 10	다둥이행복카드 월평균 결제금액	264
부표 11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만족도	265
부표 12	다둥이행복카드 불만족 이유	266

■ 부표 13 ■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 268
■ 부표 14 ■ 다둥이행복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269

그림 목차

▶ 그림 1 ▶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다’(전체 응답)	256
▶ 그림 2 ▶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경로(전체 응답)	257
▶ 그림 3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경험 ‘있다’(전체 응답)	259
▶ 그림 4 ▶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경험 ‘있다’(전체 응답)	260
▶ 그림 5 ▶ 다둥이행복카드 주된 사용처	262
▶ 그림 6 ▶ 다둥이행복카드 월평균 결제금액	264
▶ 그림 7 ▶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만족도(전체 응답)	265
▶ 그림 8 ▶ 다둥이행복카드 미발급 및 미사용 이유	267

연구요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제7조 실태조사 등)를 명시하였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규모, 내용 및 방법을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¹⁾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성격으로 수행됨.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의 체계를 제안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음.

□ 연구 목적

- 서울시 다자녀 가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방안 도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 제안

II. 연구 방법 및 내용

- 문헌 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
 - 중앙정부 및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검토
 - 기존 연구 및 유사 실태조사 문항 검토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개요

1)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다자녀 가족,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함.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표본추출 틀의 모집단이 '가구'이며, 법적 가족이 아닌 위탁 아동도 자녀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9.9.23.), 일부 정책이 이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Ⅰ 표 1 Ⅰ 설문조사 개요

조사 참여자	▸ 서울시 거주,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자
표본 수	▸ 1,005명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 2022. 4. 27. ~ 5. 31.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양육자와 가구 특성, 주거 현황 ▸ 자녀 현황 ▸ 다자녀 양육 및 돌봄, 교육 현황 ▸ 다자녀 양육자의 일·생활균형 현황 ▸ 다자녀 양육자의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 다자녀 가구의 정책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등

Ⅲ. 다자녀 가구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와 가구 특성

- 다자녀 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89.9%는 유배우자, 5.2%는 비/미혼, 5.0%는 별거 및 이혼으로 나타남. 두 자녀 응답자보다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유배우 비율이 더 낮았음(두 자녀 응답자의 유배우 비율은 90.9%,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유배우 비율은 86.5%임).
 - 다자녀 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41.1세, 장애가 있는 양육자는 1.2%임.
-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활동 특성
 - 양육자의 65.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61.7%, 남성은 89.4%로 나타남.
 - 여성 양육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약 292만 원, 남성은 약 463만 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양육자의 임금 비율은 58.7%로 조사됨.
- 다자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가구원 수는 평균 4.2명, 자녀 수는 평균 2.3명이었음. 자녀 외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함께 사는 응답자는 11.3%임.
 - 맞벌이 중인 다자녀 가구 비율은 56.6%로 자녀 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음.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특성

-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17.0만 원이며, 두 자녀 가구보다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두 자녀 가구 626.2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585.6만 원).
- 월평균 가구지출은 약 480.1만 원이었으며, 두 자녀 가구는 약 476.3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493.2만 원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조금 더 많았음.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월평균 가구 지출이 430.5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초등학생인 경우 514.6만 원, 중고등학생인 경우 510.5만 원이었음.

○ 자녀 현황과 주거 현황

- 자녀의 98.6%가 출생 자녀, 0.3%는 입양 자녀, 1.0%는 재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자녀이며, 둘째까지는 딸의 비율이 높으나 셋째부터는 아들의 비율이 높음.
- 양육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3명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현재 더 많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추가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5%임.
- 주거 현황을 보면, 아파트 거주가 69.1%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55.4%로 가장 많았음. 두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가 비율이 더 높음.
- 주거환경 중 주거지 주변의 문화 및 체육 환경, 공공돌봄 기관 접근성, 면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

□ 다자녀 가구의 돌봄과 교육기관 이용 현황

○ 미취학 자녀의 돌봄과 교육기관 이용 현황

- 미취학 자녀를 낮에 주로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은 부모 45.6%(본인 39.3%, 배우자 6.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43.0%로 나타나, 가정 내 돌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영아(0~3세)는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남(51.7%).
- 미취학 자녀의 돌봄 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

26.3%,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 33.6%, 둘 다 이용한다는 응답 21.7%,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 18.4%로 나타남. 공공기관은 일주일 평균 4.9일, 29.2시간 이용하며, 월평균 118,690.3원을 지급하였음. 민간기관은 일주일 평균 4.5일, 19.5시간, 월평균 257,764.4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과 교육기관 이용 현황

-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응답자 본인 58.8%, 조부모 13.3%, 배우자 10.6% 순으로 나타남. 특히 한부모 다자녀 가구의 경우 조부모 돌봄이 양부모 다자녀 가구보다 많았음.
-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에서는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5.3%로 낮았고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51.6%,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은 35.3%,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남. 공공기관은 일주일 평균 3.5일, 7.2시간 이용하며, 월평균 108,776.2원을 지급하고, 민간기관은 일주일 평균 4.4일, 8.7시간 이용하며 월평균 488,598.0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봄과 교육기관 이용 현황

- 중고등학생의 경우 공공기관 이용률은 낮아 81.3%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민간기관(사교육) 이용률이 높아 89.0%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은 일주일 평균 4.4일, 12.3시간 이용하며, 월평균 770,54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 현황

- 부양육자는 배우자, 본인, 조부모 순으로 나타남. 부모를 제외하면 조부모 양육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양육자가 있는 경우, 돌봄 지원은 일주일 평균 4.7일, 20.2시간 받으며, 부양육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월평균 102,543.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양육자 중 배우자를 제외하면, 부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은 미취학 자녀 돌봄의 경우 366,947.7원, 초등학생인 경우 210,770.5원, 중고등학생인 경우 144,062.8원임. 한편, 부양육자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12.5%였음.

○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

-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사교육비 부담이 66.0%로 가장 많았으며,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공백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74.0%이며,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일정을 변경하는 방식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32.3%로 뒤를 이었음.
- 다자녀 출산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양육자는 14.3%였으며, 주관적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6.62점(10점 중)임. 여성 6.69점, 남성 6.22점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 자녀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음.

□ 다자녀 양육자의 시간 사용과 일·생활균형 현황

○ 다자녀 양육자의 시간 사용 현황

- 현재 취업 중인 다자녀 양육자의 1일 평균 취업 노동시간은 7.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주중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6시간(휴일 3.4시간), 돌봄노동시간은 4.7시간(휴일 5.2시간)이며 여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게 나타남.
- 취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합하여 총 노동시간을 구한 결과 여성은 15.1시간, 남성은 14.1시간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이 더 길었음.
-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이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늘어나지만, 취업노동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와 돌봄노동시간의 분배를 조사한 결과, 가사와 돌봄노동 모두 '주로 여성이 한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일과 생활균형의 어려움

- '일 때문에 가족 및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54.6%로 나타났으며, '가사, 양육,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52.2%로 나타남.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근이나 늦은 퇴근, 휴일 근무, 긴급상황 시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학교나 어린이집의 부모참여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자녀 양육자의 고용 단절과 이직 경험

-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41.0%는 임신, 42.3%는 출산, 그리고 38.3%는 영유아시기 돌봄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함. 특히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응답률이 2명인 응답자보다 높았음.
- 이직 경험의 경우, 첫째 양육 이후 현재까지 첫 번째 직장을 유지 중이라는 응답은 43.1%였으며, 한번 이직했다는 응답은 26.3%, 두 번 이직했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남.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가 첫 번째 직장을 유지 중인 경우는 30.3%로 2명인 응답자의 46.9%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음.

○ 일·생활균형 관련 제도 이용 경험

- 응답자의 40.8%가 출산휴가 사용 경험이 있었으며, 28.8%가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었음. 남성 응답자의 경우 28.5%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의 31.7%, 남성의 12.6%가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육아기단축근무 역시 여성의 사용 경험이 훨씬 많았음(여성 9.1%, 남성 2.0%).

○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 일과 생활의 균형, 가족관계, 개인 시간 사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3.15점),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31점과 2.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낮아, 한부모 다자녀 양육자의 어려움이 큼을 시사함.

□ 다자녀 양육자의 사회에 대한 인식

○ 자녀와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 자녀에 대한 전통적 인식('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등)은 동의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4점 중 1.97점). 반면,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의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음('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

이다' 3.20점).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았으나,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평가

- 전체 응답자의 36.5%가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음.
- 자녀 수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응답이 많았음.

○ 우리 사회의 양육환경 평가

- 지역 사회의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에 대한 평가가 낮았으며(4점 중 각각 2.38점, 2.39점), 권역별로는 동남권 응답자의 안전과 편리성에 대한 평가가 높고, 서남권의 경우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5.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54.1%). 서울의 양육환경에 부정적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거비용'이라는 응답은 27.6%, '보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은 10.8%로 나타남.

□ 다자녀 양육자의 정책 이용 현황 및 정책 수요

○ 중앙정부의 정책 이용 현황과 평가

- 중앙정부의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이며 이용률도 가장 높음. 반면,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정책이었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가장 낮은 정책은 육아용품 비용 지원임.
-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도시가스요금할인이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다자녀 가구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정책 이용 현황과 평가

-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다둥이행복카드로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인지도가 두 자녀 응답자보다 높았음.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 할인, 한강시민공원 이용료 할인 제도임.
- 이용 경험은 출산축하금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과 공영주차장 할인제도로 나타남.

○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

- 서울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기에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는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39.2%),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16.6%), 주거 및 생활비 부담(9.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특히, 여성 응답자는 돌봄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각각 8.5%로 이를 합하면 17.0%를 차지함(남성은 각각 4.0%, 3.3%).
-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47.1%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높았으며(38.3%),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용 부담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 중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양육비용 지원(23.6%), 공교육 강화(15.7%),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정책(14.8%) 순으로 나타남.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사회환경 조성의 조건으로 주택 가격 안정, 공교육 강화,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해소, 양성평등한 사회,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치열한 경쟁문화 해소도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과제

-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다양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실태조사와 정책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다자녀 가구의 돌봄공백은 미취학 아동,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에서 두드러짐.
 - 다자녀 가구의 돌봄공백은 미취학 아동,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부양육자 현황에서도 조손 돌봄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한부모 다자녀 가구는 부양육자가 없다는 응답이 양부모 다자녀 가구보다 많았음.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양육자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고, 이직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경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원이 요구됨.
- 다자녀 양육자의 일과 생활의 불균형은 돌봄의 여성 집중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의 일·생활균형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함.
-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 안전과 편의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구이나 이를 모르는 양육자도 상당하여 정책의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VI.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추진 방안 제안

-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명칭 제안
 - 실태조사의 명칭을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로 제안함. 기존 정책의 일부가 이미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집단의 틀도 '가구'임. '가구'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며 혈족 관계의 여부에 상관하지 않는 개념으로 더 많은 시민을 정책안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임.
- 실태조사 실시 방안(표본추출과 표본 크기)
 - 표본추출 틀은 가구 단위 모집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적당함.
 - 표본 오차 ± 3.10 이내에서 1,000명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적합한 표본 크기이나 연구 결과, 다자녀 가구의 특징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 수 별 충분한 표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4~5개 권역의 비교 분석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층화별로 충분한 사례 수가 모집될 수 있는 규모의 표본 크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최소 2,000~2,500명의 표본 크기를 제안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 문항 응답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자녀 이상 가구

표본 확보에 따른 어려움도 발견됨. 유효 표본 수 확보를 위해 대면 조사 병행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임.

- 실태조사 항목(조사표) 및 실태조사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 강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삭제/추가 문항에 대한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을 제안함(▶ 표 VIII-1 ▶ 참조).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7조(실태조사 등)는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음. 실태조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선을 통해 조사의 주기와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Ⅷ.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방향

-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과 공교육 인프라 확충, 양육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 개선에 주목해야 함.
- 출산, 양육, 돌봄으로 고용 단절과 임금 하락 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통합적 관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돌봄 참여를 목표로 한 양육지원 정책이 요구됨.
-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과 양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는 양육자 관점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상 중임. 서울시를 양육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일러두기
4. 연구 수행 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년 3월 26일 개정)이하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¹⁾.

서울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 중에서도 자녀 중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5조 지원 대상). 그러나 제2조에서는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다자녀 가족의 정의와 정책 지원 대상이 상이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또한, 정책 지원 내용이 사실상 중앙정부 정책으로 한정되어 서울시 정책 실행에 맞는 개정이 요구되었다.

2020년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족의 정의에 따른 개념(두 자녀 이상 가구)과 지원 대상(셋째 이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였고, 그 결과 정책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영유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1)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 모두 다자녀 가족,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다자녀 ‘가구’를 사용하였다. 실태조사 표본추출 틀의 모집단이 ‘가구’이며, 법적 가족이 아닌 위탁 아동도 자녀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9.9.23.), 일부 정책이 이미 ‘가구’도 포함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가 보다 포괄적인 용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서도 향후 서울시의 실태조사 명칭을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로 제안하였다.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정의상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모두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정책자문단 운영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명시하여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실태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표 I-1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주요 개선 내용

구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7. 12. 26. 제정)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 3. 26. 전부개정)	비고
조례 목적	제1조(목적)-다자녀 가족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제1조(목적)-저출산 문제를 극복,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개정
다자녀 가족 정의	제2조(정의)-“다자녀 가족”-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제2조(정의)-“다자녀 가족”-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개정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1.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2. 삼생아 이상을 출산·양육하는 보호자	제4조(지원 대상)-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	개정
정책 추진 방법	(없음)	제6조(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다자녀 가족의 지원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 제7조(실태조사 등)-다자녀 가족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신설

출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구성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도 다자녀 가구 실태를 특정한 조사는 없는 상황이다. 가족실태나 돌봄 관련 통계자료에서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현황을 추정하는 정도의 탐색은 가능하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르거나(2021년까지 중앙정부는 관련 법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사실상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한정, 지자체는 두 자녀 이상 또는 세 자녀 이상으로 상이), 다자녀 가구를 추계하는 방식이 달라(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수로 추정하거나 당해 연도 태어난 자녀의 순위로 다자녀 가구를 추정) 다자녀 가구 실태를 파악할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다자녀 가구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추구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다(최효미 외, 2020).

중앙정부 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특정하여 정의하지는 않으나, 관련 법과 정책에서 다자녀 가구를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제1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제4조의1은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양육할 경우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0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보는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²⁾.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정책 시행과정의 혼란과 정책 이용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생 상황에 맞춰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 따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세 자녀 이상 대상 정책을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정책 대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09.15). 이에 따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는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차츰 정책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개념과 정책 지원 기준의 일원화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현황과 정책 수요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점검·개선하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로써 다자녀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의

2) 이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지자체, 정책, 관련 법에서 상이하여 제도운영과 이용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의료비와 육아용품 비용은 두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그 외 교육비, 보육 지원, 공공요금할인 등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다고 보았다(최효미 외, 2020).

예비조사 성격을 지닌다. 상술한 바와 같이, 2020년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방법 중 하나로 실태조사가 명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현황 파악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체계 마련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관한 선행연구와 유사 실태조사를 검토하였다. 학술연구와 각 지자체의 정책연구 보고서, 중앙정부와 연구 기관의 자녀 양육 및 다자녀 가구 실태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항목 및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하였다.

2) 설문조사

(1) 조사 내용

선행연구와 관련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I-2 설문조사 주요 내용

항목	세부 항목
1. 가구 및 응답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와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장애 여부 - 동거가구원 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유무, 이동가구원 유무 -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경제활동 여부 및 직업, 월평균 개인소득 -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지출, 주관적 계층의식 - 주택 현황 :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택 관련 비용 지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2. 자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수, 자녀 연령, 자녀 성별, 장애 유무, 동거 여부 - 자녀 유형(출산, 입양, 재혼 시 배우자 자녀, 위탁 아동 등) - 출산/입양 등의 이유 - 이상적인 자녀 수, 선호 자녀 성별 - 향후 자녀 추가 출산/입양 계획, 이유
3. 양육 및 돌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의 주양육자 - 자녀가 이용하는 돌봄 및 교육기관(종류, 시간, 비용 등) -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 여부, 부양육에 대한 지출 - 성인 자녀 여부와 성인 자녀의 하는 일 -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부담된 지출 항목 - 돌봄공백 발생 여부와 해결 방법 - 산후 우울증 경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4. 일·생활균형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평균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시간 - 1일 평균 취업노동시간 - 배우자와의 가사노동/돌봄노동 분담 정도와 만족도 - 경제활동 경험(이직 횟수, 고용 단절 경험 및 이유) -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 경험(자녀 출생 전후 활용 경험, 만족도)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5. 가족과 자녀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 대한 인식 -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식
6. 사회·지역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성, 빈부, 장애) -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범죄, 시설물, 전반적인 안전) - 지역 사회(동네)의 안전에 대한 인식(범죄, 먹거리, 교통, 시설물, 전반적인 동네의 안전) - '서울'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 - 육아(교육 포함) 목적의 이동 경험 및 계획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점

항목	세부 항목
7. 정책 평가 및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서울시의 정책 인지도 및 이용 여부, 평가 - 다자녀 양육에 가장 유용한 정책 - 다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 -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가장 필요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현황(이용 경험, 평가, 불편 사항 등)

먼저, 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 현황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장애 여부, 경제활동 여부 등을 통해 개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구와 관련해서는 가구원 수, 동거 가구원 등을 통해 가족 형태를 파악하고,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과 지출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자녀 외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지, 가구원 중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지 등을 통해 가구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거 현황도 질문하였다.

둘째, 자녀 현황에서는 자녀 수,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동거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출생순위로 다자녀 가구를 추정하지 않음) 실제로 한 가구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수로 다자녀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 이외의 방법으로 양육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하였다. 입양, 재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가족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유사 조사의 경우 향후 자녀 수를 늘릴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 출산’만을 묻고 있어, 결혼과 출산 중심의 조사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자녀 현황에서는 양육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 다자녀 출산이나 입양 이유, 향후 추가 출산 및 입양 계획과 이유를 질문하였다.

셋째, 양육 및 돌봄 실태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방법, 주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돕는 사람 여부, 자녀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시간, 비용), 돌봄에 드는 비용과 부담 정도, 돌봄공백 경험과 해결 방법, 산후 우울증과 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질문하였다. 또한,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 자녀의 하는 일을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성인 자녀는 제외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성인 자녀에

대해 교육비용이 소요되어 다자녀 양육자의 주된 비용 부담원이 되므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현황 파악에 성인 자녀 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양육자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하였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 정도, 고용 단절 경험,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관련 제도의 이용 경험과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박경자 외(2008)에 따르면,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와 양육지원 제도는 추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를 특징짓는데 중요한 정책 배경 중 하나가 된다(박경자 외, 2008).

다섯째, 가족과 자녀 가치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호의적 태도, 자녀를 부모의 분신으로 보는 경우, 대가족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경우, 자녀를 통해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자녀 출산에 대한 주변의 권유가 있는 경우, 아이를 좋아하고 형제자매가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자녀 출산의 배경이 된다고 지적하였다(이혜경, 2011; 염주희 외, 2013; 최옥채, 2019).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종교, 남아선호, 자녀 성을 다양하게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 자녀 자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자녀 가치도 다자녀 출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서정연·김한곤,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특징 중 하나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섯째,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동네)의 안전에 대한 평가, 서울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이나 돌봄으로 인한 이동 경험이나 계획,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 등을 질문하였다. 자녀 돌봄을 위해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더 좋은 돌봄 및 교육 인프라, 양육지원 정책과의 관련성이 이동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동 계획이 많을수록 현재 지역의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 정책 수요를 질문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인지 여부는 자녀 양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양육자 지원 정책이나 보육 정책은 인구 유입에 정의 영향을 주고 출산율을 제고한다고 분석되기도 하며(신인철, 2009), 지역의 육아 환경이 잘 조성된 경우, 다자녀 가구 증가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서정연·김한곤, 2015). 또한, 출산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도 추가 출산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정성호, 2012). 기존 연구가 검토해 온 정책은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자와 양육 가구 현황 파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2) 조사 대상 및 표본 선정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이다.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정확한 정보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자치구별로 거주 중인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 수)를 파악할 수 있으나, 조사 대상으로서 해당 가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정하고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실행 가능성과 예산 규모 등 행정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된다. 목표 정도는 추정량의 절대오차, 상대오차,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하며,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오차도 감소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허용 표본 오차는 ±3.1%가 적당하므로 이를 충족하는 선에서 표본 크기는 1,000명으로 정하였다.

$$n = \frac{Z_{\alpha}^2 \cdot p(1-p)}{e^2} \quad e = Z_{\alpha} \cdot \sqrt{\frac{p(1-p)}{n}}$$

N : 모집단의 크기(Population Size)

n : 표본의 크기(Sample Size)

e : 표본 오차(Margin of error or confidence interval)

Z :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에 대응하는 z-score

P : 관찰치(The observed percentage) 보통 최대 표본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P=0.5를 사용

표본추출의 경우, 표본추출 틀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II장의 ■표 II-2■와 ■표 II-3■ 참조),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를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로 전체 표본을 층화한 후, 자치구별 다자녀 가구의 비율로 비례 할당하였다. 그 결과 도심권+서북권 16%, 동북권 30%, 서남권

29%, 동남권 25%를 할당하였다.

【 표 I-3 】 모집단과 설문조사 표본

(단위: 가구, %)

구분	가구 ¹⁾ (계)	한 자녀		두 자녀		비율(계)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모집단 ²⁾	2,951,071	2,439,891	82.7	511,180	17.3	100.0
표본 수/비율	1,000	800	80.0	200	20.0	100.0

출처: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 주: 1)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서로 다른 두 가족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 수의 최댓값으로 그 가구의 자녀 수를 결정
- 2) 집계 대상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이며 자녀 수(2자녀~5자녀 이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도 포함됨
- 예시1: 16세, 18세가 있는 가구는 2자녀 가구에 해당
- 예시2: 16세, 20세가 있는 가구는 2자녀 가구에 해당
- 예시3: 19세, 21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없음(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없으므로 집계 대상이 아님)

또한, 자녀의 연령별 양육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미취학 40%, 취학 60%(초등학생 40%, 중고등학생 20%)로 할당하였다. 양육자(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90%, 남성 10%, 그리고 혼인상태는 유배우 90%, 그 외 10%로 할당하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 다자녀 가구의 주양육자 및 혼인상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임의 할당하였으나, 자녀 연령에 따른 돌봄 현황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주양육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유자녀 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응답자 및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을 10% 선으로 할당하였다.

향후,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자녀 가구 실태를 살피기 위해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제안하였다.

(3) 조사 완료 현황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3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완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1,00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과 서북권 응답자는 15.4%로 가장 적으며, 동북권과 서남권이 각각 29.9%로 가장 많다. 응답자 중 여성은 85.0%, 남성은 15.0%이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89.9%,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10.1%이다. 두 자녀 가구 응답자는 77.2%,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는 22.8%이며,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는 39.8%, 초등학생인 경우는 36.1%,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24.1%이다.

【표 I-4】 조사 완료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완료 현황			
		조사목표	조사 완료	응답 비중	목표대비 완료 비율
합계		1,000 (100.0)	1,005	100.0	100.5
권역	도심권+서북권	160 (16.0)	155	15.4	96.9
	동북권	300 (30.0)	300	29.9	100.0
	서남권	290 (29.0)	300	29.9	103.4
	동남권	250 (25.0)	250	24.9	100.0
응답자 성별	여성	900 (90.0)	854	85.0	94.9
	남성	100 (10.0)	151	15.0	151.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0 (90.0)	903	89.9	100.3
	배우자_무	100 (10.0)	102	10.1	102.0
자녀 수	2명	800 (80.0)	776	77.2	97.0
	3명 이상	200 (20.0)	229	22.8	114.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40.0)	400	39.8	100.0
	초등학생	400 (40.0)	363	36.1	90.8
	중고등학생	200 (20.0)	242	24.1	121.0

3)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설계과정에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실태조사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다.

3. 일러두기

최종 조사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전체적인 데이터는 입력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 검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의 분석 처리는 사회과학 전문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개괄적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사 성격으로, 조사 결과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원자료(Raw-Data)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변수들의 빈도, 분포도 등 변수의 개략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거나 범주별 응답 분포를 알아보았다. 기술통계의 경우 자료 형식상 수치적 평균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서술하였다.

다자녀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조사의 규모와 성격상 자녀 수에 따른 분석은 교차분석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로 제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그리고 맞벌이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양육자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문항과 가구 특성이 중요한 문항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 라운딩에러(rounding error)³⁾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백분을 산출 과정에서 결과표 숫자의 경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백분을 합산 시 라운딩에러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례 수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n < 30$)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체값 또는 세부 집단 간 비교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조사의 규모는 1,005명으로 집단 간 분석에서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 반올림 오차이며, 실제 전체 합은 100%지만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이 100.1% 또는 99.9%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4. 연구 수행 체계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II

다자녀 가구 현황 및 지원 정책

1. 서울시 다자녀 가구 현황
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다자녀 가구 현황 및 지원 정책

II장의 1절에서는 「인구동향조사」⁴⁾(통계청)를 통해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분포 및 특성을 검토하고, 「가족실태조사」⁵⁾(여성가족부)와 「전국보육실태조사」⁶⁾(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2절에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1. 서울시 다자녀 가구 현황

1)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규모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 현황은 주로 당해 출생아의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최효미 외, 2020).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의 2020년 출생순위 두 번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0.9%, 세 번째 이상 출생아는 5.4%를 차지하여 36.3%가 다자녀 가구로 추정된다.⁷⁾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서울시는 두 번째 이상 출생아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시도이다. 출생순위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다자녀 가구 비율은 43.4%이며, 두 번째 이상 출생아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라남도(49.8%)이다.

4) 매월 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가족관계등록 및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조사한다.

5) 3년마다 실시(2023년 조사 예정)하며, 가족관계, 가족돌봄 현황,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 및 변화 등을 조사한다.

6) 3년마다 실시(2021년 조사 진행)하며,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현황 관련 기초 통계자료 생산, 아동 연령 및 가구 특성, 정부 정책이나 육아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수요 및 평가를 조사한다.

7) 출생아 가구 중 두 번째 이상 출생아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II-1 | 2020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비율

(단위: 명, %)

시군구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여아	남아
		계	비율	계	계
전국	총계	272,337	100.0	132,975	139,362
	1아	154,017	56.6	75,221	78,796
	2아	95,635	35.1	46,725	48,910
	3아 이상	22,564	8.3	10,919	11,645
	미상	121	0.0	110	11
서울특별시	총계	47,445	100.0	23,101	24,344
	1아	30,195	63.6	14,651	15,544
	2아	14,639	30.9	7,132	7,507
	3아 이상	2,558	5.4	1,271	1,287
	미상	53	0.1	47	6

출처: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지원 대상은 두 자녀 이상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이다. 정책 지원 대상에 따라, 한 가구에 동거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를 파악하면 서울시의 두 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비율은 56.1%로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 다자녀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구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서울시는 전국에서 2명 이상 자녀 양육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다(전국 평균 59.6%).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광역시로 64.3%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63.4%, 전라북도도는 63.1%로 뒤를 잇는다.

【표 II-2】 미성년 자녀 기준¹⁾ 다자녀 가구²⁾

(단위: 가구, %)

구분	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4,948,549	1,997,478	40.4	2,439,891	49.3	511,180	10.3	59.6
서울특별시	818,685	360,358	44.0	392,002	47.9	66,325	8.2	56.1
광주광역시 ³⁾	153,718	54,844	35.7	79,554	51.8	19,320	12.5	64.3
경기도 ⁴⁾	1,411,057	566,399	40.1	703,133	49.8	141,525	10.1	59.9
제주특별자치도 ⁵⁾	70,312	25,755	36.6	32,495	46.2	12,062	17.2	63.4

출처: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주: 1)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서로 다른 두 가족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 수의 최댓값으로 그 가구의 자녀 수를 결정

2) 집계 대상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이며 자녀 수(2자녀~5자녀 이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도 포함됨

예시1: 16세, 18세가 있는 가구는 2자녀 가구에 해당

예시2: 16세, 20세가 있는 가구는 2자녀 가구에 해당

예시3: 19세, 21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없음(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없으므로 집계 대상이 아님)

3), 5)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다자녀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

4)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이 99.9%이거나 100.1%일 수 있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3명이라 하더라도 모두 성인인 경우(만 18세 이상)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서 전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정책적 의미의 다자녀 가구에 포함된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다자녀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한 자녀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와 성동구로 각각 49.5%가 한 자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서울시 자치구 별 미성년 자녀¹⁾ 가구 수²⁾

(단위: 가구, %)

구분	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합계	818,685	360,358	44.0	392,002	47.9	66,325	8.2
종로구	10,225	4,620	45.2	4,613	45.1	992	9.7
중구	7,936	3,927	49.5	3,391	42.7	618	7.8
용산구	16,402	7,966	48.6	7,109	43.3	1,327	8.1
성동구	24,262	12,005	49.5	10,700	44.1	1,557	6.4
광진구	26,828	12,031	44.8	12,768	47.6	2,029	7.6
동대문구	25,935	11,625	44.8	12,140	46.8	2,170	8.4
종량구	29,607	12,924	43.7	13,835	46.7	2,848	9.6
성북구	38,429	16,628	43.3	18,660	48.6	3,141	8.2
강북구	22,200	9,610	43.3	10,438	47.0	2,152	9.7
도봉구	26,175	11,141	42.6	12,754	48.7	2,280	8.7
노원구	50,876	21,001	41.3	26,057	51.2	3,818	7.5
은평구	40,254	17,717	44.0	18,887	46.9	3,650	9.1
서대문구	25,308	11,423	45.1	11,824	46.7	2,061	8.1
마포구	31,208	14,619	46.8	14,374	46.1	2,215	7.1
양천구	48,097	19,625	40.8	24,567	51.1	3,905	8.1
강서구	49,914	22,090	44.3	23,636	47.4	4,188	8.4
구로구	34,439	15,324	44.5	16,119	46.8	2,996	8.7
금천구	16,129	7,265	45.0	7,384	45.8	1,480	9.2
영등포구	29,527	14,250	48.3	13,321	45.1	1,956	6.6
동작구	30,663	13,887	45.3	14,519	47.4	2,257	7.4
관악구	29,497	13,272	45.0	13,782	46.7	2,443	8.3
서초구	44,304	18,638	42.1	22,140	50.0	3,526	8.0
강남구	53,333	22,418	42.0	26,696	50.1	4,219	7.9
송파구	64,034	27,782	43.4	31,314	48.9	4,938	7.7
강동구	43,103	18,570	43.1	20,974	48.7	3,559	8.3

출처: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주: 1)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서로 다른 두 가족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 수의 최댓값으로 그 가구의 자녀 수를 결정

2) 집계 대상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이며 자녀 수(두 자녀~세 자녀 이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도 포함됨

반면, 한 자녀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양천구(40.8%)와 노원구(41.3%)로 나타났는데, 양천구의 경우 두 자녀 가구 비율이 51.1%, 노원구의 경우 51.2%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구 비율만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각각 50.0%, 50.1%)도 과반이어서 비교적 다자녀 가구가 많이 분포된 자치구로 나타났다.

실제 정책 지원에서는 출생순위가 아닌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 등을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가구 현황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최효미 외, 2020:194).

2) 다자녀 양육자의 특성 및 양육환경

2020년 「가족실태조사」(김영란 외, 2021)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응답자가 47.2%였다.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81.4%, 별거 또는 이혼 8.2%, 사별 10.4%이다.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서울시 다가구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을 주로 하는 사람은 어머니(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 모두)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34.0%와 남성 응답자의 20.6%가 자녀 양육이 공평하지 않게 분담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 응답자의 47.2%, 남성 응답자의 62.8%는 자녀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돌봄 활동 분담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의 42.6%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7.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12.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47.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다자녀 가구 응답자의 56.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 근로자 29.3%, 임시 근로자 7.3%, 일용 근로자 9.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8%, 무급가족 종사자 2.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는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가 12.4%로 가장 많았고, ‘직장 일 때문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10.2%,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9.6%, ‘가사,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

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3.9%, '가사,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1.8% 순으로 나타났다⁸⁾.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중 93.0%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있는 시간 이외에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은 영유아의 어머니가 72.5%로 가장 많았고, 아이의 외조부모(12.5%), 가사 도우미(5.0%),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친조부모,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가 각각 2.5%였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가 66.7%로 가장 많았고, 아이의 어머니 다음으로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친조부모(33.3%)였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이정원 외, 2018)에서는 응답 가구의 70.1%가 두 자녀 이상 가구였고, 두 자녀 이상 가구 중 42.3%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아이의 어머니가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 가구는 0.2%,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을 그만둔 가구는 0.3%, 모두 일을 그만두지 않은 가구는 57.2%였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다자녀 가구의 어머니 중 82.1%는 첫째 아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퇴사를 고려하였으며, 실제로 61.1%가 첫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 퇴사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33.1%),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30.4%),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13.8%) 순이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다자녀 가구의 아버지 중 70%는 둘째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퇴사를 고려하였으며, 40%가 자녀가 만 3세 ~ 미취학에 퇴사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로는 '직장 내 육아 지원 서비스가 없어서'가 30.0%로 가장 높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가 각 20.0%로 나타났다.

8) 각 문항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한 값이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1)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 우대정책으로 발전하였으나,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저출산 대응 정책이 아닌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대한민국정부, 2020:77)이라는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09.15.). 그 결과 2022년부터 일부 정책에 대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기 시작하였다(표 II-4).

표 II-4 |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정책/서비스 명	소관 기관	대상	2021.9.15. 개선발표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체육관광부	두 자녀 이상	적용 기관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산림청	세 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관리공단	두 자녀 이상	-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두 자녀 이상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영유아 의료비	보건복지부	두 자녀 이상	-
육아용품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두 자녀 이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세 자녀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두 자녀 이상 (만 12세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 공급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세 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	4인 가구 중형주택 공급, 두 자녀 이상에 한 단계 넓은 평형 이동 우선권 부여

정책/서비스 명	소관 기관	대상	2021.9.15. 개선발표
다자녀 가구 주택 구매, 전세자금대출 (금리 할인 등)	국토교통부	세 자녀 이상	-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세 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	-
다자녀 가구 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세 자녀 이상	-
다자녀 가구 전기료 감액	한국전력공사	세 자녀 이상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행정자치부	세 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	-
다자녀 가구 고속열차 할인(KTX 이용)	국토교통부	두 자녀 이상	SRT도 적용
공항주차장 할인	국토교통부	세 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제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혜택(무이자))	교육부	세 자녀 이상	-

출처: 최효미 외(2020),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1.9.15.)를 참고하여 정리

* 일부 정책의 경우 소득 제한이 있음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가 적용되어 개선되는 정책은 국립수목원의 이용료 면제, 아이 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가구 확대, 공항주차장 할인이며, 이용 범위가 확대되는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적용 기관 확대), 고속열차 할인(SRT도 할인 적용)이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 공급 정책의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지원 대상 완화는 아니지만, 4인 가구 중형주택 공급, 출산 등으로 인해 두 자녀가 된 가구에 대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때 우선권 부여 등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향후 공공요금 할인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09.15.).

▮ 표 II-5 ▮와 같이, 현재 광역시·도의 다자녀 가구 기준은 상이하다.

【 표 II-5 】 지역별 다자녀 가구 기준

지역	다자녀 가구 기준	근거
중앙 정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다자녀 가구 특 별공급 지침
서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 례(시행 2020.3.26.)
부산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여 입양하여 양육 하는 가정(자녀 중 한 명 이상 만 19세 미만)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시행 2021.7.14.)
대구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 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12.10.)
인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인천광역시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시행 2017.6.5.)
광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시행 2021.1.1.)
대전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꿈나무사랑카드발급 기준
울산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포함, 2명 이상의 자녀를 양 육·보호·교육하는 가정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시행 2020.1.1.)
세종	둘 이상의 자녀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시행 2019.1.30.)
경기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발급 기준
강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막내가 만 24세 이하)	반비다복(多福)카드 신청 기준
충북	둘째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시행 2019.11.14.)
충남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 한 조례(시행 2021.12.31.)
전북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다자녀 가정 아이조아 카드 발급 기준
전남	둘 이상(태아 포함)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 육하는 가정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경북도청 지원안내서
경남	막내 나이 만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정(둘째와 임신 포함)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 지원 기준
제주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시행 2017.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일부 지자체는 조례와 개별 정책의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이 다름. 본 표는 조례를 우선으로 작성함



한편,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는 일부 정책에서 '위탁 아동'도 포함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공공요금 할인⁹⁾(난방비, 도시가스 사용료 등)과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대상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상의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거인'인 위탁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다(전기요금할인 제외¹⁰⁾). 그러나 위탁 아동 양육은 친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위탁 보호가 확인되는 경우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 아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공공요금할인과 다자녀우대카드 할인 대상에 포함될 것이 권고된 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9.09.23.). 해당 권고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다자녀 가구 자격 요건에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서울시와 자치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서울시는 2007년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상의 다자녀 가족의 정의와 정책 대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2020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정의와 정책 지원 대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기존 정책(세 자녀 이상 대상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같은 정책은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두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20년 이상 전세 계약을 한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우선 공급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정책이다.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무주택가구 중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건설량의 10% 범위에

9) 지원 대상은 「열공급규정」 제54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3자녀(또는 3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이다.

10) 한국전력공사는 '대가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30% 할인제도를 운용하여 세대주와 자녀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위탁 아동도 포함될 수 있다.

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감면액 제한 없이 전체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표 II-6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정책/서비스 명	소관 기관	대상
장기전세주택·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임대주택과	두 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물재생계획과	세 자녀 이상(18세 미만)
다둥이행복카드(발급대상자에 공영주차장, 박물관 등 할인)	가족담당관	두 자녀 이상

다둥이행복카드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한정)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아 주유비 할인, 영화관 할인, 놀이공원 할인, 통신 요금 할인, 카드 수수료 면제, 대중교통 할인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7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여 카드 소지 가구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의 다둥이행복카드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 중이며, 주택 관련 정책과 상하수도 감면 정책도 각 지자체가 정한 다자녀 가구 기준에 따라 시행 중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시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서울시는 출생 아동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2022년 중앙정부가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면서 중단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되며, 국비 44.3%, 지방비 55.7%로 운영되고, 자치구는 한 아동당 557,000원을 부담한다.

【표 II-7】 서울시 출생축하 지원 변경 내용

구분	내용
2021년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10만 원)
2022년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 55.7%(서울시, 자치구 부담) ⇒ 자치구가 한 아동당 557,000원 부담 - 44.3%(국비)

자치구 단위로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자녀 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출산축하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하였다.

【표 II-8】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변동 현황

구분	출산지원금(2021년 기준)					3자녀 이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현재(2022년)	기타
강남구	20	100	300	500	-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강동구	-	-	월 10	월 20	-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입학 축하금, 후원 연계
강북구	-	30	60	100	150	첫만남이용권	
강서구	10	50	100	150	200	첫만남이용권	
관악구	20	40	50	100	200	첫만남이용권	
광진구	10	30	50	100	500	첫만남이용권	
구로구	20	40	60	200	-	첫만남이용권	
금천구	30	50	70	100	-	첫째, 둘째 → 첫만남이용권 셋째 → 첫만남 + 50만 원 넷째 → 첫만남 + 100만 원	
노원구	10	20	50	100	-	첫만남이용권	
도봉구	20	40	70	100	-	첫만남이용권	
동대문구	30	60	100	200	300	첫만남이용권	입학 축하금
동작구	30	50	100	200	-	첫만남이용권	
마포구	10	50	100	300	500	첫만남이용권	
서대문구	10	20	50	-	-	첫만남이용권	
서초구	30	50	100	200	-	첫만남이용권	바닥매트지원

구분	출산지원금(2021년 기준)					3자녀 이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현재(2022년)	기타
성동구	20	40	100	150	-	첫째, 둘째 → 첫만남이용권 셋째 → 첫만남 + 100만 원 넷째 → 첫만남 + 150만 원	
성북구	10	30	50	150	-	첫만남이용권	
송파구	20	40	50	100	200	첫만남이용권	
양천구	20	40	70	100	200	첫만남이용권	
영등포구	10	50	300	500	-	첫만남이용권	
용산구	50	70	100	200	-	첫만남이용권	
은평구	10	35	70	100	-	첫만남이용권	
종로구	30	100	150	-	-	첫만남이용권	건강보험료(셋째 자녀 이상)
중구	20	100	200	300	500	첫만남이용권+출산양육지원금	
중랑구	10	50	100	200	-	첫만남이용권	

출처: 각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특징은 ‘점증지원’ 방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다(최효미 외, 2020; 강하라 외, 2021)¹¹⁾. 서울시의 각 자치구는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시 출산지원금을 출생순위에 따라 점증지원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예를 들면, 첫째 출산축하금은 10만 원이나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상향되어 셋째 출산축하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금액이 이전의 출산지원금에 비해 크고, 출생순위에 무관하게 지원되면서 자치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자치구는 점증지원 방식을 폐기하고 첫만남이용권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강남구와 강동구, 중구는 셋째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이외에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금천구와 성동구의 경우 셋째아 이후부터 첫만남이용권에 더해 추가 출산지원금을 출생순위에 따라 점증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비용 지원 외에도 강동구에서는 넷째 자녀에 대해,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후원을 연계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도 셋째 자녀에 대하여

11) 점증지원 방식은 서울의 경우 41개의 사업 중 26개의 사업이 해당한다.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며, 서초구는 층간소음 및 낙상사고예방을 위한 아동용 바닥 매트
를 지원한다.

종로구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2010년
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종로구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셋째아 이상을 낳은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도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나 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는 있으나(김천시, 사천시, 인제군, 양주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시도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III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와 가구 특성

1.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
3. 다자녀 가구의 주거 현황 및 주거환경 만족도
4. 요약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와 가구 특성

III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주거 현황 등 가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녀 현황을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3절에서는 주거 현황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4절에서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 특성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1.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¹²⁾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다자녀 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41.1세(여성 41.1세, 남성 43.4세)였다. 혼인상태는 89.9%가 현재 배우자가 있었으며, 5.2%는 비혼 또는 미혼, 그리고 5.0%는 별거·이혼·사별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총 1.2%(12명)였는데, 12명 중 여성이 10명, 남성이 2명이었다. 최종학력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72.2%가 대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라는 응답은 14.2%로 나타났다.

12) 본 연구는 실태조사 마련을 위한 예비적 조사로, 개인조사와 가구조사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양육자 개인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의 기술에서는 필요에 따라 응답자, 양육자, 다자녀 가구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모두 양육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는 65.9%였다. 여성 응답자의 61.7%, 남성 응답자의 89.4%가 현재 경제활동 중이라고 응답했다. 성별과 달리 자녀 수에 따른 경제활동 유무에는 차이가 없었다. 두 자녀 응답자의 65.7%,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66.4%가 현재 경제활동 중이었다.

표 Ⅲ-1 다자녀 양육자(응답자) 특성

(단위: %, (명), 세)

구분	전체	응답자 성별		자녀 수		
		여성	남성	2자녀	3자녀 이상	
전체	100.0(1,005)	85.0(854)	15.0(151)	77.2(776)	22.8(229)	
응답자 연령	41.4	41.1	43.4	41.1	42.6	
혼인 상태	비/미혼	5.2	4.4	9.3	4.6	7.0
	유배우	89.9	90.3	87.4	90.9	86.5
	별거·이혼·사별	5.0	5.3	3.3	4.4	6.5
장애 유무	있음	1.2	1.2	1.3	1.3	0.9
	없음	98.9	98.9	98.7	98.7	99.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0.3	0.1	1.3	0.3	0.4
	고등학교 졸업	13.2	13.9	9.3	11.3	19.7
	대학 졸업	72.2	71.7	75.5	73.3	68.6
	대학원 재학 이상	14.2	14.3	13.9	15.1	11.4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5.9	61.7	89.4	65.7	66.4
	하지 않음	34.1	38.3	10.6	34.3	33.6

2) 다자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자녀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2에 제시하였다. 응답자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2.3명이었다. 자녀가 2명이라는 응답은 77.2%, 3명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가구원 수는 평균 4.2명이다. 가구원 수 중 최대값은 7명으로 응답자의 0.6%가 이에 해당했다. 자녀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은 '없다'라는 응답이 88.7%로 가장 많았으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한다는 응답이 7.7%,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응답이 5.3%였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에게서 장애인, 환자, 노인 등 자녀 외 돌봄이 요구되는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두 자녀 가구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표 Ⅲ-2 Ⅲ 다자녀 가구의 가구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응답자 성별		자녀 수		
		여성	남성	2명	3명 이상	
전체	100.0(1,005)	85.0(854)	15.0(151)	77.2(776)	22.8(229)	
자녀 수	2명	77.2	76.9	78.8	-	-
	3명	20.7	21.5	15.9	-	90.8
	4명	1.9	1.4	4.6	-	8.3
	5명	0.2	0.1	0.7	-	0.9
	평균	2.3	2.2	2.3	2.0	3.1
가구원 수 ¹⁾	3명	8.5	8.7	7.3	9.9	3.5
	4명	66.8	66.6	67.5	83.2	10.9
	5명	20.9	21.5	17.2	5.2	74.2
	6명	3.3	2.6	7.3	1.5	9.2
	7명	0.6	0.6	0.7	0.1	2.2
거주권역	도삼서북권	15.4	15.5	15.2	14.9	17.0
	동북권	29.9	29.4	32.5	30.9	26.2
	서남권	29.9	30.2	27.8	30.2	28.8
	동남권	24.9	24.9	24.5	24.0	27.9



구분	전체	응답자 성별		자녀 수		
		여성	남성	2명	3명 이상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장애인	5.3	5.3	5.3	5.2	5.7
	환자	3.4	3.0	5.3	3.0	4.8
	노인	7.7	7.3	9.9	7.2	9.2
	없음	88.7	89.1	86.1	89.3	86.5
이주 배경 가구원	있음	2.3	2.0	4.0	2.4	1.7
	없음	97.7	98.0	96.0	97.6	98.3
맞벌이 여부 (n=903) ²⁾	맞벌이	56.6	57.1	53.8	56.6	56.6
	비맞벌이	43.4	42.9	46.2	43.4	43.4
기초생활 수급 여부	해당	6.1	5.7	7.9	5.0	9.6
	비해당	93.9	94.3	92.1	95.0	90.4

주: 1) 가구원 수: 현재 동거하는 가구원 수
2) 유배우자

한편, 이주 배경 가구원(외국 국적 또는 귀화한 외국인)과 함께 산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원이 '본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본인이라는 응답은 100%였다.

【표 III-3】 이주 배경 가구원 특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전체	응답자 성별		자녀 수	
		여성	남성	2자녀	3자녀 이상
합계	100.0(23)	73.9(17)	26.1(6)	82.6(19)	17.4(4)
본인	60.8	82.4	0.0	63.16	50.0
배우자	47.8	29.4	100.0	42.11	75.0
내 부모	4.4	5.9	0.0	5.26	0.0
기타	4.4	5.9	0.0	5.26	0.0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맞벌이 중인 비율은 56.6%였다. 자녀 수에 따른 비교에서, 두 자녀 응답자와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맞벌이 여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가구(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6.1%로 나타났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7.9%가 이에 해당하여 여성(5.7%)보다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 해당 비율이 9.6%로 나타나, 5.0%인 두 자녀 가구보다 높았다.

3) 다자녀 가구의 자녀 특성

(1)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순위별 특성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순위별 성별을 보면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아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자녀의 52.3%, 둘째 자녀의 50.4%가 딸로 나타나 아들보다 비율이 높았으나,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아들이라는 증가하였는데, 셋째 자녀의 51.9%, 넷째 자녀의 66.7%, 다섯째 자녀의 100.0%가 아들이었다.

첫째 자녀의 34.8%는 초등학생이었으며, 29.7%는 중고등학생이었다. 둘째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이 35.5%로 가장 높았으나, 미취학 아동이라는 응답도 35.1%로 높았다. 장애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총 29가구(2.9%)¹³⁾였다. 첫째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가구는 1.7%, 둘째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가구는 1.1%, 그리고 셋째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가구는 1.3%로 나타났다.

13) 한 명의 자녀라도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수다.

표 Ⅲ-4 자녀 순위별 특성

(단위: %,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전체		100.0(1,005)	100.0(1,005)	100.0(231)	100.0(21)	100.0(2)
자녀 성별	여성	52.3	50.4	48.1	33.3	0.0
	남성	47.7	49.6	51.9	66.7	10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9.5	35.1	39.0	38.1	50.0
	초등학생	34.8	35.5	35.5	47.6	50.0
	중고등학생	29.7	25.7	25.2	14.3	0.0
	고등학교 졸업(성인)	15.9	3.6	0.4	0.0	0.0
장애 여부	있음	1.7	1.1	1.3	0.0	0.0
	없음	98.3	98.9	98.7	100.0	100.0
자녀 유형	출산	98.8	98.5	99.6	90.5	100.0
	입양	0.1	0.3	0.0	9.5	0.0
	재혼 배우자의 자녀	1.1	1.1	0.4	0.0	0.0
	위탁 자녀	0.0	0.1	0.0	0.0	0.0
동거 여부	동거	97.2	98.4	100.0	100.0	100.0
	비동거	2.8	1.6	0.0	0.0	0.0

첫째 자녀의 98.8%, 둘째 자녀의 98.5%, 그리고 셋째 자녀의 99.6%가 출산 자녀로 대부분 출산을 통해 자녀를 얻었다고 응답했으나, 입양한 자녀도 있어, 첫째 자녀의 0.1%, 둘째 자녀의 0.3%, 넷째 자녀의 9.5%가 이에 해당했다. 한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라는 응답은 각각 1.1%였다.

첫째 자녀의 2.8%와 둘째 자녀의 1.6%는 응답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었는데, 비동거 사유는 ‘학교가 멀어서 자녀가 타지에서 생활’(첫째 자녀 39.3%, 둘째 자녀 50.0%),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첫째 자녀 32.1%, 둘째 자녀 18.8%), ‘전 배우자가 양육’(첫째 자녀 14.3%, 둘째 자녀 18.8%)하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Ⅲ 표 Ⅲ-5 Ⅲ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첫째	둘째
합계	100.0(28)	100.0(16)
학교가 멀어서 자녀가 다른 곳에서 거주	39.3	50.0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	32.1	18.8
전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	14.3	18.8
자녀가 해외 유학 중	3.6	0.0
군 입대	10.7	0.0
내가 현재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 맡김	0.0	12.5



(2) 자녀 출산/입양/위탁의 이유

첫째 자녀를 출산/입양/위탁양육 한 이유는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있어야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가 37.4%로 나타났다. ‘그냥 생겨서’는 8.7%, ‘아이를 좋아해서’는 6.6%였다.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다(둘째 자녀 51.3%, 셋째 자녀 30.7%). 그러나 넷째 자녀에서는 ‘자녀가 많아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서’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를 좋아해서’라는 응답도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를 출산/입양/위탁했다는 응답은 둘째 자녀 6.7%, 셋째 자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있어야/많아야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 출산/입양 등의 이유

(단위: %,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합계	100.0(1,005)	100.0(1,005)	100.0(231)	100.0(21)	100.0(2)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2.2	1.5	2.6	4.8	0.0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42.5	51.3	30.7	28.6	0.0
자녀가 있어야/많아야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37.4	21.7	24.7	33.3	0.0
다른 가족이 원해서	2.0	5.0	6.5	9.5	0.0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 인공임신중절 반대 등)	0.1	3.1	3.5	0.0	0.0
자녀가 있어야/많아야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아서	0.0	0.1	0.0	0.0	50.0
주변에서 권해서	0.1	0.2	0.0	0.0	0.0
그냥 생겨서	8.7	0.3	0.0	0.0	0.0
아이를 좋아해서	6.6	9.0	21.6	23.8	50.0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0.5	6.7	10.0	0.0	0.0
친인척의 자녀여서 (입양의 경우)	0.0	0.8	0.4	0.0	0.0
기관/시설의 요청으로(입양/위탁의 경우)	0.0	0.10	0.0	0.0	0.0

(3) 이상적인 자녀 수와 선호하는 자녀 성별

응답자의 77.3%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이 응답한 이상적 자녀 수는 평균 2.3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4%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어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2.3명이 이상적인 자녀 수라고 응답했다.

【 표 III-7 】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1명	2명	3명	4명	6명	평균	t(df)
전체		777	5.4	66.4	23.4	4.6	0.1	2.3	-
응답자 성별	여성	656	5.6	66.2	23.3	4.7	0.2	2.3	-.056 (4)
	남성	121	4.1	67.8	24.0	4.1	0.0	2.3	
자녀 수	2명	607	6.1	71.2	19.3	3.5	0.0	2.2	-6.439*** (4)
	3명 이상	170	2.9	49.4	38.2	8.8	0.6	2.6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532	3.6	67.1	24.1	5.1	0.2	2.3	2.290* (4)
	하지 않음	245	9.4	64.9	22.0	3.7	0.0	2.2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실제 양육 중인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자녀가 2명인 응답자는 평균 2.2명, 3명 이상인 응답자는 평균 2.6명을 이상적인 자녀 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및 가구의 경제 관련 요인인 경제활동 여부,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인은 경제활동 여부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이상적인 자녀 수가(2.3명)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2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경우 3명이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라는 응답이 24.1%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54.2%는 특별히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10.9%는 생각해 본적 없다고 응답했다. 여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9.2%, 남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나, 여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Ⅰ 표 Ⅲ-8 Ⅰ 선호하는 자녀 성별

(단위: 명, %)

구분		빈도	여아선호	남아선호	선호 없음	생각해보지 않음	$\chi^2(df)$
전체		1,005	29.2	5.7	54.2	10.9	-
자녀 수	2명	776	29.6	5.9	53.1	11.3	1.965(3)
	3명 이상	229	27.5	4.8	58.1	9.6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35.3	5.8	47.0	12.0	23.783*** (3)
	초등학생	363	26.7	3.9	57.6	11.8	
	중고등학생	242	22.7	8.3	61.2	7.9	
응답자 성별	여성	854	30.7	5.5	52.3	11.5	10.008** (3)
	남성	151	20.5	6.6	64.9	7.9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수에 따른 응답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두 선호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취학 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여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여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35.3%, 중고등학생인 경우 22.7%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학년이 높을수록 선호가 없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64.9%가 선호하는 성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 응답자의 경우 52.3%가 선호하는 성별이 없고, 남성 응답자보다는 여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여성 응답 30.7%, 남성 응답 20.5%).

(4)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5%였다. 현재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로 3명 이상 가구보다 많았으

며,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 수를 추가로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Ⅰ 표 Ⅲ-9 Ⅰ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

(단위: 명, %)

구분		빈도	있음	없음	생각해보지 않음	$\chi^2(df)$
전체		1,005	6.5	85.9	7.7	-
자녀 수	2명	776	7.7	84.1	8.1	10.519***(2)
	3명 이상	229	2.2	91.7	6.1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12.0	78.5	9.5	39.101***(4)
	초등학생	363	3.3	90.6	6.1	
	중고등학생	242	2.1	90.9	7.0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9	86.7	7.5	3.912(2)
	남성	151	9.9	81.5	8.6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6.1	86.6	7.3	3.95(2)
	배우자_무	102	9.8	79.4	10.8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의 5.9%, 남성 응답자의 9.9%가 자녀 수를 추가로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배우자가 없는(비/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 응답자는 102명이었는데, 이 중 9.8%는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 추가의 방법으로는 '출산' 의향이 87.7%로 가장 많았고, '입양'을 통해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13.8%, 위탁 아동을 양육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이나 입양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향후 늘리고자 하는 자녀 수는 평균 1.6명이었다. 현재 자녀 수에 따른 응답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자 수가 적긴 하나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희망하는 추가 자녀 수도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추가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5명,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비/미혼, 이혼, 사별 등)의 추가 희망 자녀 수는 2.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출산	입양	위탁 아동	추가 희망 자녀 수 (평균)
전체		65	87.7	13.8	3.1	1.6
자녀 수	2명	60	88.3	11.7	3.3	1.6
	3명 이상	5	80.0	40.0	0.0	1.6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8	93.8	10.4	0.0	1.7
	초등학생	12	91.7	8.3	8.3	1.4
	중고등학생	5	20.0	60.0	20.0	1.2
응답자 성별	여성	50	86.0	14.0	4.0	1.6
	남성	15	93.3	13.3	0.0	1.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5	89.1	12.7	1.8	1.5
	배우자_무	10	80.0	20.0	10.0	2.2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47.7%,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21.5%였으며,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12.3%로 나타났다.

Ⅲ 표 Ⅲ-11 | 자녀 수를 늘리려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다른 가족들이 원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χ^2 (df)
전체		65	10.8	47.7	21.5	12.3	3.1	1.5	3.1	-
자녀 수	2명	60	10.0	45.0	23.3	13.3	3.3	1.7	3.3	3.864 (6)
	3명 이상	5	20.0	80.0	0.0	0.0	0.0	0.0	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8	14.6	45.8	25.0	8.3	4.2	2.1	0.0	20.316* (12)
	초등학생	12	0.0	58.3	0.0	33.3	0.0	0.0	8.3	
	중고등학생	5	0.0	40.0	40.0	0.0	0.0	0.0	20.0	
응답자 성별	여성	50	4.0	54.0	18.0	14.0	4.0	2.0	4.0	14.29** (6)
	남성	15	33.3	26.7	33.3	6.7	0.0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5	10.9	50.9	20.0	10.9	3.6	0.0	3.6	7.97 (6)
	배우자_무	10	10.0	30.0	30.0	20.0	0.0	10.0	0.0	

* $p < .05$, ** $p < .01$, *** $p < .001$

두 자녀 응답자가 자녀 수를 늘리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로 45.0%를 차지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도 23.3%로 두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여성 응답자는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4.0%로 과반을 차지한 것에 비해, 남성 응답자의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은 26.7%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남성 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의 이유는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와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로 나타났다(각각 33.3%).

자녀 추가의 계획(예정) 시기는 1~2년 사이라는 응답이 43.1%, 2년 이후라는 응답이



32.3%, 1년 이내라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

【표 III-12】 출산/입양/위탁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빈도	1년 이내	1~2년 사이	2년 이후	$\chi^2(df)$
전체		65	24.6	43.1	32.3	-
자녀 수	2명	60	23.3	45.0	31.7	1.29(2)
	3명 이상	5	40.0	20.0	4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8	22.9	43.8	33.3	3.612(4)
	초등학생	12	41.7	33.3	25.0	
	중고등학생	5	0.0	60.0	40.0	
응답자 성별	여성	50	26.0	38.0	36.0	2.379(2)
	남성	15	20.0	60.0	2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5	23.6	43.6	32.7	0.185(2)
	배우자_무	10	30.0	40.0	30.0	

* $p < .05$, ** $p < .01$, *** $p < .001$

반면,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27.1%), ‘나이가 많아서’(17.0%), ‘주거, 생활비 등이 부담되어서’(14.7%),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14.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은 비용 관련 부담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 응답자의 10.6%는 영유아기 양육비용, 15.4%는 취학 후 교육비 부담, 17.9%는 주거나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도 비용 부담은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응답했지만, 응답률이 남성보다 낮았다. 여성 응답에서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보인 것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므로’(여성 5.9%, 남성 1.6%),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해서’(여성 5.1%, 남성 2.4%)였다.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 비해 교육비, 주거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 수를 추가로 늘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표 Ⅲ-13 Ⅲ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863	8.0	14.0	5.3	2.0	17.0	27.1	3.0
자녀 수	2명	653	8.0	14.1	6.0	2.1	16.7	25.4	3.8
	3명 이상	210	8.1	13.8	3.3	1.4	18.1	32.4	0.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14	12.4	11.8	6.7	2.5	6.7	26.4	4.8
	초등학생	329	6.4	17.0	6.1	1.8	16.4	29.5	2.4
	중고등학생	220	4.1	12.7	2.3	1.4	32.7	24.5	1.4
응답자 성별	여성	740	7.6	13.8	5.9	1.8	17.3	27.2	3.0
	남성	123	10.6	15.4	1.6	3.3	15.4	26.8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82	7.8	13.7	5.2	1.9	17.5	27.9	2.8
	배우자_무	81	9.9	17.3	6.2	2.5	12.3	19.8	4.9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0	4.3	11.4	1.4	4.3	21.4	18.6	1.4
	300~400만 원 미만	105	7.6	14.3	5.7	4.8	12.4	22.9	1.0
	400~500만 원 미만	126	8.7	15.9	1.6	1.6	13.5	30.2	2.4
	500~600만 원 미만	164	10.4	17.1	3.0	1.8	15.9	29.3	2.4
	600만 원 이상	398	7.5	12.6	8.0	1.0	19.1	27.9	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5	7.9	12.4	8.3	1.8	18.9	25.2	3.6
	비맞벌이	418	8.1	15.8	2.2	2.2	15.1	29.2	2.4

* $p < .05$, ** $p < .01$, *** $p < .001$

①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③ 직장 생활을 해야 하므로, ④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⑤ 나이가 많아서, ⑥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⑦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표 III-14】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없는 이유(계속)

(단위: 명, %)

구분		빈도	⑧	⑨	⑩	⑪	⑫	⑬	$\chi^2(df)$
전체		863	2.7	0.3	14.7	4.8	0.3	0.7	-
자녀 수	2명	653	2.8	0.5	14.5	5.1	0.5	0.6	14.297 (12)
	3명 이상	210	2.4	0.0	15.2	3.8	0.0	1.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14	4.5	0.0	17.2	5.1	0.0	1.9	105.667*** (24)
	초등학생	329	2.1	0.6	13.1	4.3	0.3	0.0	
	중고등학생	220	0.9	0.5	13.6	5.0	0.9	0.0	
응답자 성별	여성	740	2.8	0.3	14.2	5.1	0.3	0.8	12.489 (12)
	남성	123	1.6	0.8	17.9	2.4	0.8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82	2.3	0.4	15.0	4.7	0.0	0.8	39.717*** (12)
	배우자_무	81	6.2	0.0	12.3	4.9	3.7	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0	4.3	0.0	24.3	4.3	4.3	0.0	95.653*** (48)
	300~400만 원 미만	105	2.9	0.0	19.0	7.6	0.0	1.9	
	400~500만 원 미만	126	3.2	0.0	17.5	4.0	0.0	1.6	
	500~600만 원 미만	164	2.4	0.6	15.2	1.8	0.0	0.0	
	600만 원 이상	398	2.3	0.5	10.8	5.5	0.0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5	2.9	0.2	13.7	4.5	0.0	0.7	26.055** (12)
	비맞벌이	418	2.4	0.5	15.8	5.0	0.7	0.7	

* $p < .05$, ** $p < .01$, *** $p < .001$

⑧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⑨ 다른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⑩ 주거, 생활비 등 부담이 커서, ⑪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해서, ⑫ 배우자가 없어서, ⑬ 기타

2.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다자녀 양육자의 일자리 특성

표 Ⅲ-15 |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고용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χ^2 (df)
전체		662	58.3	10.9	4.2	2.9	3.3	4.4	2.1	13.9	-
자녀 수	2명	510	60.6	8.6	3.9	3.1	3.7	4.1	1.6	14.3	18.200* (7)
	3명 이상	152	50.7	18.4	5.3	2.0	2.0	5.3	3.9	12.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233	63.9	7.7	3.9	2.1	3.0	3.0	1.2	15.0	27.909* (14)
	초등학생	247	59.5	12.1	3.2	1.6	3.2	4.9	0.8	14.6	
	중고등학생	182	49.5	13.2	6.0	5.5	3.8	5.5	4.9	11.5	
응답자 성별	여성	527	55.0	11.8	4.9	3.2	3.2	3.6	2.5	15.7	22.325** (7)
	남성	135	71.1	7.4	1.5	1.5	3.7	7.4	0.7	6.7	
배우자 유무	배우자유	584	59.2	10.3	4.1	2.9	3.3	4.3	2.1	13.9	2.871 (7)
	배우자무	78	51.3	15.4	5.1	2.6	3.8	5.1	2.6	14.1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	38.3	9.1	4.3	8.5	0.0	8.5	4.3	17.0	91.581*** (28)
	300~400 만원 미만	63	42.9	11.1	3.2	7.9	1.6	6.3	1.6	25.4	
	400~500 만원 미만	72	47.2	12.5	13.9	4.2	1.4	2.8	2.8	15.3	
	500~600 만원 미만	122	46.7	13.9	9.0	1.6	4.1	5.7	2.5	16.4	
	600만 원 이상	358	69.8	8.4	0.8	1.4	4.2	3.4	1.7	10.3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482	61.2	11.0	4.8	2.3	3.3	4.1	0.2	13.1	57.129*** (7)
	비맞벌이	102	50.0	6.9	1.0	5.9	2.9	4.9	10.8	17.6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82)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5.9%였고, 여성의 61.7%, 남성의 89.4%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9%, 여성 55.6%, 남성 74.5%(통계청, 2022)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들은 다소 높은 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보였다.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상용-정규직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기타 종사자가 13.9%로 뒤를 이었다. 자녀 수에 따른 고용형태를 보면, 자녀가 2명인 응답자의 60.6%가 상용-정규직, 14.3%가 기타 종사자였으며 8.6%는 상용-비정규직이었다. 3명 이상 가구 응답자의 경우 50.7%가 상용-정규직, 18.4%가 상용-비정규직, 그리고 12.5%가 기타 종사자로 나타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규직 일자리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예측된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55.0%가 상용-정규직이었으며, 15.7%가 기타 종사자, 11.8%가 상용-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는 71.1%가 상용-정규직, 7.4%가 상용-비정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나타났으며, 기타 종사자는 6.7%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와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7만 원이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두 자녀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99.2만 원,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05.7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여성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72.0만 원, 남성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63.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 수가 2명인 여성과 남성, 3명 이상인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개인소득을 분석해 보면, 여성은 자녀 수가 증가하면 월평균 임금이 감소하는 반면, 남성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III-16】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소득

(단위: 명, 원)

구분		빈도	월평균 개인소득	t
전체		662	3,007,057.21	-
자녀 수 ¹⁾	2명	510	2,992,361.47	-5.967***
	여성	403	3,206,749.38	
	남성	107	4,714,205.81	
	3명 이상	152	3,056,855.90	-5.735***
	여성	124	2,702,580.65	
	남성	28	5,100,000.00	
응답자 성별	여성	527	2,719,874.12	-9.037***
	남성	135	4,631,258.2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자녀 수에 따른 통계값은 -.344로 자녀 수에 따른 월평균 개인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2) 다자녀 가구의 경제활동 특성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맞벌이 가구는 56.6%, 비맞벌이 가구는 43.4%로 나타났다. 비맞벌이 응답자를 보면, 남성 홀벌이라는 응답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1.0%로 나타났다. 여성 홀벌이라는 응답은 1.9%였다.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두 맞벌이라는 응답이 56.6%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취학 상태에 따른 맞벌이 비율은 차이가 있어, 막내 자녀 학년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었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맞벌이한다는 응답은 55.9%,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60.7%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맞벌이라는 응답이 57.1%로 남성 응답률(53.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17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맞벌이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맞벌이	비맞벌이	여성 출벌이	남성 출벌이	둘 다 경제활동 안함
전체		903	56.6	43.4	1.9	41.0	0.6
자녀 수	2명	705	56.6	43.4	1.8	41.0	0.6
	3명 이상	198	56.6	43.4	2.0	40.9	0.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55.9	44.1	1.1	42.5	0.5
	초등학생	325	54.8	45.2	1.5	43.4	0.3
	중고등학생	211	60.7	39.3	3.8	34.6	0.9
응답자 성별	여성	771	57.1	42.9	1.7	40.6	0.6
	남성	132	53.8	46.2	3.0	43.2	0.0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1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구가 세 자녀 이상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높았다(두 자녀 가구 약 626.2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약 585.6만 원).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86.2만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생인 경우 약 646.6만 원,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약 62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가구소득은 약 610.8만 원, 남성 응답자의 가구소득은 약 652.1만 원이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배우자가 없는 가구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배우자가 있는 가구 약 638.4만 원, 배우자가 없는 가구 약 426.8만 원).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718.5만 원, 비맞벌이 가구는 약 511.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8】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지출

(단위: 명, 만 원, %)

구분		빈도	가구소득	t/F	가구지출	t/F	소득대비 지출비율
전체		1,005	617.0	-	480.1	-	77.8
자녀 수	2명	776	626.2	1.479	476.3	-.867	76.1
	3명 이상	229	585.6		493.2		84.2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586.2	2.662	430.5	12.520***	73.4
	초등학생	363	646.6		514.6		79.6
	중고등학생	242	623.4		510.5		81.9
응답자 성별	여성	854	610.8	-1.280	473.4	-1.961	77.5
	남성	151	652.1		518.1		79.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638.4	5.628***	494.5	5.289***	77.5
	배우자_무	102	426.8		353.4		8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718.5	7.650***	532.6	5.065***	74.1
	비맞벌이	494	511.9		425.8		83.2

* $p < .05$, ** $p < .01$, *** $p < .001$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약 480.1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2명인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약 476.3만 원, 3명 이상인 가구는 약 493.2만 원으로 세 자녀 가구가 두 자녀 가구보다 월평균 약 16.9만 원 더 지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보다는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가구지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월평균 가구지출이 가장 낮았으며(약 430.5만 원), 초등학생인 경우 약 514.6만 원, 중고등학생인 경우 약 510.5만 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약 532.6만 원, 비맞벌이 가구는 약 425.8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약 473.4만 원, 남성 응답자는 약 518.1만 원이었



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약 494.5만 원,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응답자는 약 353.4만 원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으면 월평균 가구지출 금액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지만, 자녀 수에 따른 소득-지출 현황은 반대로 나타난다. 즉, 두 자녀 가구의 가구소득이 더 높지만, 가구지출은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더 많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가구지출 비율은 전체 평균 77.8%로 나타났다. 각 집단 내에서 가구소득이 비교적 적은 응답자,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 비맞벌이 가구 응답자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지출이 각각 82.8%, 84.2%, 83.2%로 높았다.

주관적 계층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6%는 자신의 가구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36.0%로 뒤를 이었다.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두 '중하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두 자녀 가구 38.4%, 세 자녀 이상 가구 43.7%), '중층'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나(두 자녀 가구 36.7%, 세 자녀 이상 가구 33.6%), 두 자녀 가구의 '중상층'이라는 응답은 12.2%인 반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중상층'이라는 응답은 7.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39.9%는 '중하층', 37.8%는 '중층'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7.3%가 '중하층', 33.3%가 '하층'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중층'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0.6%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17.2%p 낮았다.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하층', '중하층'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중층', '중상층', '상층'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Ⅲ 표 Ⅲ-19 Ⅲ 다자녀 가구의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
전체		1,005	12.6	39.6	36.0	11.0	0.7
자녀 수	2명	776	11.9	38.4	36.7	12.2	0.8
	3명 이상	229	15.3	43.7	33.6	7.0	0.4
응답자 성별	여성	854	12.4	39.7	36.4	10.8	0.7
	남성	151	13.9	39.1	33.8	12.6	0.7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10.3	39.9	37.8	11.4	0.7
	배우자_무	102	33.3	37.3	20.6	7.8	1.0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13.3	41.1	34.6	10.6	0.5
	하지 않음	343	11.4	36.7	38.8	12.0	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10.2	41.5	35.2	12.5	0.6
	비맞벌이	494	15.2	37.7	36.8	9.5	0.8



3. 다자녀 가구의 주거 현황 및 주거환경 만족도

1) 다자녀 가구의 주거 현황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지출 중 주거 유지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의 서울시민에게 주거 유지비용은 가계지출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자녀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가 69.1%로 가장 높고, 다세대주택(연립, 빌라 등)이 20.2%, 단독주택 4.9%, 다가구주택 4.0%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남성 응답자,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응답자의 거주 비율이 높았다(남성 응답자 76.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1.5%,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81.9%).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 집단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8.2%).

자녀 수의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70.3%) 두 자녀 가구(68.7%)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20】 거주 중인 주택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비 거주용 건물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 사회 시설	χ^2 (df)
전체		1,005	4.9	69.1	20.2	4.0	0.7	0.9	0.3	-
자녀 수	2명	776	4.4	68.7	20.6	4.4	0.6	1.0	0.3	4.468 (6)
	3명 이상	229	6.6	70.3	18.8	2.6	0.9	0.4	0.4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2	67.8	21.5	3.7	0.7	0.7	0.4	10.966* (6)
	남성	151	3.3	76.2	12.6	5.3	0.7	2.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4.5	71.5	18.2	4.2	0.4	0.9	0.2	39.439*** (6)
	배우자_무	102	7.8	47.1	38.2	2.0	2.9	1.0	1.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7.1	31.8	48.2	11.8	1.2	0.0	0.0	133.078*** (24)
	300~400만 원 미만	130	6.9	56.2	30.8	3.8	1.5	0.8	0.0	
	400~500만 원 미만	140	5.7	61.4	21.4	9.3	0.0	0.7	1.4	
	500~600만 원 미만	191	4.2	69.1	21.5	2.6	1.0	1.6	0.0	
	600만 원 이상	459	3.9	81.9	11.1	1.5	0.4	0.9	0.2	

* $p < .05$, ** $p < .01$, *** $p < .001$

주택의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가 29.4%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구(54.6%)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8.1%).

여성 응답자의 55.9%, 남성 응답자의 53.0%는 자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57.6%가 자가 거주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6.3%가 자가 거주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에 거주 중이었다.

표 Ⅲ-21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χ^2 (df)
전체		1,005	55.4	29.4	11.2	0.6	0.1	3.1	0.2	-
자녀 수	2명	776	54.6	30.9	11.0	0.8	0.1	2.4	0.1	10.884* (6)
	3명 이상	229	58.1	24.0	12.2	0.0	0.0	5.2	0.4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5.9	29.0	11.2	0.4	0.1	3.2	0.2	6.77 (6)
	남성	151	53.0	31.1	11.3	2.0	0.0	2.6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57.6	29.2	9.9	0.3	0.1	2.9	0.0	52.274*** (6)
	배우자_무	102	36.3	30.4	23.5	2.9	0.0	4.9	2.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1.2	35.3	32.9	3.5	0.0	4.7	2.4	147.475*** (24)
	300~400만 원 미만	130	43.1	35.4	13.8	1.5	0.8	5.4	0.0	
	400~500만 원 미만	140	52.1	28.6	10.7	0.0	0.0	8.6	0.0	
	500~600만 원 미만	191	59.2	28.3	9.9	0.0	0.0	2.6	0.0	
	600만 원 이상	459	64.7	27.2	7.2	0.2	0.0	0.7	0.0	

* $p < .05$, ** $p < .01$, *** $p < .001$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52.1%였다. 두 자녀 가구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주택 관련 부채가 있다는 응답이 다소 높지만(두 자녀 가구 51.2%, 세 자녀 이상 가구 55.5%)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 표 III-22 ■ 주택 관련 부채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chi^2(df)$
전체		1,005	52.1	47.9	-
자녀 수	2명	776	51.2	48.8	1.309 (1)
	3명 이상	229	55.5	44.5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0.5	49.5	6.359* (1)
	남성	151	61.6	38.4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51.9	48.1	.145 (1)
	배우자_무	102	53.9	46.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5	43.5	56.5	4.313 (4)
	300~400만 원 미만	130	49.2	50.8	
	400~500만 원 미만	140	50.7	49.3	
	500~600만 원 미만	191	52.9	47.1	
	600만 원 이상	459	54.7	45.3	

* $p < .05$, ** $p < .01$, *** $p < .001$

여성 응답자의 50.5%, 남성 응답자의 61.6%가 주택 관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부채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가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부채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의 경우 56.5%가 주택 관련 부채가 없었으나, 600만 원 이상 응답 집단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가 없다는 응답이 45.3%로 감소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나 임차간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며, 원금과 이자 부담을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은 집단에

서 주택 관련 대출 등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큰 금융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2억 이상 부채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응답 집단이 남성,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표 III-23】 주택 관련 부채액

(단위 : 명, %, 만 원)

구분		빈도	0.5억 원 미만	0.5~1억 원 미만	1~1.5억 원 미만	1.5~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평균	t/F(df)
전체		524	10.1	16.6	23.5	10.5	39.3	17,899.8	-
자녀 수	2명	397	10.6	16.9	23.4	10.6	38.5	17,540.6	-1.020 (68)
	3명 이상	127	8.7	15.7	23.6	10.2	41.7	19,022.8	
응답자 성별	여성	431	10.4	17.9	23.2	10.7	37.8	17,617.1	-.977 (68)
	남성	93	8.6	10.8	24.7	9.7	46.2	19,209.7	
배우자 유무	배우자유	469	9.8	14.9	23.9	10.7	40.7	18,165.0	1.244 (68)
	배우자무	55	12.7	30.9	20.0	9.1	27.3	15,638.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7	13.5	27.0	24.3	5.4	29.7	13,573.0	3.949** (68)
	300~400만 원 미만	64	12.5	25.0	21.9	14.1	26.6	15,080.5	
	400~500만 원 미만	71	9.9	15.5	26.8	18.3	29.6	16,092.3	
	500~600만 원 미만	101	9.9	15.8	25.7	7.9	40.6	16,569.3	
	600만 원 이상	251	9.2	13.5	21.9	9.2	46.2	20,303.2	

* $p < .05$, ** $p < .01$, *** $p < .001$

주택 관련 부채가 있는 다자녀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약 1억 7,899.8만 원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구(약 1억 7,540.6만 원)가 세 자녀 이상 가구(약 1억 9,022.8만 원)보다 적었다. 그러나 자녀 수와 응답자 성별,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부채액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채액이 2억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1억~1억 5천만 원이라는 응답은 23.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여성 응답자의 주택 관련 평균 부채액은 약 1억 7,617.1만 원, 남성 응답자는 약 1억 9,209.7만 원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부채액(약 1억 8,165.0만 원)이 배우자가 없는 가구(약 1억 5,638.2만 원)보다 많았다.

주택 관련 부채 보유 응답 결과와 같이, 부채 규모도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관련 부채액이 컸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약 1억 3,573.0만 원,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약 2억 303.2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I-24】 주거 유지를 위한 월평균 지출 비용

(단위 : 명, %, 만 원)

구분		빈도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	t/F(df)
전체		596	23.0	27.5	21.6	6.4	21.5	130.5	-
자녀 수	2명	445	23.6	27.9	20.0	6.3	22.2	126.0	-1.156 (77)
	3명 이상	151	21.2	26.5	26.5	6.6	19.2	143.7	
응답자 성별	여성	487	23.4	28.5	20.1	6.0	22.0	124.3	-1.948 (77)
	남성	109	21.1	22.9	28.4	8.3	19.3	157.9	
배우자 유무	배우자유	523	21.8	27.9	22.6	6.7	21.0	129.0	-.613 (77)
	배우자무	73	31.5	24.7	15.1	4.1	24.7	141.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46.3	31.5	9.3	5.6	7.4	64.8	6.490*** (77)
	300~400만 원 미만	76	28.9	39.5	17.1	3.9	10.5	84.7	
	400~500만 원 미만	80	25.0	28.8	27.5	1.3	17.5	110.5	
	500~600만 원 미만	106	19.8	25.5	27.4	7.5	19.8	135.1	
	600만 원 이상	280	17.5	23.9	21.4	8.2	28.9	159.6	

* $p < .05$, ** $p < .01$, *** $p < .001$



주거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다자녀 가구는 59.3%(1,005가구 중 596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구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월평균 주거 유지비용(대출 이자, 대출 원금, 월세 등 포함)은 약 130.5만 원이었다.

주택 관련 부채 보유 여부, 부채액과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구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만 발견되었다. 응답 결과를 보면, 남성(약 159.9만 원)보다 여성(약 124.3만 원)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약 141.4만 원)보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약 129.0만 원)가 주거 유지비용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자녀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중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8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4점). 세 자녀 이상 가구보다 두 자녀 가구의 주거 면적 만족도가 높았다(두 자녀 가구 2.61점, 세 자녀 이상 가구 2.48점).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주거 만족도가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거주권역 중에서 주거 면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권역은 동남권(2.65점)이었다. 동남권 응답자의 주거 및 경제 현황 관련 지표들이 다른 거주권역 응답자에 비해 모두 높아 원하는 면적에 가장 가깝게 거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거주권역에 따른 주거 면적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응답 결과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주거 면적 만족도(2.60점)가 남성(2.47점)보다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 면적 만족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점,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2.48점).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거 면적 만족도가 높았다(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29점, 600만 원 이상 2.70점).

주거지 주변의 안전환경 만족도는 평균 2.81점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76점, 2명인 가구의 만족도는 2.8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학년이 높을수록) 안전환경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안전

사고에 대한 염려가 더 크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거주권역 중에서 동남권 거주 응답자의 만족도가 3.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권이 2.7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2.82점)가 남성(2.76점)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안전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응답 집단의 안전환경 만족도가 2.69점인데 비해, 600만 원 이상 응답 집단의 안전환경 만족도는 2.93점이었다.

【표 Ⅲ-25】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면적	안전	자연 환경	교통	놀이 환경	영유아 돌봄기관 접근성	공공 돌봄기관 접근성	학습 환경	문화 및 체육 시설	
전체	1,005	2.58	2.81	2.82	2.80	2.65	2.82	2.53	2.67	2.49	
자녀 수	2명	776	2.61	2.83	2.83	2.82	2.66	2.83	2.52	2.67	2.48
	3명 이상	229	2.48	2.76	2.76	2.74	2.63	2.78	2.55	2.65	2.50
	t (df=3)	-	2.420*	1.273	1.372	1.502	.555	.990	-.480	.515	-.34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2.52	2.77	2.78	2.77	2.65	2.84	2.45	2.57	2.41
	초등학생	363	2.61	2.81	2.83	2.79	2.59	2.80	2.56	2.68	2.47
	중·고학생	242	2.65	2.90	2.86	2.87	2.75	2.81	2.61	2.81	2.63
	F (df=3)	-	2.940	3,159*	1,078	1,920	3,712*	.279	4,608**	8,944***	6,960***
거주 권역	도심+ 서북권	155	2.59	2.75	2.78	2.70	2.55	2.78	2.50	2.61	2.35
	동북권	300	2.56	2.75	2.75	2.78	2.60	2.80	2.56	2.64	2.46
	서남권	300	2.55	2.74	2.75	2.77	2.59	2.75	2.48	2.59	2.47
	동남권	250	2.65	3.01	3.00	2.92	2.85	2.94	2.56	2.84	2.62
	F (df=3)	-	1.114	10,945***	9,170***	3,718*	8,801***	4,218**	.962	6,473***	4,978**



구분		빈도	면적	안전	자연 환경	교통	놀이 환경	영유아 돌봄기관 접근성	공공 돌봄기관 접근성	학습 환경	문화 및 체육 시설
응답자 성별	여성	854	2.60	2.82	2.82	2.80	2.66	2.84	2.54	2.68	2.51
	남성	151	2.47	2.76	2.79	2.79	2.62	2.70	2.44	2.60	2.37
	t (df=3)	-	2.151*	1.038	.580	.192	.672	2.413*	1.578	1.213	2.127*
배유자 유무	배유자유	903	2.59	2.82	2.83	2.81	2.67	2.83	2.53	2.67	2.50
	배유자무	102	2.48	2.72	2.74	2.66	2.52	2.68	2.49	2.62	2.34
	t (df=3)	-	1.561	1.588	1.314	2.188*	1.982*	2.349*	.551	.745	2.104*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29	2.69	2.80	2.71	2.51	2.72	2.58	2.52	2.25
	300-400 만원미만	130	2.52	2.65	2.73	2.73	2.48	2.78	2.49	2.55	2.42
	400-500 만원미만	140	2.48	2.66	2.74	2.69	2.54	2.79	2.41	2.69	2.36
	500-600 만원미만	191	2.55	2.80	2.83	2.77	2.66	2.80	2.50	2.67	2.51
	600만 원 이상	459	2.70	2.93	2.86	2.88	2.76	2.87	2.57	2.72	2.58
	F (df=3)	-	8.178***	8.796***	1.670	3.051*	6.384***	1.506	1.683	2.577*	5.40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영유아 돌봄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2) 공공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주거지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600만 원 이상)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2.86점). 거주권역별로 차이가 있어, 강남권의 만족도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과 서남권은 2.75점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 주변 교통환경 만족도는 평균 2.80점으로 나타났다. 거주권역별로는 동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2.92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거주권역은 도심권 및 서북권으로 2.70점이었다. 응답자의 성별과 배우자 유무,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교통환경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00만 원 미만 가구 2.71점, 600만 원 이상 가구 2.88점).

아동의 놀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5점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놀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막내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만족도는 2.65점,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2.75점이었다. 거주권역별로는 도심권과 서북권의 만족도가 2.5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동남권은 2.85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성 응답자보다 많아,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는 2.66점이었다(남성 2.62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이들 놀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소득에 따라, 아동의 놀이환경 접근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의 돌봄 기관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만족도가 2.84점으로 높았는데, 이는 현재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실제로 서울시의 관련 기관 확대 정책에 따라 접근성이 좋아진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거주권역별로는 동남권 응답자의 만족도가 2.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권 응답자의 만족도가 2.7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달라,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보다 높았다(여성 2.84점, 남성 2.70점).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공공돌봄 기관의 접근성 만족도는 평균 2.53점이다. 공공돌봄 기관 만족도는 거주권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2.54점으로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주거지 주변 학교, 학원, 도서관 등 학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2.67점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주변 학습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막내 자녀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권역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권역은 동남권(2.84점), 가장 낮은 권역은 서남권(2.59점)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습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2점).

마지막으로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2.49점으로 주거지 주변 환경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학년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낮아, 미취학 아동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2.41점으로 나타났다. 도심권 및 서북권의 경우 2.35점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응답자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2.37점으로 여성(2.51점)보다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자녀 양육자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주변의 문화 및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양육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문화 및 체육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어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가 요구된다.

4. 요약

III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양육자와 가구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주거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자녀 관련 현황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89.9%는 현재 배우자가 있고, 5.2%는 미혼(비혼), 5.0%는 별거나 이혼 등의 상태였다. 자녀 수별로 보면 두 자녀 가구 응답자의 90.9%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는 86.5%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은 41.4세였으며 여성 41.1세 남성 43.4세이다. 두 자녀 가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1.4세,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2.6세였다. 한편, 응답자(양육자)가 장애가 있다는 응답은 1.2%였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활동 특성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5.9%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 응답자는 61.7%, 남성 응답자는 89.4%가 경제활동

을 하고 있어 성별 격차가 뚜렷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¹⁴⁾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이며, 여성 55.4%, 남성 71.3%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15.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교할 때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성별 격차는 22.7%p로 상당히 크다. 여성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92만 원, 남성은 약 463만 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58.7%로 조사되었다¹⁵⁾.

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정도는 차이가 컸으나, 자녀 수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는 각각 65.7%와 66.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자녀 가구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99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06만 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가구 특성을 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4.2명이었으며, 평균 자녀 수는 2.3명, 자녀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은 11.3%였다. 유배우 다자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6%였으나,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두 같은 비율로 자녀 수에 따른 맞벌이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막내 자녀 취학 상태에 따른 맞벌이 비율은 차이가 있어, 막내 자녀 학년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17.0만 원이었으며, 두 자녀 가구 약 626.2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약 585.6만 원으로 두 자녀 가구의 소득이 더 높았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았다(약 586.2만 원, 초등학생 약 646.6만 원, 중고등학생 약 623.4만 원). 한편,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약 480.1만 원으로 자녀 수가 2명인 가구는 476.3만 원, 3명 이상인 가구는 약 493.2만 원이었다. 자녀 수에 따른 지출액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 수보다는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가구지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월평균 가구지출이 가장 낮았으며(약 430.5만 원), 초등학

14)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 참가의 기준은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이며(통계청), 본 설문조사에서는 '지난 한 달간, 경제적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로 질문의 방식이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 통계청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247만 원, 남성은 383만 원이며,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6%였다.

생인 경우 약 514.6만 원, 중고등학생인 경우 약 510.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현황을 보면, 전체 자녀의 98.6%가 출생 자녀였으나 0.3%는 입양 자녀였고, 1.0%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나타났다. 둘째까지는 딸의 비율이 높았으나 셋째부터는 아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들이 자녀를 출산/입양한 이유로는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자녀 양육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3명이었으며, 두 자녀 가구 응답자는 2.2명,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는 2.6명이라고 응답해,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실제 양육하는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6.5%였는데, 이들의 87.7%는 출산, 13.9%는 입양, 3.1%는 위탁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6명이었다.

다자녀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아파트 69.1%, 다세대주택(연립, 빌라 등) 20.2%, 단독주택 4.9%, 다가구주택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점유 형태는 자기 소유가 55.4%, 전세가 29.4%로 나타났다. 두 자녀 가구(54.6%)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8.1%). 주거환경 중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8점으로(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4점), 세 자녀 이상 가구보다 두 자녀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다(두 자녀 가구 2.61점, 세 자녀 이상 가구 2.48점).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주거 면적 만족도가 낮은 특성이 나타났다.

IV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돌봄 현황

1. 미취학 자녀의 양육 및 돌봄 현황
2.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3.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4.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 현황
5. 성인 자녀 현황
6.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및 어려움
7. 요약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돌봄 현황

IV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돌봄 현황을 자녀 취학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절, 2절, 3절에서는 각각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및 돌봄 현황을 제시하였다. 자녀의 취학 특성(미취학/초등/중고등)에 따라 요구되는 돌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이용하는 돌봄 및 교육기관 특성이 다르므로 막내 자녀의 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도 막내 자녀의 학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절에서는 자녀를 함께 돌보는 부양육자 현황을, 5절에서는 성인 자녀 현황을 제시하였다. 6절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느끼는 비용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및 돌봄 현황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1. 미취학 자녀의 양육 및 돌봄 현황

1) 미취학 자녀의 돌봄 현황

(1)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자녀 중 막내 자녀만 미취학인 응답자는 400명,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미취학 자녀가 두 명인 응답자는 220명,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미취학 자녀가 세 명인 응답자는 26명이다. 즉, 조사 참여자(1,005명)의 미취학 자녀 수는 총 646명으로 미취학 자녀 돌봄

현황은 646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 미취학 자녀의 주중 일과 시간 돌봄

먼저, 미취학 자녀를 주중 일과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을 보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라는 응답이 43.0%, 응답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배우자라는 응답은 6.3%로 세 번째를 차지한다. 본인이라는 응답과 배우자라는 응답을 합하면 45.6%로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자녀 중 영아(0~3세)의 경우에는 응답자 본인이 주로 돌본다는 응답이 43.1%로 어린이집 교사라는 응답(35.9%)보다 많았다. 반면 유아(4~6세)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가 주로 돌본다는 응답은 36.2%였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라는 응답이 44.8%, 응답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43.0%로 비슷하였으나, 남성 응답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 38.2%, 배우자 34.8%, 그리고 응답자 본인이라는 응답은 10.1%였다. 남성 응답의 경우, '배우자의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10.1%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45.3%)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가 돌본다는 응답은 18.2%로 낮았으며, 응답자 본인이 돌본다는 비율이 52.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수는 2명보다 3명 이상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많았다(2명 36.3%, 3명 이상 47.9%).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가 돌본다는 응답이 많았으나(경제활동 중 50.4%, 경제활동 하지 않음 33.1%), 경제활동 중임에도 응답자 자신이 일과 시간에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본다는 응답도 22.9%로 나타났다.

【표 IV-1】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일과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나	배우자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어머니
전체		646	39.3	6.3	5.6	3.3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43.1	8.6	6.9	2.8
	유아(4~6세)	356	36.2	4.5	4.5	3.7
응답자 성별	여성	557	44.0	1.8	5.4	2.2
	남성	89	10.1	34.8	6.7	10.1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38.1	6.1	4.6	3.2
	배우자_무	55	52.7	9.1	16.4	3.6
자녀 수	2명	479	36.3	5.6	5.8	3.8
	3명 이상	167	47.9	8.4	4.8	1.8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22.9	8.9	8.9	5.4
	하지 않음	275	61.5	2.9	1.10	0.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51.6	3.2	3.2	0.0
	300~400만 원 미만	103	63.1	2.9	1.9	2.9
	400~500만 원 미만	90	35.6	7.8	4.4	2.2
	500~600만 원 미만	120	35.8	7.5	5.8	0.0
	600만 원 이상	271	30.3	7.4	7.7	5.9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24.2	5.8	8.3	5.5
	비맞벌이	264	55.3	6.4	0.0	0.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에서 상위 집단보다 응답자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응답자의 어머니(7.7%), 배우자의 어머니(5.9%), 민간 육아도우미(2.6%), 학원 강사(0.6%) 등 다양한 돌봄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맞벌이 중인 응답자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가 돌본다는 응답이 52.3%, 비맞벌이 응답자는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55.3%로 나타났다.



【 표 IV-2 】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일과 시간)(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배우자의 아버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민간 육아도우미	학원 강사	$\chi^2(df)$
전체		646	0.3	43.0	1.5	0.6	-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0.0	35.9	2.1	0.7	17.135* (7)
	유아(4~6세)	356	0.6	48.9	1.1	0.6	
응답자 성별	여성	557	0.4	43.8	1.8	0.7	172.672*** (7)
	남성	89	0.0	38.2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0.3	45.3	1.8	0.7	26.169*** (7)
	배우자_무	55	0.0	18.2	0.0	0.0	
자녀 수	2명	479	0.4	46.3	1.3	0.4	15.909* (7)
	3명 이상	167	0.0	33.5	2.4	1.2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0.5	50.4	1.9	1.1	114.221*** (7)
	하지 않음	275	0.0	33.1	1.1	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0.0	41.9	0.0	0.0	66.587*** (28)
	300~400만 원 미만	103	0.0	27.2	1.9	0.0	
	400~500만 원 미만	90	0.0	50.0	0.0	0.0	
	500~600만 원 미만	120	0.0	50.0	0.8	0.0	
	600만 원 이상	271	0.7	43.9	2.6	0.6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0.6	52.3	2.1	1.2	84.551*** (7)
	비맞벌이	264	0.0	36.7	1.1	0.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나. 미취학 자녀의 주중 저녁 이후 돌봄

주중 저녁 이후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1.8%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18.3%, 응답자의 어머니 3.7%, 배우자의 어머니 3.4%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0~3세)일 때와 유아(4~6세)일 때 모두 응답자 본인이 주로 돌보는 응답이 많았는데,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 영아의 경우 배우

자가 돌보는 비율이 22.4%, 유아의 경우 배우자가 돌본다는 응답이 14.9%였다. 유아의 경우에는 조부모 돌봄(나의 어머니 5.6%, 배우자의 어머니 5.3%)이 영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었다.

【표 IV-3】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저녁)

(단위 : 명, %)

구분		빈도	나	배우자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어머니	아동의 형제자매
전체		646	71.8	18.3	3.7	3.4	0.2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72.8	22.4	1.4	0.8	0.0
	유아(4~6세)	356	71.1	14.9	5.6	5.3	0.3
응답자 성별	여성	557	77.9	11.8	3.9	3.6	0.2
	남성	89	33.7	58.4	2.2	2.2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72.4	17.4	4.1	3.7	0.0
	배우자_무	55	65.5	27.3	0.0	0.0	1.8
자녀 수	2명	479	70.6	18.0	4.2	4.6	0.2
	3명 이상	167	75.4	19.2	2.4	0.0	0.0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62.0	22.1	6.5	5.7	0.3
	하지 않음	275	85.1	13.1	0.0	0.4	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82.3	12.9	0.0	0.0	0.0
	300-400만 원 미만	103	74.8	23.3	1.0	0.0	0.0
	400-500만 원 미만	90	73.3	23.3	0.0	2.2	0.0
	500-600만 원 미만	120	72.5	16.7	6.7	3.3	0.0
	600만 원 이상	271	67.5	16.6	5.5	5.9	0.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64.8	18.0	7.0	6.7	0.0
	비맞벌이	264	81.8	16.7	0.4	0.0	0.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여성 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77.9%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많았다(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2.4%,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65.5%).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동원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부모 다자녀 가구의 돌봄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4】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중 저녁)(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학원강사	기타	$\chi^2(df)$
전체		646	0.5	0.5	1.2	0.2	0.3	-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0.0	0.7	1.4	0.3	0.0	28.210*** (9)
	유아(4~6세)	356	0.8	0.3	1.1	0.0	0.6	
응답자 성별	여성	557	0.4	0.2	1.4	0.2	0.4	122.977*** (9)
	남성	89	1.1	2.2	0.0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0.3	0.3	1.2	0.2	0.3	23.223** (9)
	배우자_무	55	1.8	1.8	1.8	0.0	0.0	
자녀 수	2명	479	0.6	0.2	1.3	0.0	0.4	16.807 (9)
	3명 이상	167	0.0	1.2	1.2	0.6	0.0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0.3	0.8	1.9	0.3	0.3	56.974*** (9)
	하지 않음	275	0.7	0.0	0.4	0.0	0.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3.2	0.0	1.6	0.0	0.0	58.223* (36)
	300~400만 원 미만	103	0.0	0.0	0.0	0.0	1.0	
	400~500만 원 미만	90	0.0	1.1	0.0	0.0	0.0	
	500~600만 원 미만	120	0.8	0.0	0.0	0.0	0.0	
	600만 원 이상	271	0.0	0.7	2.6	0.4	0.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0.0	0.6	2.1	0.3	0.3	50.244*** (8)
	비맞벌이	264	0.8	0.0	0.0	0.0	0.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자녀 수는 3명 이상인 경우가 2명인 경우보다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3명 이상 75.4%, 2명 70.6%).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라고 응답한 것보다 3명 이상인 응답자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라는 응답이 낮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자가 직접 돌보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은 85.1%였다. 이는 비맞벌이 응답자의 81.8%가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다. 미취학 자녀의 주말 및 공휴일 돌봄

주말 및 공휴일에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응답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0.6%, 배우자라는 응답은 22.9%로 나타났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연령(영아/유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72.4%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71.1%,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65.5%가 주말 및 공휴일에 미취학 자녀를 본인이 주로 돌본다고 응답했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경우 74.4%가 본인이 주로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나, 3명 이상인 응답자는 58.7%가 본인이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가 돌본다는 응답은 29.3%로 나타나, 두 자녀 응답자가 배우자가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20.7%)보다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72.8%가 본인이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22.1%는 배우자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보다 주말에 본인 돌본다는 응답이 낮았고(67.6%), 배우자가 돌본다는 응답은 더 많았다(24.0%).

【표 IV-5】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말 및 공휴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나	배우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전체		646	70.6	22.9	1.2	0.3	0.5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67.6	24.5	2.1	0.3	0.3
	유아(4~6세)	356	73.0	21.6	0.6	0.3	0.6
응답자 성별	여성	557	72.4	21.4	0.7	0.4	0.4
	남성	89	59.6	32.6	4.5	0.0	1.1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71.1	22.7	1.4	0.0	0.2
	배우자_무	55	65.5	25.5	0.0	3.6	3.6
자녀 수	2명	479	74.4	20.7	0.4	0.0	0.4
	3명 이상	167	58.7	29.3	3.6	1.2	0.6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72.8	22.1	0.3	0.5	0.3
	하지 않음	275	67.6	24.0	2.5	0.0	0.7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77.4	14.5	4.8	0.0	0.0
	300~400만 원 미만	103	70.9	24.3	1.0	0.0	0.0
	400~500만 원 미만	90	53.3	31.1	0.0	2.2	1.1
	500~600만 원 미만	120	77.5	15.8	0.8	0.0	0.8
	600만 원 이상	271	71.6	24.7	1.1	0.0	0.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75.8	19.3	0.9	0.0	0.0
	비맞벌이	264	65.2	26.9	1.9	0.0	0.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Ⅰ 표 IV-6 Ⅰ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말 및 공휴일)(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배우자의 아버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기타	$\chi^2(df)$
전체		646	0.3	0.2	0.2	3.9	-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0.0	0.3	0.3	4.5	8.949 (8)
	유아(4~6세)	356	0.6	0.0	0.0	3.4	
응답자 성별	여성	557	0.4	0.2	0.2	4.1	17.461* (8)
	남성	89	0.0	0.0	0.0	2.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0.3	0.0	1.8	4.2	49.006*** (8)
	배우자_무	55	0.0	1.8	0.0	0.0	
자녀 수	2명	479	0.2	0.2	0.0	3.3	29.663*** (8)
	3명 이상	167	0.6	0.0	0.6	5.4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0.3	0.0	0.3	3.5	12.077 (8)
	하지 않음	275	0.4	0.4	0.0	4.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1.6	1.6	0.0	0.0	71.136*** (32)
	300~400만 원 미만	103	0.0	0.0	0.0	3.9	
	400~500만 원 미만	90	0.0	0.0	0.0	12.2	
	500~600만 원 미만	120	0.0	0.0	0.0	5.0	
	600만 원 이상	271	0.4	0.0	0.4	1.5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0.3	0.0	0.3	3.4	10.493 (6)
	비맞벌이	264	0.4	0.0	0.0	5.3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2) 미취학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

먼저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용하는 기관의 특성을 주중 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646명의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공공기관(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26.3%였으며,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33.6%로, 민간기관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은 21.7%였으나 이용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8.4%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 모두 민간기관만 이용, 공공기관만 이용, 이용하는 기관 없음,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이용의 순서로 이용률이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20.0%,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34.5%였으며,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18.2%였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26.9%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많았으며, 공공과 민간기관을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이 21.2%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적었다.

자녀 수의 경우, 두 자녀 가구 응답자가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26.5%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경우,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았고, 공공과 민간을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26.9%),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25.7%),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18.0%)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28.6%,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32.3%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28.0%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자녀 가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다.

【 표 IV-7 】 미취학 자녀의 기관 이용 개괄

(단위 : 명, %)

구분		빈도	공공기관만 이용	민간기관만 이용	공공, 민간 모두 이용	이용하는 기관 없음
전체		646	26.3	33.6	21.7	18.4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27.6	29.0	13.1	30.3
	유아(4~6세)	356	25.3	37.4	28.7	8.7
응답자 성별	여성	557	25.0	33.8	23.2	18.1
	남성	89	34.8	32.6	12.4	20.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26.9	33.5	21.2	18.4
	배우자_무	55	20.0	34.5	27.3	18.2
자녀 수	2명	479	26.5	35.1	19.8	18.6
	3명 이상	167	25.7	29.3	26.9	18.0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28.6	32.3	27.8	11.3
	하지 않음	275	23.3	35.3	13.5	28.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21.0	35.5	12.9	30.6
	300~400만 원 미만	103	31.1	21.4	18.4	29.1
	400~500만 원 미만	90	34.4	35.6	12.2	17.8
	500~600만 원 미만	120	21.7	33.3	27.5	17.5
	600만 원 이상	271	25.1	37.3	25.5	12.2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27.5	32.4	29.1	11.0
	비맞벌이	264	26.1	34.8	11.4	27.7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1) 미취학 자녀의 공공돌봄 기관 이용 현황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주중 일과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8.5%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8.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 표 IV-8 】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여부(주종 일과 시간)(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하는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46	18.2	28.5	0.8	52.0	0.5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10.0	29.2	1.0	59.1	0.7
	유아(4~6세)	356	24.9	28.0	0.6	46.2	0.3
응답자 성별	여성	557	17.9	28.9	0.7	52.0	0.5
	남성	89	20.0	26.7	1.1	52.2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17.7	29.1	0.7	52.0	0.5
	배우자_무	55	23.2	23.2	1.8	51.8	0.0
자녀 수	2명	479	16.9	27.9	1.0	53.8	0.4
	3명 이상	167	22.0	30.4	0.0	47.0	0.6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23.6	32.4	0.3	43.7	0.0
	하지 않음	275	10.9	23.3	1.5	63.3	1.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8.1	24.2	0.0	67.7	0.0
	300~400만 원 미만	103	13.6	33.0	0.0	50.5	2.9
	400~500만 원 미만	90	17.4	28.3	2.2	52.2	0.0
	500~600만 원 미만	120	23.3	24.2	1.7	50.8	0.0
	600만 원 이상	271	20.3	29.9	0.4	49.4	0.0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22.9	33.2	0.3	43.6	0.0
	비맞벌이	264	11.4	23.9	1.1	62.5	1.1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이용 기관을 보면, 영아(0~3세)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59.1%로 높았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29.2%였다. 유아(4~6세)의 경우에도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8.0%,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4.9%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52.0%, 국공립 어린이

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9.1%,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 51.8%,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은 각각 23.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63.3%로 상당히 높아, 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는 이용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가 43.7%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2.4%,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3.6%로 경제활동 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각각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300만 원 미만의 경우 67.7%, 600만 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49.4%가 이용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응답자의 43.6%, 비맞벌이 응답자의 62.5%가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주중 저녁 이후 미취학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없다는 응답이 92.9%로 가장 많았다. 소수이긴 하나 국공립 유치원 3.9%, 국공립 어린이집 2.2% 등으로 나타나 주중 저녁 시간에도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다자녀가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와 맞벌이 가구 양육자는 주중 저녁 시간에도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공공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70.9%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낮았는데, 이는 양부모 다자녀 가구와 달리 한부모 다자녀 가구는 주중 저녁 시간에도 돌봄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 표 IV-9 】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여부(주중 저녁 시간)(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공육아 나눔터	이용하는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46	3.9	2.2	0.5	0.3	92.9	0.3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3.8	2.1	0.3	0.3	93.1	0.3
	유아(4~6세)	356	3.9	2.2	0.6	0.3	92.7	0.3
응답자 성별	여성	557	3.8	2.2	0.4	0.2	93.2	0.4
	남성	89	4.5	2.2	1.1	1.1	91.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2.4	1.9	0.5	0.2	94.9	0.2
	배우자_무	55	20.0	5.5	0.0	1.8	70.9	1.8
자녀수	2명	479	3.5	2.1	0.6	0.2	93.1	0.4
	3명 이상	167	4.8	2.4	0.0	0.6	93.2	0.0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5.4	2.4	0.8	0.3	91.1	0.0
	하지 않음	275	1.8	1.8	0.0	0.4	95.3	0.7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0.0	4.8	0.0	0.0	93.5	1.6
	300~400만 원 미만	103	1.9	1.0	0.0	0.0	95.1	1.0
	400~500만 원 미만	90	0.0	2.2	0.0	0.0	97.8	0.0
	500~600만 원 미만	120	5.0	1.7	0.0	0.8	92.5	0.0
	600만 원 이상	271	6.3	1.8	1.1	0.5	90.4	0.0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4.0	2.8	0.9	0.3	92.0	0.0
	비맞벌이	264	0.4	0.8	0.0	0.0	98.5	0.4

* 중복응답 문항이나 중복응답 없음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양육자가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96.4%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0~3세)와 유아(4~6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저녁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1%,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87.3%로 나타나, 한부

모 다자녀 가구가 주중 저녁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등 돌봄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 표 IV-10 】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여부(주말 및 공휴일)(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공육아 나눔터	이용하는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46	1.7	1.2	0.3	0.2	96.4	0.2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1.7	1.4	0.0	0.0	96.9	0.0
	유아(4~6세)	356	1.7	1.1	0.6	0.3	96.1	0.3
응답자 성별	여성	557	1.6	1.3	0.2	0.2	96.6	0.2
	남성	89	2.2	1.1	1.1	0.0	95.5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1.0	1.4	0.2	0.2	97.3	0.0
	배우자_무	55	9.1	0.0	1.8	0.0	87.3	1.8
자녀 수	2명	479	1.9	1.0	0.4	0.2	96.2	0.2
	3명 이상	167	1.2	1.8	0.0	0.0	97.0	0.0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2.7	1.6	0.3	0.3	95.1	0.0
	하지 않음	275	0.4	0.7	0.4	0.0	98.2	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0.0	0.0	0.0	1.6	96.8	1.6
	300~400만 원 미만	103	1.0	1.9	0.0	0.0	97.1	0.0
	400~500만 원 미만	90	0.0	1.1	0.0	0.0	98.9	0.0
	500~600만 원 미만	120	2.5	0.8	0.8	0.0	95.8	0.0
	600만 원 이상	271	2.6	1.5	0.4	0.0	95.6	0.0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1.8	2.1	0.3	0.3	95.4	0.0
	비맞벌이	264	0.0	0.4	0.0	0.0	99.6	0.0

* 중복응답 문항이나 중복응답 없음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미취학 자녀의 양육자 중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모두 310명으로 이들의 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평균 이용 일수는 일주일



중 4.9일,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29.2시간, 그리고 월평균 비용은 263,590.3원으로 나타났다. 영아(0세~3세)와 유아(4~6세)의 이용 일수와 이용 시간은 거의 유사했으며, 유아의 월평균 이용 비용(121,296.9원) 영아(114,449.2원)보다 다소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는 4.9일,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29.6시간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각각 4.8일, 24.6시간이었다.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와 맞벌이 가구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으나, 자녀 수에 따른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1 |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단위 : 명, 일, 시간, 원)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310	4.9	29.2	118,690.3
자녀 연령	영아(0~3세)	118	4.9	29.6	114,449.2
	유아(4~6세)	192	4.9	28.9	121,296.9
	t(df)	-	.801(308)	.485(308)	-.406(308)
응답자 성별	여성	268	4.9	29.2	115,977.6
	남성	42	4.9	28.9	136,000.0
	t(df)	-	-.469(308)	.161(308)	-.837(308)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284	4.9	29.6	113,471.8
	배우자_무	26	4.8	24.6	175,692.3
	t(df)	-	.880(308)	2.112*(308)	-2.120*(308)
자녀 수	2명	222	4.9	29.8	113,121.6
	3명 이상	88	5.0	27.5	132,738.6
	t(df)	-	-1.302(308)	1.574(308)	-1.081(308)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209	4.9	30.3	136,555.0
	하지 않음	101	4.9	26.8	81,722.8
	t(df)	-	-1.108(308)	2.533*(308)	3.187**(308)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1	4.8	28.2	42,428.6
	300~400만 원 미만	51	4.9	25.8	89,039.2
	400~500만 원 미만	42	4.9	29.3	79,047.6
	500~600만 원 미만	59	4.8	30.1	155,423.7
	600만 원 이상	137	4.9	30.2	137,751.8
	F(df)	-	.694(4)	1.473(4)	4.568*** (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185	4.9	31.1	117,837.8
	비맞벌이	99	5.0	26.8	105,313.1
	t(df)	-	1.375(282)	3.052** (282)	.720(282)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284)

이용 비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는 미취학 자녀의 공공기관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136,555.0원을 사용하였으며(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 81,722.8원),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응답 집단의 월평균 이용 비용은 42,428.6원인데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 500~600만 원 미만 응답 집단은 155,423.7원, 600만 원 이상인 응답 집단의 월평균 이용 비용은 137,751.8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2)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현황

미취학 자녀가 공공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0%(표 IV-8)였던 것에 비해 민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3%로 더 적어,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을 위해 민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정도나 다양성이 더 컸다. 주중 일과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간기관은 민간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으로 18.6%, 사립 유치원은 13.6%로 나타났으며, 예체능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9.0%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영아(0~3세)인 경우,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4%로 유아(4~6세)보다 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1.5%로 뒤를 이었다. 유아(4~6세)인 경우,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8%, 사립

유치원이라는 응답은 19.3%, 민간어린이집, 놀이방은 16.4%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12 】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일과 시간)(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사립 유치원	민간어린이 집, 놀이방	교과목 학원 (영어유치원 포함)	예체능 학원	직장 보육시설
전체		646	13.6	18.6	4.3	9.0	2.4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6.4	21.5	2.0	3.4	2.7
	유아(4~6세)	356	19.3	16.4	6.1	13.5	2.1
응답자 성별	여성	557	12.8	19.2	4.6	9.9	2.4
	남성	89	18.5	15.2	2.2	3.3	2.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13.9	17.9	4.2	9.4	2.4
	배우자_무	55	10.7	30.4	5.4	1.8	1.8
자녀 수	2명	479	13.1	17.9	4.6	8.4	2.8
	3명 이상	167	14.9	20.7	3.4	10.9	1.1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14.1	18.5	5.4	4.9	2.6
	하지 않음	275	12.9	18.9	2.8	4.9	2.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3.2	33.3	4.8	3.2	0.0
	300~400만 원 미만	103	8.7	19.4	1.0	4.9	1.0
	400~500만 원 미만	90	9.9	24.2	1.1	5.5	1.1
	500~600만 원 미만	120	9.1	22.3	5.8	9.9	5.0
	600만 원 이상	271	20.5	12.1	5.7	12.4	2.7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14.8	16.5	5.5	13.3	2.9
	비맞벌이	264	12.7	18.9	2.5	5.1	1.8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나 자녀 수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민간기관이 없다는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의 경우, 공공기관 이용 현황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이와 맞물려 맞벌이 여부에 따른 기관 이용에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맞벌이 가구는 미취학 자녀가 주중 일과 시간에 이용하는 민간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43.1%, 41.7%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53.1%), 비맞벌이 가구(54.4%)보다 낮았다.

【표 IV-13】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일과 시간)(중복응답)(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교과목 개인 교습	예체능 개인 교습	공동체육아	이용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46	3.0	1.2	0.4	47.3	0.1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3.4	0.7	0.3	59.4	0.3
	유아(4~6세)	356	2.6	1.6	0.5	37.8	0.0
응답자 성별	여성	557	2.9	1.4	0.5	46.1	0.2
	남성	89	3.3	0.0	0.0	55.4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3.1	1.3	0.3	47.4	0.2
	배우자_무	55	1.8	0.0	1.8	46.4	0.0
자녀 수	2명	479	2.8	1.4	0.6	48.2	0.2
	3명 이상	167	3.4	0.6	0.0	44.8	0.0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3.1	1.3	0.0	43.1	0.0
	하지 않음	275	3.5	0.3	1.0	53.1	0.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1.6	0.0	0.0	54.0	0.0
	300~400만 원 미만	103	0.0	0.0	1.0	64.1	0.0
	400~500만 원 미만	90	2.2	0.0	0.0	56.0	0.0
	500~600만 원 미만	120	3.3	1.7	0.0	42.1	0.8
	600만 원 이상	271	4.4	2.0	0.7	39.6	0.0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3.5	1.7	0.0	41.7	0.0
	비맞벌이	264	2.5	0.7	0.7	54.4	0.4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주중 저녁 시간에는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민간 돌봄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0.5%였다. 영아(0~3세)가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률은 89.0%로 유아



(4~6세)보다 높았다(74.3%).

【 표 IV-14 】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저녁 시간)(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사립 유치원	민간어린 이집, 놀이방	교과목 학원 (영어유치원 포함)	예체능 학원	직장 보육시설
전체		646	2.7	2.9	2.3	4.5	0.3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2.7	3.4	0.3	0.7	0.3
	유아(4~6세)	356	2.7	2.4	3.8	7.3	0.3
응답자 성별	여성	557	2.1	2.3	2.5	4.4	0.2
	남성	89	6.7	6.7	1.1	4.5	1.1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2.2	2.6	2.0	4.5	0.3
	배우자_무	55	8.9	5.4	5.4	3.6	0.0
자녀 수	2명	479	1.6	2.7	1.8	4.5	0.4
	3명 이상	167	5.8	3.5	3.5	4.0	0.0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2.6	3.4	2.6	6.0	0.5
	하지 않음	275	2.9	2.2	1.8	2.2	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0.0	6.3	1.6	3.2	0.0
	300~400만 원 미만	103	1.9	3.8	0.0	1.9	0.0
	400~500만 원 미만	90	0.0	2.2	0.0	3.3	0.0
	500~600만 원 미만	120	1.6	2.5	2.5	5.7	0.0
	600만 원 이상	271	5.0	2.1	3.9	5.3	0.7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3.9	3.3	2.1	5.7	0.6
	비맞벌이	264	0.0	1.9	1.9	3.0	0.0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이용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67.9%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82.0%)보다 낮게 나타나, 주중 저녁 시간에도 돌봄 지원을 위한 기관 이용 수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자녀가 주중 저녁에 민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1%, 맞벌이 중인 응답자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6%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표 IV-15】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중 저녁 시간)(중복응답)(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교과목 개인 교습	예체능 개인 교습	공동체육아	이용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46	6.0	0.2	0.2	80.5	0.3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2.4	0.3	0.0	89.0	0.7
	유아(4~6세)	356	8.9	0.0	0.3	74.3	0.0
응답자 성별	여성	557	6.1	0.2	0.2	81.8	0.4
	남성	89	5.6	0.0	0.0	74.2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6.1	0.2	0.0	82.0	0.2
	배우자_무	55	5.4	0.0	1.8	67.9	1.8
자녀 수	2명	479	7.0	0.0	0.2	81.3	0.4
	3명 이상	167	3.5	0.6	0.0	79.2	0.0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9.2	0.3	0.0	75.1	0.3
	하지 않음	275	1.8	0.0	0.4	88.5	0.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1.6	0.0	1.6	84.1	1.6
	300~400만 원 미만	103	2.9	0.0	0.0	89.4	0.0
	400~500만 원 미만	90	3.3	0.0	0.0	91.1	0.0
	500~600만 원 미만	120	4.9	0.0	0.0	82.8	0.0
	600만 원 이상	271	9.6	0.4	0.0	72.6	0.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9.3	0.3	0.0	74.6	0.3
	비맞벌이	264	2.2	0.0	0.0	91.1	0.0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자녀 수에 따른 민간기관 이용 여부의 응답 차이는 없었으나, 이용 기관을 보면 두 자녀 가구는 교과목 개인 교습 이용률이 7.0%로 세 자녀 이상 가구보다 높았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각각 5.8%, 3.5%로 두 자녀 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월평균 300만 원 미만과 월평균 600만 원 이상에서 민간 돌봄 기관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립 유치원, 교과목 학원, 예체능 학원, 그리고 교과목 개인 교습 이용 정도가 다른 소득 집단보다 높았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미취학 자녀 돌봄 및 교육을 위해 민간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0%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 학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2%). 영아(0~3세)의 경우 90.4%가 이용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유아(4~6세)의 경우 89.6%가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이용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90.2%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87.3%가 이용 기관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91.0%, 3명 이상인 응답자의 86.8%가 민간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주중 일과 시간이나 주중 저녁 시간의 기관 이용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말에 다수의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담되어 기관을 통해 돌봄 부담을 분산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 표 IV-16 】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말 및 공휴일)(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사립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교과목 학원 (영어유치원 포함)	예체능 학원
전체		646	0.9	1.7	0.6	2.2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0.7	1.4	1.0	0.3
	유아(4~6세)	356	1.1	2.0	0.3	3.7
응답자 성별	여성	557	0.7	1.6	0.2	2.2
	남성	89	2.2	2.2	3.4	2.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0.8	1.7	0.7	2.0
	배우자_무	55	1.8	1.8	0.0	3.6
자녀 수	2명	479	0.6	1.7	0.4	1.7
	3명 이상	167	1.8	1.8	1.2	3.6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1.3	1.6	0.3	3.0
	하지 않음	275	0.4	1.8	1.1	1.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0.0	0.0	0.0	3.2
	300~400만 원 미만	103	0.0	2.9	0.0	1.9
	400~500만 원 미만	90	0.0	0.0	1.1	1.1
	500~600만 원 미만	120	1.7	1.7	0.0	3.3
	600만 원 이상	271	1.5	2.2	1.1	1.8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1.5	2.4	0.9	3.1
	비맞벌이	264	0.0	0.8	0.4	0.8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경제활동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민간 돌봄 기관 이용 현황은 경제활동 중, 맞벌이 중인 응답자가 주말 및 공휴일에 민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적었으나, 주중 일과 시간이나 저녁 시간의 이용 현황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을 하거나 맞벌이 중인 다자녀 양육자도 주말에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민간기관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주말 및 공휴일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에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 표 IV-17 】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여부(주말 및 공휴일)(중복응답)(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교과목 개인 교습	예체능 개인 교습	공동체 육아	이용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46	1.7	0.6	0.5	90.0	1.9
자녀 연령	영아(0~3세)	290	2.4	0.3	0.7	90.4	2.7
	유아(4~6세)	356	1.1	0.8	0.3	89.6	1.1
응답자 성별	여성	557	1.6	0.7	0.5	91.0	1.4
	남성	89	2.2	0.0	0.0	83.1	4.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91	1.9	0.7	0.5	90.2	1.5
	배우자_무	55	0.0	0.0	0.0	87.3	5.5
자녀 수	2명	479	1.3	0.8	0.4	91.0	2.1
	3명 이상	167	3.0	0.0	0.6	86.8	1.2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371	2.2	0.8	0.8	88.4	1.6
	하지 않음	275	1.1	0.4	0.0	92.0	2.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	3.2	0.0	3.2	87.1	3.2
	300~400만 원 미만	103	1.0	0.0	0.0	94.2	0.0
	400~500만 원 미만	90	1.1	0.0	0.0	90.0	6.7
	500~600만 원 미만	120	1.7	0.8	0.0	90.1	0.8
	600만 원 이상	271	1.8	1.1	0.4	88.9	1.1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2.4	0.9	0.9	87.5	0.3
	비맞벌이	264	1.1	0.4	0.0	93.6	3.0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91)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일수는 일주일 평균 4.5일, 이용 시간은 일주일 평균 19.5시간, 이용 비용은 월평균 257,764.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이용 월평균

비용인 118,690.3원보다 139,074.1원 많은 것이다. 즉, 다자녀 가구가 미취학 자녀를 위한 돌봄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 이용에 약 2.2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아(0~3세)와 유아(4~6세)의 경우, 공공기관 이용 일수와 시간, 비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민간기관 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민간기관 이용 일수는 영아와 유아 모두 4.5일로 차이가 없었고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영아 19.9시간, 유아 19.2시간으로 영아가 약간 길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월평균 이용 비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유아의 경우 민간기관 월평균 이용료가 274,212.3원, 영아의 경우 226,082.0원으로 유아의 민간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이용 일수는 4.5일로 같았으며,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어, 여성 응답자의 경우 18.8시간, 남성 응답자의 경우 25.1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비용은 여성 응답자의 경우 259,965.0원, 남성 응답자의 경우 240,325.0원으로 여성이 약간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민간 돌봄 기관 이용 일수와 이용 시간이 더 길었다. 공공기관 이용 일수와 이용 시간도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길었는데,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민간 돌봄 기관 이용 일수와 시간은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서 이용 일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9.9시간으로 3명 이상인 응답자보다 길었다. 반면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와 월평균 이용 비용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기관을 길게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맞벌이 중인 경우, 월평균 이용 비용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이용 비용이 297,460.0으로 가장 높았는데, 그다음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소득 집단이 3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241,533.3원).

【 표 IV-18 】 미취학 자녀의 민간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단위 : 명, 일, 시간, 원)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357	4.5	19.5	257,764.4
자녀 연령	영아(0~3세)	122	4.5	19.9	226,082.0
	유아(4~6세)	235	4.5	19.2	274,212.3
	$F(df)$	-	.310(355)	.423(355)	-2.095*(355)
응답자 성별	여성	317	4.5	18.8	259,965.0
	남성	40	4.5	25.1	240,325.0
	$F(df)$	-	-.022(355)	-2.493*(355)	.565(35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323	4.5	19.8	256,776.8
	배우자_무	34	4.0	15.9	267,147.1
	$F(df)$	-	2.424*(355)	1.421(355)	-.278(355)
자녀 수	2명	263	4.5	19.9	255,215.6
	3명 이상	94	4.5	18.3	264,895.7
	$F(df)$	-	.058(355)	.882(355)	-.389(355)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223	4.6	19.4	261,932.7
	하지 않음	134	4.4	19.6	250,827.6
	$F(df)$	-	1.164(355)	-.097(355)	.491(35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0	4.7	22.3	241,533.3
	300~400만 원 미만	41	4.4	19.9	225,195.1
	400~500만 원 미만	43	4.7	19.7	215,930.2
	500~600만 원 미만	73	4.4	16.2	214,927.4
	600만 원 이상	170	4.5	20.2	297,460.0
	$F(df)$	-	.828(4)	1.220(4)	3.162*(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201	4.6	19.4	256,194.0
	비맞벌이	122	4.5	20.6	257,736.9
	$F(df)$	-	.173(321)	-.717(321)	-.066(32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323)

2.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1)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현황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 자녀인 응답자는 554명,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2명의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는 225명,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는 20명으로, 돌봄 현황의 분석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 자녀는 총 799명이다. 799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기준으로, 방과 후 주로 돌보는 사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19】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나	배우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아동의 형제자매
전체		799	58.8	10.6	8.9	0.3	3.3	0.8	1.0
응답자 성별	여성	679	66.0	2.4	9.7	0.3	2.4	0.9	1.2
	남성	120	18.3	57.5	4.2	0.0	8.3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20	61.0	10.6	8.3	0.3	3.3	0.8	1.1
	배우자_무	79	39.2	11.4	13.9	0.0	2.5	0.0	0.0
자녀 수	2명	560	59.5	10.4	9.5	0.4	4.1	0.5	0.9
	3명 이상	239	57.3	11.3	7.5	0.0	1.3	1.3	1.3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519	39.9	14.8	13.5	0.4	5.0	1.0	1.5
	하지 않음	280	93.9	2.9	0.4	0.0	0.0	0.4	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68.5	0.0	7.4	0.0	0.0	0.0	0.0
	300~400 만 원 미만	113	72.6	11.5	3.5	0.0	1.8	0.0	0.0
	400~500 만 원 미만	122	71.3	14.8	3.3	0.0	1.6	0.0	0.8
	500~600 만 원 미만	142	64.1	8.5	7.0	0.0	0.0	1.4	0.0
	600만 원 이상	368	47.0	11.4	13.3	0.5	6.0	1.1	1.9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96	45.2	7.6	14.6	0.5	5.8	1.3	2.0
	비맞벌이	324	80.2	14.2	0.6	0.0	0.3	0.3	0.0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720)



【표 IV-20】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 주로 돌보는 사람(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천척	방과 후 학교 교사	지역아동 센터 교사	우리동네 키움센터 / 온종일 돌봄센터 교사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이웃 주민	혼자 지냄
전체		799	0.1	3.6	0.9	0.4	7.8	0.9	2.8
응답자 성별	여성	679	0.1	3.7	0.9	0.4	8.1	0.9	3.1
	남성	120	0.0	3.3	0.8	0.0	5.8	0.8	0.8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20	0.1	2.8	0.7	0.3	7.6	1.0	2.1
	배우자_무	79	0.0	11.4	2.5	1.3	8.9	0.0	8.9
자녀 수	2명	560	0.2	3.6	0.5	0.4	6.6	1.3	2.3
	3명 이상	239	0.0	3.8	1.7	0.4	10.5	0.0	3.8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519	0.2	5.6	1.0	0.4	11.4	1.3	4.0
	하지 않음	280	0.0	0.0	0.7	0.4	1.1	0.0	0.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0.0	7.4	3.7	0.0	5.6	1.9	5.6
	300~400만 원 미만	113	0.0	2.7	0.9	0.0	5.3	0.0	1.8
	400~500만 원 미만	122	0.0	2.5	0.0	0.8	3.3	0.0	1.6
	500~600만 원 미만	142	0.0	4.2	2.8	0.0	12.0	0.0	0.0
	600만 원 이상	368	0.3	3.5	0.0	0.5	8.7	1.6	4.1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96	0.3	4.8	0.8	0.5	11.4	1.8	3.5
	비맞벌이	324	0.0	0.3	0.6	0.0	3.1	0.0	0.3

* 비율은 응답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720)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응답자 본인 58.8%, 배우자 10.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은 8.9%, 응답자의 아버지가 돌본다는 응답은 0.3%, 배우자의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은 3.3%, 배우자의 아버지가 돌본다는 응답은 0.8%로 나타나 조손 돌봄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을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총 13.3%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66.0%, 본인의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나, 모계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은 39.2%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 비해 낮았는데(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61.0%), 응답자의 어머니(13.9%), 방과 후 학교 교사(11.4%)라는 응답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 자녀 수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두 자녀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59.5%, 세 자녀 이상의 경우 57.3%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맞벌이 중인 경우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적었으며, 응답자의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률이 각각 13.5%, 14.6%로 더 높았는데, 이는 다자녀 양육자가 맞벌이를 위해서 사적 돌봄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을 제외하고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자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 응답자는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47.0%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낮은 반면 본인의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13.3%, 배우자의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6.0%로 다른 소득 집단의 조손 돌봄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¹⁶⁾,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가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방과 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자녀 혼자 지내는 경우는 2.8%로 아동수로는 22명, 응답자로는 19개 사례였다.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27.3%였으며, 고학년(4학년~6학년)이 혼자 지낸다는 응답이 72.7%로 나타났다. 사례 수가 적기는 하지만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16) 본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 중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7,599,873.74원, 비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144,938.27원이다.

맞벌이 경우로,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 더욱 세심하게 요구되는 집단으로 주요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2)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기관 이용 현황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생 자녀가 공공의 돌봄 및 교육 기관(이하 공공기관)만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5.3%로 낮았으며, 민간 돌봄 및 교육 기관(이하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은 35.3%였으며,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7.9%였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 응답자의 경우 47.5%가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4.0%로 매우 낮았으며,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16.5%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는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53.8%인 반면, 3명 이상인 응답자는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46.4%로 두 자녀 응답에 비해 낮았고, 공공기관만 이용하거나,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이 두 자녀 응답에 비해 많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비맞벌이 응답자의 경우, 모두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과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모두 높은 특징이 있다.

【 표 IV-21 】 초등학생 자녀의 기관 이용 개괄(주중 일과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공공기관만 이용	민간기관만 이용	공공, 민간 모두 이용	이용하는 기관 없음
전체		799	5.3	51.6	35.3	7.9
응답자 성별	여성	679	5.3	53.6	33.1	8.0
	남성	120	5.0	40.0	47.5	7.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20	4.0	53.6	34.2	8.2
	배우자_무	79	16.5	32.9	45.6	5.1
자녀 수	2명	560	4.3	53.8	34.3	7.7
	3명 이상	239	7.5	46.4	37.7	8.4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519	5.6	47.4	43.0	4.0
	하지 않음	280	4.6	59.3	21.1	15.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14.8	48.1	31.5	5.6
	300~400만 원 미만	113	8.8	48.7	31.0	11.5
	400~500만 원 미만	122	4.9	53.3	25.4	16.4
	500~600만 원 미만	142	3.5	51.4	35.2	9.9
	600만 원 이상	368	3.5	52.4	40.5	3.5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96	3.8	49.5	43.2	3.5
	비맞벌이	324	4.3	58.6	23.1	13.9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720)



(1) 초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용하는 공교육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5.1%, 지역아동센터 3.5%,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돌봄센터 등 2.1%,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0.7%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공교육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았는데(여성 61.6%, 남성 47.5%) 이는 여성 응답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을 직접 수행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표 IV-22 】 초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온종일돌봄 센터 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하는 기관 없음
전체		799	35.1	3.5	2.1	0.7	58.6
응답자 성별	여성	679	33.0	3.8	2.2	0.9	61.6
	남성	120	50.8	1.7	1.7	0.0	47.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20	34.2	2.4	2.1	0.6	61.8
	배우자_무	79	49.4	13.9	2.5	2.5	38.0
자녀 수	2명	560	35.5	2.3	1.3	0.7	61.4
	3명 이상	239	36.0	6.3	4.2	0.8	54.8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519	41.8	4.8	2.9	1.2	51.4
	하지 않음	280	24.3	1.1	0.7	0.0	74.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35.2	9.3	1.9	0.0	53.7
	300~400만 원 미만	113	34.5	7.1	2.7	0.0	60.2
	400~500만 원 미만	122	28.7	0.8	1.6	0.8	69.7
	500~600만 원 미만	142	34.5	2.1	2.1	0.0	61.3
	600만 원 이상	368	38.9	3.0	2.2	1.4	56.0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96	40.9	3.0	3.0	0.8	53.0
	비맞벌이	324	25.9	1.5	0.9	0.3	72.5

* 비율은 응답자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720)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이용하는 공교육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61.8%,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38.0%).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는

응답(각각 49.4%, 13.9%)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응답자는 세 자녀 이상 응답자보다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자녀 61.4%, 세 자녀 이상 54.8%).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두 자녀보다 많았다. 경제활동 중이거나 맞벌이 중인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일수는 일주일 평균 3.5일, 이용 시간은 일주일 평균 7.2시간이며, 이용 비용은 월평균 108,776.2원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과 남성 응답자의 초등학생 자녀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일수와 이용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월평균 이용 비용을 보면,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응답자 101,243.3원, 남성 응답자 139,984.1원).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는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가 3.8일로 두 자녀 응답자의 3.3일보다 길었다. 그러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과 월평균 이용 비용의 차이는 없었다. 경제활동 중이거나 맞벌이 중인 응답자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일수에서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경우,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와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는 초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기관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이 7.6시간이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5.8시간이었다.

초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23】 초등학교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단위 : 명, 일, 시간, 원)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324	3.5	7.2	108,776.2
응답자 성별	여성	261	3.5	7.4	101,243.3
	남성	63	3.5	6.6	139,984.1
	t(df)	-	-.245(322)	.826(322)	-2.052*(32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275	3.4	7.0	109,694.6
	배우자_무	49	3.8	8.7	103,622.5
	t(df)	-	-1.367(322)	-1.674(322)	.289(322)
자녀 수	2명	216	3.3	7.4	108,902.8
	3명 이상	108	3.8	6.8	108,523.2
	t(df)	-	-2.977(322)**	.750(322)	.024(322)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252	3.7	7.6	113,236.1
	하지 않음	72	2.9	5.8	93,166.7
	t(df)	-	3.823***(322)	1.986*(322)	1.112(32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5	3.7	6.8	88,300.0
	300~400만 원 미만	45	3.3	8.7	93,400.0
	400~500만 원 미만	37	3.3	8.0	127,891.9
	500~600만 원 미만	55	3.4	6.8	84,454.6
	600만 원 이상	162	3.6	6.9	120,098.8
	F(df)	-	.633(4)	.838(4)	1.207(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186	3.7	7.4	118,446.2
	비맞벌이	89	2.9	6.0	91,404.5
	t(df)	-	3.980**(273)	1.665(273)	1.472(273)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275)

(2) 초등학생 자녀의 민간 교육기관(사교육) 이용 현황

초등학생 자녀의 민간 교육기관(이하 사교육)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8.7%로 대부분의 초등학생 자녀가 사교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가 교과목 학원에 다닌다는 응답은 37.0%, 예체능 학원에 다닌다는 응답은 35.2%였으며, 교과목 개인 교습을 하는 경우는 9.8%였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2.2%,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21.5%),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12.0%, 3명 이상인 응답자의 15.9%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사교육 접근성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와 맞벌이 중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사교육에 더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6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사교육 이용은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여부 및 맞벌이 여부,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IV-24 】 초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기관 이용 현황(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교과목 학원	예체능 학원	교과목 개인 교습	예체능 개인 교습	인터넷 강의	이용하는 기관 없음	기타
전체		799	37.0	35.2	9.8	3.3	5.2	8.7	0.7
응답자 성별	여성	679	54.9	54.2	15.6	4.7	7.8	13.3	1.0
	남성	120	60.0	46.7	10.0	6.7	8.3	12.5	0.8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20	56.4	54.7	15.6	4.7	8.1	12.2	1.0
	배우자_무	79	49.4	38.0	7.6	7.6	6.3	21.5	1.3
자녀 수	2명	560	60.7	56.1	14.5	5.4	7.7	12.0	0.9
	3명 이상	239	43.9	46.0	15.5	4.2	8.4	15.9	1.3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519	59.5	52.8	15.6	6.2	9.4	9.6	0.8
	하지 않음	280	48.6	53.6	13.2	2.9	5.0	19.6	1.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38.9	42.6	24.1	1.9	7.4	20.4	0.0
	300~400 만 원 미만	113	48.7	47.8	8.8	3.5	8.8	20.4	4.4
	400~500 만 원 미만	122	45.9	54.9	8.2	2.5	9.0	21.3	0.0
	500~600 만 원 미만	142	47.9	57.7	14.1	2.8	10.6	13.4	0.0
	600만 원 이상	368	66.6	53.8	17.7	7.6	6.3	7.1	0.8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96	60.1	53.5	17.2	5.3	9.3	7.3	1.0
	비맞벌이	324	51.9	56.2	13.6	4.0	6.5	18.2	0.9

* 비율은 응답자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720)

다자녀 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488,598.0만 원으로 나타났다¹⁷⁾.
일주일 평균 4.4일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은 일주일 평균 8.7시간이었다.

17) 이는 전국 평균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교육부(2021)의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 1인당)월평균 40만 원이다.

응답자 성별,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양육자의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여부가 사교육 참여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만, 일단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일수나 시간, 비용 등에 있어 양육자의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이나 맞벌이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 수에 따른 사교육 이용 현황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두 일주일 평균 사교육 기관 이용 일수는 각각 4.5일과 4.3일로 유의미한 차가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각각 9.1시간과 7.7시간으로 두 자녀 가구 응답자 자녀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길었으며 사교육비도 두 자녀 응답자는 532,742.4원, 세 자녀 이상 응답자는 380,323.4원으로 두 자녀 응답자가 평균 152,419.0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당 사교육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정된 가구소득 내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당 사교육 이용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 이용 시간과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이용 일수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IV-25 】 초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이용 일수, 시간, 비용

(단위 : 명, 일, 시간, 원)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694	4.4	8.7	488,598.0
응답자 성별	여성	589	4.5	8.8	497,278.4
	남성	105	4.2	8.2	439,904.8
	t(df)	-	1.818((692)	.945(692)	1.454(69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632	4.4	8.8	496,617.1
	배우자_무	62	4.4	7.5	406,854.8
	t(df)	-	.479(692)	1.609(692)	1.812(692)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자녀 수	2명	493	4.5	9.1	532,742.4
	3명 이상	201	4.3	7.7	380,323.4
	t(df)	-	1.303(692)	2.756*(692)	4.969***(692)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469	4.5	8.6	490,221.8
	하지 않음	225	4.3	8.9	485,213.3
	t(df)	-	1.487(692)	-0.599(692)	.166(69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3	4.2	7.6	314,372.1
	300~400만 원 미만	90	4.3	8.4	362,555.6
	400~500만 원 미만	96	4.5	7.4	425,104.2
	500~600만 원 미만	123	4.3	8.4	439,105.7
	600만 원 이상	342	4.5	9.4	579,295.3
	F(df)	-	1.707(4)	2.722*(4)	11.930***(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67	4.4	8.6	491,512.26
	비맞벌이	265	4.4	9.1	503,686.79
	t(df)	-	-0.015(630)	-1.031(630)	-0.401(63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632)

3.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1)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응답자는 446명,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2명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응답자는 162명,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응답자는 10명으로, 조사 대상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총 618명이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률은 다소 낮아,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81.3%로 나타났다.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공교육 기관은 방과 후 교실로 13.8%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표 IV-26 】 중고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방과후교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하는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18	13.8	2.0	2.4	81.3	0.5
응답자 성별	여성	521	14.4	2.3	1.5	84.3	0.6
	남성	97	13.4	1.0	7.2	80.4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51	14.0	1.6	2.4	84.6	0.5
	배우자_무	67	16.4	6.0	3.0	76.1	0.0
자녀 수	2명	420	12.6	1.4	1.7	84.5	0.5
	3명 이상	198	17.7	3.5	4.0	81.8	0.5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456	13.4	2.0	2.2	84.4	0.0
	하지 않음	162	16.7	2.5	3.1	81.5	1.9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11.1	3.7	3.7	81.5	0.0
	300-400만 원 미만	59	15.3	10.2	5.1	81.4	0.0
	400-500만 원 미만	74	17.6	1.4	1.4	81.1	0.0
	500-600만 원 미만	125	15.2	1.6	2.4	82.4	0.0
	600만 원 이상	306	13.4	0.7	2.0	85.6	1.0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15.0	2.1	3.4	83.2	0.0
	비맞벌이	224	12.5	0.9	0.9	86.6	1.3

* 비율은 응답자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51)

여성 응답자의 84.3%, 남성 응답자의 80.4%가 중고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84.6%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76.1%가 이용하는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이 없다고 응답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4%,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다자녀 양육자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이 없다는 응답



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84.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81.5%로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응답자의 83.2%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비맞벌이 가구 응답자는 86.6%가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해, 비맞벌이 가구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자의 이용 현황을 보면,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는 2.8일,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6.5시간, 월평균 이용 비용은 158,490.7원이었다.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응답 집단의 특성에 따른 이용 현황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인 경우, 두 자녀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비용이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IV-27 】 중고등학생 자녀의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일수, 시간, 비용

(단위 : 명, 일, 시간, 원)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108	2.8	6.5	158,490.7
응답자 성별	여성	89	2.7	6.2	150,640.5
	남성	19	2.8	7.9	195,263.2
	t(df)	-	-.130(106)	-.873(106)	-.813(106)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2	2.7	6.1	144,315.2
	배우자_무	16	3.0	8.8	240,000.0
	t(df)	-	-.744(106)	-1.309(106)	-1.641(106)
자녀 수	2명	65	2.5	6.3	172,415.4
	3명 이상	43	3.2	6.8	137,441.9
	t(df)	-	-2.455*(106)	-.353(106)	-.819(106)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77	2.8	7.0	153,337.7
	하지 않음	31	2.5	5.3	171,290.3
	t(df)	-	1.061(106)	1.054(106)	-.388(10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	2.7	8.5	98,000.0
	300~400만 원 미만	12	2.8	8.8	192,500.0
	400~500만 원 미만	15	2.9	4.3	118,333.3
	500~600만 원 미만	24	2.7	5.8	158,333.3
	600만 원 이상	47	2.7	6.6	175,574.5
	F(df)	-	.044(4)	.783(4)	.460(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61	2.8	6.1	135,032.8
	비맞벌이	31	2.6	6.1	162,580.7
	t(df)	-	.438(90)	-.009(90)	-.634(90)

* p<.05, ** p<.01, *** p<.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2)

2) 중고등학생 자녀의 민간 교육기관(사교육) 이용 현황

다자녀 가구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11.0%로 낮아, 다수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 학원의 경우 전체 중고등학생 자녀의 72.3%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 강의는 15.4%, 교과목 개인 교습은 12.3%가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74.4%가 교과목 학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나,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서는 55.2%로 나타났으며, 이용하는 사교육이 없다는 응답도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른 차이도 있어, 두 자녀 가구의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과목 학원 이용률은 75.0%였으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6.7%로 더 낮았다. 예체능, 교과목 개인 교습, 예체능 개인 교습, 인터넷 강의 등 모두 세 자녀 이상 가구보다 두 자녀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았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8.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표 IV-28 】 중고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이용 현황(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교과목 학원	예체능 학원	교과목 개인 교습	예체능 개인 교습	인터넷 강의	이용하는 기관 없음	기타
전체		618	72.3	10.8	12.3	5.0	15.4	11.0	1.8
응답자 성별	여성	521	71.8	11.1	11.9	4.4	15.5	10.7	2.1
	남성	97	75.3	9.3	14.4	8.2	14.4	12.4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유	551	74.4	10.3	12.9	5.1	15.4	10.5	1.5
	배우자무	67	55.2	14.9	7.5	4.5	14.9	14.9	4.5
자녀 수	2명	420	75.0	11.7	13.8	5.2	17.1	7.6	1.4
	3명 이상	198	66.7	9.1	9.1	4.5	11.6	18.2	2.5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456	72.8	11.4	12.3	5.3	15.6	10.5	1.8
	하지 않음	162	71.0	9.3	12.3	4.3	14.8	12.3	1.9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42.6	7.4	1.9	1.9	16.7	29.6	1.9
	300~400 만원미만	59	69.5	11.9	11.9	1.7	5.1	20.3	1.7
	400~500 만원미만	74	70.3	2.7	12.2	2.7	13.5	12.2	2.7
	500~600 만원미만	125	72.8	4.8	11.2	3.2	19.2	9.6	1.6
	600만 원 이상	306	78.4	15.7	14.7	7.5	16.0	6.2	1.6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27	74.9	11.6	13.1	5.5	14.7	9.5	1.2
	비맞벌이	224	73.7	8.5	12.5	4.5	16.5	12.1	1.8

* 비율은 응답자 수 기준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51)

응답자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에 따른 사교육 이용 현황에 차이 없었으나,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9.6%로 높았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에서 사교육 이용률이 높은 영역은 예체능 분야와 개인 교습 방식이었다.

【 표 IV-29 】 중고등학생 자녀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이용 일수, 시간, 비용

(단위 : 명, 일, 시간, 원)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550	4.4	12.3	770,540.0
응답자 성별	여성	465	4.4	12.4	760,187.1
	남성	85	4.4	11.7	827,176.5
	t(df)	-	.201(548)	.557(548)	-1.074(548)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493	4.4	12.4	790,776.9
	배우자_무	57	4.1	11.7	595,508.8
	t(df)	-	1.546(548)	.493(548)	2.653**(548)
자녀 수	2명	388	4.4	12.7	825,585.1
	3명 이상	162	4.3	11.2	638,703.7
	t(df)	-	1.250(548)	1.651(548)	3.823*** (54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	4.1	10.0	420,894.7
	300~400만 원 미만	47	3.9	8.6	599,361.7
	400~500만 원 미만	65	4.1	11.7	606,461.5
	500~600만 원 미만	113	4.4	12.1	725,159.3
	600만 원 이상	287	4.6	13.4	899,895.5
	F(df)	-	.044(4)	.783(4)	.460(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296	4.4	11.9	769,256.8
	비맞벌이	197	4.5	13.1	823,111.7
	t(df)	-	-1.175(491)	-1.368(491)	-1.110(49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493)



사교육을 이용 중인 중고등학생 자녀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는 4.4일,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2.3시간, 월평균 이용 비용은 770,54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2021)의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나타난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5천 원,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 9천 원으로, 이에 비하면 본 조사의 월평균 중고등학생 사교육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¹⁸⁾. 이는 서울의 높은 사교육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배우자 유무, 자녀 수, 월평균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이용 일수나 이용 시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에 따른 월평균 이용 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790,776.9원이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595,508.8원으로 유의미하게 적었다.

자녀가 2명인 응답자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825,585.1원, 3명 이상인 응답자는 638,703.7원이었다.

4.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 현황

주양육자를 가장 긴 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주양육자 이외에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여 부양육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자녀 가구 자녀의 숫자와 출생순위별 취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둘째 자녀의 취학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양육자를 본인, 배우자, 조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친인척, 공공기관 전문 인력,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기관 전문 인력, 민간 아이돌보미, 그리고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18) 다만,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사교육에 참여 중인 서울지역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67만 1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4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자녀를 합하여 묻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자녀 가구만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점도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표 IV-30 】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둘째 자녀 기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나	배우자	조부모	아동의 형제 자매	친인척	공공 기관 전문 인력	공공 아이 돌보미	민간 기관 전문 인력	민간 아이 돌보미	없음
전체		966	28.7	34.2	15.9	1.1	0.4	3.9	0.2	1.6	1.4	12.5
응답자 성별	여성	822	26.8	33.6	17.2	1.1	0.5	4.5	0.1	1.5	1.6	13.3
	남성	144	39.6	37.5	9.0	1.4	0.0	0.7	0.7	2.1	0.7	8.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95	22.8	40.8	20.8	0.5	0.5	6.8	0.3	1.0	2.5	4.1
	초등학생	357	30.8	31.9	14.8	0.6	0.3	2.5	0.3	2.2	1.1	15.4
	중고등학생	214	36.0	25.7	8.9	3.3	0.5	0.9	0.0	1.4	0.0	23.4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873	28.5	36.0	14.9	0.9	0.3	3.9	0.2	1.4	1.6	12.3
	배우자_무	93	30.1	17.2	25.8	3.2	1.1	4.3	0.0	3.2	0.0	15.1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492	27.4	27.6	22.4	1.6	0.4	5.5	0.2	1.2	2.4	11.2
	비맞벌이	381	29.9	46.7	5.2	0.0	0.3	1.8	0.3	1.6	0.5	13.6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873)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2%는 배우자가 부양육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이 부양육자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28.7%였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은 조부모로 전체 응답자의 15.9%로 나타났다. 한편, 부양육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2.5%였는데, 이는 사적 및 공적 돌봄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는 다자녀 가구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이 주양육자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본인이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낮았으며(여성 26.8%, 남성 39.6%), 배우자가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조부모가 부양육자라는 응답은 17.2%로 남성 응답인 9.0%보다 현저하게 많았는데, 남성이 주 또는 부양육자인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여성의 양육을 돕는 부양육자의 상당 부분이 조부모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녀의 연령(취학 상태)별로 보면, 조부모가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미취학 자녀에서



가장 많았으며(20.8%),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양육자의 돌봄이 요구되지 않아,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양육자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기준으로 유배우 가구는 자녀 관점에서는 양부모 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한부모 가구를 의미하는데, 양부모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으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많은 사람은 조부모로 그 비율이 25.8%였다. 그러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17.2%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구보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육자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양부모 가구 12.3%, 한부모 가구 15.1%).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부양육자 응답을 보면, 맞벌이 가구의 부양육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라는 응답이 각각 27.4%와 27.6%였는데 이와 매우 유사한 정도로 조부모라는 응답이 많았다(22.4%). 비맞벌이 가구에서는 배우자가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46.7%로 높게 나타났다.

부양육자 여부 및 대상과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부양육자가 있는 경우 부양육자의 일주일 평균 돌봄 지원 일수와 시간, 부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을 보면, 부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 일주일 평균 돌봄 지원 일수는 4.7일, 일주일 평균 돌봄 지원 시간은 20.2시간, 그리고 한 달 평균 지급 금액은 102,543.9원으로 나타났다¹⁹⁾.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인 경우 부양육자의 돌봄 지원 일수가 유의미하게 길었으며(여성 4.6일, 남성 5.2일) 부양육자의 돌봄 지원 시간도 남성 응답자의 경우 23.1시간으로 여성 응답자보다(19.6시간) 3.5시간 길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일주일 평균 돌봄 지원 일수와 시간은 남성이 더 길었지만, 부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은 여성이 더 많은 특징이 있었으나(여성 108,765.2원, 남성 68,939.7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19) 배우자가 부양육자인 경우가 있어, 이 비용은 배우자를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는 366,947.7원, 초등학교생인 경우는 210,770.5원,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144,062.8원이다.

【 표 IV-31 】 부돌봄자의 돌봄 지원 및 비용 소요 현황(둘째 자녀 기준)

(단위 : 명, 일, 시간, 원)

구분		빈도	일주일 평균 돌봄 일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845	4.7	20.2	102,543.9
응답자 성별	여성	713	4.6	19.6	108,765.2
	남성	132	5.2	23.1	68,939.7
	t(df)	-	-3.291**(843)	-1.326(843)	1.225(84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79	4.6	21.8	154,747.7
	초등학생	302	4.6	19.5	63,212.3
	중고등학생	164	4.8	17.9	54,329.9
	F(df)	-	.416(2)	1.314(2)	8.126***(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66	4.7	20.7	100,482.4
	배우자_무	79	4.7	15.2	122,533.3
	t(df)	-	-.160(843)	1.693(843)	-.544(843)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437	4.9	19.9	150,984.7
	비맞벌이	329	4.4	21.7	33,401.7
	t(df)	-	2.918**(764)	-.895(764)	4.707***(76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766)

【 표 IV-30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높은 학년) 부양육자의 돌봄 지원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부양육자의 일주일 평균 돌봄 지원 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적 유의미함은 나타나지 않음). 한 달 평균 지급 비용도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맞벌이하는 경우 비맞벌이에 비해 부돌봄자의 일주일 평균 돌봄 지원 일수가 더 길고, 비용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한부모 다자녀 가구로 돌봄을 혼자 수행해야 하므로, 부양육자의 지원 수요가 많은 집단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돌봄 일수와 시간, 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부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받는 시간은 더 길고 지급 비용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부양육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돌봄 지원을 하지만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부양육자인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돌봄 지원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비용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5. 성인 자녀 현황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는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지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는 대학생 자녀의 국가장학금지원 정책이 포함되며,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고액의 등록금은 양육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재학 중인 성인 자녀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적어도 다자녀 가구 구성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성인 자녀 현황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의 다자녀 가구 중 성인 자녀가 있는 가구(응답자)는 160명으로 전체의 15.9%였다(160명의 성인 자녀는 총 193명임).

【 표 IV-32 】 성인 자녀의 현재 하는 일

(단위 : 명, %)

구분		빈도	취업 (창업 포함)	취업 준비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 포함)	진학 준비	군입대	쉬고 있음	χ^2 (df)
전체		193	19.7	6.7	54.4	6.2	6.7	6.2	-
응답자 성별	여성	158	22.8	7.6	53.8	4.4	6.3	5.1	11.811* (5)
	남성	35	5.7	2.9	57.1	14.3	8.6	11.4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159	18.2	5.7	59.7	6.3	6.3	3.8	16.197** (5)
	배우자_무	34	26.5	11.8	29.4	5.9	8.8	17.6	
자녀 수	2명	95	11.6	3.2	64.2	7.4	7.4	6.3	13.625* (5)
	3명 이상	98	27.6	10.2	44.9	5.1	6.1	6.1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0	30.0	20.0	20.0	30.0	0.0	0.0	22.028* (10)
	초등학생	23	8.7	0.0	60.9	8.7	8.7	13.0	
	중고등학생	160	20.6	6.9	55.6	4.4	6.9	5.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5	28.0	24.0	24.0	0.0	8.0	16.0	39.938** (20)
	300~400 만 원 미만	13	23.1	7.7	53.8	7.7	7.7	0.0	
	400~500 만 원 미만	25	12.0	4.0	60.0	4.0	8.0	12.0	
	500~600 만 원 미만	49	32.7	2.0	46.9	8.2	8.2	2.0	
	600만 원 이상	81	11.1	4.9	66.7	7.4	4.9	4.9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95	21.1	5.3	57.9	7.4	7.4	1.1	6.730 (5)
	비맞벌이	64	14.1	6.3	62.5	4.7	4.7	7.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159)

성인 자녀의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 54.4%가 대학생(대학원생, 휴학 포함)이었으며, 취업(창업 포함) 중이라는 응답은 19.7%였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성인 자녀



가 대학생이라는 응답은 59.7%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성인 자녀가 대학생이라는 응답은 29.4%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성인 자녀가 취업 중이라는 응답은 26.5%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성인 자녀의 취업 중이라는 응답(18.2%)보다 많아,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른 차이도 있어, 자녀 수가 3명 이상이 가구에서 성인 자녀가 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27.6%로 많았고, 대학생이라는 응답은 두 자녀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자녀인 경우 성인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일 가능성이 크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성인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성인 자녀가 대학생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3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응답자의 경우 24.0%가 대학생, 600만 원 이상인 가구소득 응답자의 66.7%가 성인 자녀가 대학재학 중이라고 응답해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맞벌이 여부는 성인 자녀의 현재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6.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및 어려움

1) 양육비용 부담

응답자들은 다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사교육비라고 응답했다(66.0%). 자녀의 식료품비가 부담이라는 응답이 7.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5.2%로 뒤를 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은 66.1%, 자녀의 식료품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은 64.7%, 자녀의 식료품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7.8%였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69.4%가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식료품비가 부담이라는 응답은 10.0%로 나타나 두 자녀 응답률에 비해 높았다 (두 자녀 응답자 사교육비 64.9%, 자녀의 식료품비 6.1%).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미취학 40.0%, 중고등학생 83.5%) 중고등학생 시기 사교육 이용률이 높고, 자녀당 사교육 지출 비용도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자녀의 식료품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막내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많았다(미취학 11.8%, 중고등학생 1.7%).

조사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비용 지출도 많았는데, 그로 인해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사교육비용이 가장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비용이 부담이라는 응답은 52.9% 였으나, 6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9.1%로 나타나, 소득이 비교적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교육비용 지출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들은 식료품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33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단위 : 명, %)

구분	빈도	어린이 집/유치원 이용료	방과 후 돌봄교실 등 공공돌봄/교육기관 이용료	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돌봄비용(친인척, 지인 등에 지출하는 돌봄비용)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육아도우미 등)	자녀의 의료비	자녀의 식료품비	
전체	1,005	5.2	0.4	66.0	3.7	0.5	1.9	0.8	7.0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4	0.5	65.3	4.1	0.5	2.1	0.8	6.7
	남성	151	4.0	0.0	69.5	1.3	0.7	0.7	0.7	8.6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5.3	0.3	66.1	3.8	0.3	2.1	0.6	6.9
	배우자_무	102	3.9	1.0	64.7	2.9	2.0	0.0	2.9	7.8
자녀 수	2명	776	5.7	0.4	64.9	4.0	0.5	2.1	0.8	6.1
	3명 이상	229	3.5	0.4	69.4	2.6	0.4	1.3	0.9	10.0

구분		빈도	어린이 집/유치 원 이용료	방과 후 돌봄교 실 등 공공돌 봄/교육 기관 이용료	사교육 비(학원, 과외 등)	돌봄 비용(친 인척, 지인 등에 지출하 는 돌봄 비용)	공공 아이돌 봄서비 스 이용료	민간 아이돌 봄서비 스 이용료 (육아도 우미 등)	자녀의 의료비	자녀의 식료품 비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12.0	1.0	40.0	6.5	0.5	4.0	1.8	11.8
	초등학생	363	1.1	0.0	82.9	1.9	0.6	0.6	0.0	5.2
	중고등학생	242	0.0	0.0	83.5	1.7	0.4	0.4	0.4	1.7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4.7	0.0	52.9	0.0	0.0	0.0	2.4	10.6
	300~400 만 원 미만	130	4.6	0.0	59.2	1.5	1.5	0.8	1.5	10.8
	400~500 만 원 미만	140	7.1	0.7	66.4	2.1	0.0	0.7	2.1	5.7
	500~600 만 원 미만	191	3.7	0.5	68.6	3.1	0.5	1.0	0.0	9.9
	600만 원 이상	459	5.4)	0.4	69.1	5.7	0.4	3.3	0.2	4.4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511	5.9	0.2	66.7	6.3	0.4	2.7	1.0	5.5
	비맞벌이	392	4.6	0.5	65.3	0.5	0.3	1.3	0.0	8.7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 표 IV-34 】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자녀의 여가활동/문화활동비(핸드폰요금포함)	보험료 등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지출	자녀의 학교 등록금	자녀의 용돈	자녀 의복비(의류비)	부담되는 항목 없음	기타	χ^2 (df)
전체		1,005	2.8	1.9	2.3	0.4	1.2	4.7	1.4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2.8	2.0	2.2	0.5	0.9	4.8	1.4	10.937 (14)
	남성	151	2.6	1.3	2.6	0.0	2.6	4.0	1.3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3.1	1.9	2.3	0.2	1.0	5.0	1.1	35.316*** (14)
	배우자_무	102	0.0	2.0	2.0	2.0	2.9	2.0	3.9	
자녀 수	2명	776	3.2	2.1	2.4	0.3	1.0	5.3	1.3	16.304 (14)
	3명 이상	229	1.3	1.3	1.7	0.9	1.7	2.6	1.7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5.5	3.8	2.3	0.0	2.0	7.8	1.3	269.185*** (28)
	초등학생	363	1.1	0.8	0.6	0.0	0.6	3.0	1.7	
	중고등학생	242	0.8	0.4	5.0	1.7	0.8	2.1	1.2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4.7	5.9	3.5	2.4	4.7	5.9	2.4	113.383*** (56)
	300~400만 원 미만	130	6.2	3.8	2.3	0.8	0.8	3.1	3.1	
	400~500만 원 미만	140	2.9	2.9	2.1	0.0	1.4	4.3	1.4	
	500~600만 원 미만	191	1.6	1.6	1.0	0.5	2.6	4.7	0.5	
	600만 원 이상	459	2.0	0.4	2.6	0.0	0.0	5.0	1.1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511	2.3	1.6	2.2	0.2	0.4	3.7	1.0	41.669*** (14)
	비맞벌이	392	4.1	2.3	2.6	0.3	1.8	6.6	1.3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2) 돌봄공백의 어려움

(1) 돌봄공백 경험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돌봄공백 경험을 조사한 결과,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은 27.8%,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났다. 성별과 배우자 유무에 따른 돌봄공백 경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는 돌봄공백을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이 32.3%로 2명인 응답자(26.4%)에 비해 높았으며,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막내 자녀 미취학 '자주 있다' 32.0%, 중고등학생 '자주 있다' 23.6%).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돌봄공백을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은 28.5%,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은 47.9%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26.2%와 42.9%로 응답하여 경제활동 중인 양육자의 돌봄공백 어려움이 더 큼을 보여주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 IV-35 】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χ^2 (df)
전체		1,005	27.8	46.2	16.5	9.6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28.0	45.9	16.2	10.0	1.589 (3)
	남성	151	26.5	47.7	18.5	7.3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26.7	46.8	16.8	9.6	5.162 (3)
	배우자_무	102	37.3	40.2	13.7	8.8	
자녀 수	2명	776	26.4	45.2	17.3	11.1	12373*** (3)
	3명 이상	229	32.3	49.3	14.0	4.4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32.0	43.5	13.8	10.8	10.942* (6)
	초등학생	363	25.9	48.8	17.1	8.3	
	중고등학생	242	23.6	46.7	20.2	9.5	

구분		빈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χ^2 (df)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28.5	47.9	16.0	7.6	10.089** (3)
	하지 않음	343	26.2	42.9	17.5	13.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35.3	43.5	12.9	8.2	10.259 (12)
	300~400 만 원 미만	130	29.2	46.2	13.1	11.5	
	400~500 만 원 미만	140	32.1	43.6	15.0	9.3	
	500~600 만 원 미만	191	24.6	45.5	21.5	8.4	
	600만 원 이상	459	25.9	47.7	16.6	9.8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511	29.0	47.7	14.9	8.4	6.991 (3)
	비맞벌이	392	23.7	45.7	19.4	11.2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2) 돌봄공백 시 대응 방법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양육자들이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 가장 주된 방법은 응답자 본인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었으며(‘주로 내가 일정 변경’, 46.0%), 조부모나 친인척을 통해 돌봄공백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32.2%). 반면, 주로 배우자가 일정을 변경한다는 응답은 12.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이 일정을 변경하여 해결한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 많았는데, 여성의 48.3%, 남성의 33.6%가 주로 본인이 일정을 변경하여 돌봄공백을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11.1%는 주로 배우자가 일정을 변경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21.4%가 주로 배우자가 일정을 변경한다고 응답했다.

표 IV-36 |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시 주된 대응 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χ^2 (df)
전체		906	46.0	12.7	32.2	2.0	1.0	1.5	2.4	1.9	0.2	-
응답자 성별	여성	766	48.3	11.1	30.9	2.1	1.2	1.6	2.6	2.0	0.3	21.237*** (8)
	남성	140	33.6	21.4	39.3	1.4	0.0	1.4	1.4	1.4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814	46.3	12.9	33.0	1.4	0.6	1.6	2.0	2.0	0.2	37.734*** (8)
	배우자_무	92	43.5	10.9	25.0	7.6	4.3	1.1	6.5	1.1	0.0	
자녀 수	2명	687	47.2	11.5	34.2	1.0	1.2	2.0	0.9	1.7	0.3	55.324*** (8)
	3명 이상	219	42.5	16.4	26.0	5.0	0.5	0.0	7.3	2.3	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56	44.7	10.7	38.2	1.7	1.4	1.4	1.4	0.3	0.3	32.999*** (16)
	초등학생	331	45.9	14.2	27.8	2.4	0.9	2.4	2.1	3.9	0.3	
	중고등학생	219	48.4	13.7	29.2	1.8	0.5	0.5	4.6	1.4	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8	43.6	5.1	35.9	3.8	2.6	1.3	6.4	1.3	0.0	37.906 (32)
	300~400 만 원 미만	114	42.1	13.2	36.0	1.8	0.9	0.9	3.5	0.9	0.9	
	400~500 만 원 미만	127	49.6	21.3	22.8	2.4	0.8	0.0	1.6	1.6	0.0	
	500~600 만 원 미만	175	45.7	9.7	33.7	2.3	1.1	1.7	2.9	2.9	0.0	
	600만 원 이상	412	46.6	12.6	32.8	1.5	0.7	2.2	1.5	1.9	0.2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467	48.4	9.4	33.0	1.7	0.4	2.6	1.9	2.4	0.2	20.360** (8)
	비맞벌이	347	43.5	17.6	33.1	0.9	0.9	0.3	2.0	1.4	0.3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814)

① 주로 내가 일정 변경, ② 주로 배우자가 일정 변경, ③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④ 이웃이나 나의 친구가 돌봄, 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⑥ 민간 육아도우미 고용, ⑦ 다른 자녀(아동의 형제자매)가 돌봄, ⑧ 아동 혼자 머무름, ⑨ 기타

한편, 주로 응답자 본인이 일정을 변경한다는 응답에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본다는 응답이 33.0%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25.0%가 이에 응답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와 비교할 때 이웃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7.6%),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4.3%), 그리고 다른 자녀(아동의 형제자매)가 돌본다(6.5%)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는 두 자녀 가구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정을 조정하여 돌봄공백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성인 자녀 등 연령대가 높은 자녀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 다른 자녀(아동의 형제자매)가 돌본다는 응답이 두 자녀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다른 형제자매가 돌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막내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취학한 자녀보다 조부모나 친인척을 통해 돌봄공백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미취학 38.2%, 초등 27.8%, 중고등학생 29.2%).

3) 산후 우울증 경험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

출산과 양육은 특별하고 긍정적인 경험이지만, 출산 후 상당수의 여성 양육자들이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고,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관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서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 산후 우울증 경험

조사 결과 본인이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3%, 배우자가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0%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15.9%는 본인이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출산 당사자인 여성이 아닌 남성 응답자도 5.3%가 본인이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을 보면, 배우자가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응답이 2.1%, 남성이 배우자가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았다는 응답이 14.6%로 나타나 상호 응답의 유사성이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산후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기는 하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산후 우울증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37】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본인		배우자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해당 없음 ¹⁾
전체		1,005	85.7	14.3	90.3	4.0	5.7
응답자 성별	여성	854	84.1	15.9	93.0	2.1	4.9
	남성	151	94.7	5.3	75.5	14.6	9.9
	$\chi^2(df)$	-	11.805***(1)		60.095***(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86.7	13.3	96.2	3.5	0.2
	배우자_무	102	76.5	23.5	38.2	7.8	53.9
	$\chi^2(df)$	-	7.829***(1)		504.355***(2)		
자녀 수	2명	776	86.2	13.8	91.4	3.6	5.0
	3명 이상	229	83.8	16.2	86.9	5.2	7.9
	$\chi^2(df)$	-	.808(1)		4.078(2)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84.7	15.3	88.5	5.3	6.2
	하지 않음	343	87.5	12.5	93.9	1.5	4.7
	$\chi^2(df)$	-	1.362(1)		9.973**(2)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85.9	14.1	83.5	7.1	9.4
	300~400만 원 미만	130	79.2	20.8	89.2	3.1	7.7
	400~500만 원 미만	140	93.6	6.4	89.3	3.6	7.1
	500~600만 원 미만	191	86.9	13.1	89.5	4.7	5.8
	600만 원 이상	459	84.5	15.5	92.6	3.5	3.9
	$\chi^2(df)$	-	12.239(4)		9.679(8)		
맞벌이 여부 ²⁾	맞벌이	511	84.9	15.1	95.5	4.3	0.2
	비맞벌이	392	89.0	11.0	97.2	2.6	0.3
	$\chi^2(df)$	-	3.235(1)		2.028(2)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출산 당시 배우자가 없었음

2)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산후 우울증을 월등히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13.3%인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은 23.5%로 10.2%p의 격차가 나타났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은 16.2%, 두 자녀 응답자의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은 13.8%로 자녀 수가 적은 경우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이 다소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이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았다는 응답은 15.3%,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12.5%로 조사되었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산후 우울증 경험에서도 나타나, 맞벌이 중인 응답자가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험은 15.1%, 비맞벌이 응답자가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은 11.0%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여성이 출산 당사자라는 점에서 성별 격차를 제외하면, 산후 우울증 경험에 가장 주되게 영향을 주는 집단 특성은 배우자의 유무로 확인되고 있다.

(2) 자녀 양육 스트레스

자녀 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정도는 10점으로 측정하였다(1점 전혀 힘들지 않음, 10점 매우 힘들었음)²⁰⁾. 그 결과 전체 다자녀 양육자의 평균적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6.62점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6.69점, 남성 응답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6.22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6.83점(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6.59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6.70점(두 자녀 가구 6.59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6.63점(경제활동 안 하는 경우 6.60점), 그리고 맞벌이 중인 응답자는 6.69점(비맞벌이 6.47점)으로 각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20) 별도의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응답자들이 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기재하도록 질문하였다.

【표 IV-38】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t/F(df)
전체		1,005	6.62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6.69	2.743**(9)
	남성	151	6.2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6.59	-1.179(9)
	배우자_무	102	6.83	
자녀 수	2명	776	6.59	-.714(9)
	3명 이상	229	6.7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6.84	6.548**(9)
	영아(0~3세)	214	7.05	
	유아(4~6세)	186	6.71	
	초등학생	363	6.60	
	중고등학생	242	6.27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6.63	.237(9)
	하지 않음	343	6.60	
월평균 개인소득	300만 원 미만	512	6.58	1.228(9)
	300~400만 원 미만	170	6.86	
	400~500만 원 미만	100	6.75	
	500~600만 원 미만	96	6.52	
	600만 원 이상	127	6.4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5	6.51	1.303(9)
	300~400만 원 미만	130	6.73	
	400~500만 원 미만	140	6.53	
	500~600만 원 미만	191	6.39	
	600만 원 이상	459	6.73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511	6.69	1.711(9)
	비맞벌이	392	6.4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다자녀 가구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수보다는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6.8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등학생인 경우 6.27점으로 가장 낮았다. 양육자들의 영유아 돌봄의 어려움은 기존 연구와 유사 조사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에 영아(0~3세)와 유아(4~6세)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막내 자녀가 영아(0~3세)인 응답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7.05점, 막내 자녀가 유아인 응답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6.71점으로 영아 돌봄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양육자의 양육지원은 주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재진, 2011; 최은아, 2018). 특히 자녀 수가 많거나 자녀가 연령이 낮아 돌봄을 더 많이 요구한다면 부양육자의 양육지원은 매우 중요한 돌봄 자원이 될 것이다. 응답자 중 본인이 부양육자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둘째 자녀 기준으로 부양육자를 배우자, 조부모, 공공기관 돌봄 전문 인력, 민간기관 돌봄 전문 인력, 그리고 없으므로 구분하여,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자녀의 취학 상태와 함께 살펴 보았다²¹⁾.

전체 응답 결과를 보면 부양육자가 배우자인 응답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으며, 부양육자가 공공돌봄 기관 전문 인력일 때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자녀의 취학 상태별로 보면, 둘째 자녀가 미취학 자녀인 경우 배우자가 부양육자일 때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고 부양육자가 없을 때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중고등학생인 경우 부양육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 스트레스는 높지 않았다. ■ 표 IV-38 ■ 에서도 자녀 수보다 자녀의 연령(취학 상태)이 양육 스트레스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미취학 자녀 등 어린 자녀 돌봄에 부양육자가 없다면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각 항목에서 응답 값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예: 친척 4명)하였으며, 아동의 형제자매인 경우(11명) 사실상 '없음'으로 보고 '없음'의 응답에 포함하여 재분류하였다.

표 IV-39 | 부양육자에 따른 자녀 양육 스트레스(둘째 자녀 기준)

(단위 : 명, 점)(전체 응답 수=685)

구분	부양육자				
	배우자 (n=330)	조부모 (n=154)	공공돌봄 전문 인력 (n=40)	민간 돌봄 전문 인력 (n=29)	없음 (n=132)
전체	6.48	6.69	7.28	6.97	6.50
미취학	6.50	6.98	7.18	7.21	7.28
초등학생	6.48	6.51	7.30	6.58	6.51
중고등학생	6.40	6.00	8.50	7.33	6.25

영유아 시기는 양육자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미취학 자녀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 지원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7. 요약

IV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돌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녀의 취학 상태(미취학/초등/중고등)에 따라 돌봄의 성격과 이용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학 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미취학 자녀 돌봄 현황을 보면, 미취학 자녀를 낮에 주로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주중 기준)은 부모라는 응답이 45.6%(응답자 본인 39.3%, 배우자 6.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라는 응답이 43.0%로 나타나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0세~3세)일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51.7%(응답자 본인 43.1%, 배우자 8.6%)로 과반으로 나타났으며 유아(4~6세)의 경우는 40.7%(응답자 본인 36.2%, 배우자 4.5%)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2명보다 3명 이상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본인이 돌본다는

응답이 많았다(2명 36.3%, 3명 이상 47.9%).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돌봄 기관 이용 현황에서는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26.3%,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33.6%, 둘 다 이용한다는 응답은 21.7%, 이용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8.4%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0~3세)인 경우, 가정 내 돌봄 비율이 높아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30.3%로 높았다(유아는 8.7%).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는 일주일 평균 4.9일, 일주일 평균 29.2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비용은 118,690.3원이었다. 반면 민간기관의 경우 일주일 평균 4.5일, 일주일 평균 19.5시간, 월평균 257,764.4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일수와 시간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영아와 유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민간기관 이용 비용은 영아보다 유아가 더 컸다(영아 226,082.0원, 유아 274,212.3원).

둘째,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과 교육기관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주양육자는 응답자 본인 58.8%, 조부모 13.3% 배우자 1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다자녀 가구는 조부모 돌봄이 16.4%로 양부모 다자녀 가구(12.7%)보다 다소 높았으며, 방과후교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1.4%로 양부모 다자녀 가구(2.8%)보다 4.1배 많았다. 초등학생 자녀가 공공돌봄 및 교육기관(이하 공공기관)만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5.3%, 민간 돌봄 및 교육기관(이하 민간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51.6%,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은 35.3%,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7.9%였다. 공공기관은 일주일 평균 3.5일, 일주일 평균 7.2시간 이용하며, 월평균 108,776.2원을 지급하였다. 민간기관의 경우 일주일 평균 4.4일, 일주일 평균 8.7시간, 월평균 이용 비용은 488,598.0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봄과 교육기관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공공기관 이용률은 다소 낮아,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81.3%로 나타났다.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방과후교실(13.8%)이었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일주일 평균 2.8일, 일주일 평균 6.5시간을 이용하면, 월평균 158,490.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생 자녀와

달리 중고등학생 자녀는 민간 교육기관(사교육) 이용률이 높아 11.0%를 제외한 중고등 학생 자녀가 민간교육기관(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민간교육기관(사교육)을 이용하는 일수는 일주일 평균 4.4일, 일주일 평균 12.3시간이며, 월평균 770,5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교육기관(사교육) 이용 비용이 높다 보니,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민간교육기관(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넷째,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는 배우자, 본인, 조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데, 부모를 제외하면 조부모가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와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에 조부모가 부양육자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양육자가 있는 경우, 부양육자로부터의 돌봄 지원은 일주일 평균 4.7일, 일주일 평균 20.2시간 받았으며, 월평균 102,543.9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2.5%였는데, 이는 사적 및 공적 돌봄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는 다자녀 가구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다자녀 양육 과정의 어려움이나 부담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지출 영역에서는 사교육비(66.0%)가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 자녀 가구의 경우 두 자녀 가구보다 자녀의 식료품비가 부담이라는 응답이 많았다(세 자녀 가구 10.0%, 두 자녀 가구 6.1%).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미취학 40.0%, 중고등학생 83.5%) 반대로 막내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자녀의 식료품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다(미취학 11.8%, 중고등학생 1.7%).

여섯째, 다자녀 양육자가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74.0%였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공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공백 해결 방법은 본인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46.0%)이었으며, 조부모나 친인척을 통해 돌봄공백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32.3%).

일곱째, 다자녀 출산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3%이며, 여성의 15.9%, 남성의 5.3%가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했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은 16.2%, 두 자녀 응답자는 13.8%로 자녀 수가 적은 경우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이 다소 적었다.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산후 우울증 진단 경험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3.4%로 나타났다.²²⁾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6.62점으로(10점 중) 조사되었는데, 여성은 6.69점, 남성은 6.22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 수보다 막내 자녀의 연령대(취학 상태)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여,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영유아기에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상당히 큼을 의미한다.



22)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기혼 여성(15~49세)의 산후 우울증 진단 혹은 상담 경험”을 질문하였으며, 1,784명 중 3.4%는 ‘경험 있음’, 96.6%는 ‘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편,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실태조사」에서는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 비율”이 2021년 기준 52.6%(3,127명 중)로 나타났다.

V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일·생활균형 현황

1. 양육자의 노동시간
2.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
3. 양육자의 일 경험
4.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5.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6. 요약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일·생활균형 현황

V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시간 사용 현황과 일·생활균형 현황을 살펴 보았다. 1절에서는 양육자의 노동시간 현황을 제시하였고, 2절에서는 배우자와의 가사 노동, 돌봄노동 분담 및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양육자의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일 경험을 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이용 현황을, 5절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제시하였으며, 6절에서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일·생활균형 현황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1. 양육자의 노동시간

1) 가사노동시간

자녀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서는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노동의 총량이 많아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녀 수 외에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맞벌이 여부가 양육자의 시간 사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경제활동 시간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기준 3.6시간, 휴일 기준 3.4시간으로 나타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약 0.2시간(9분) 더 많았으나²³⁾ 평일과 휴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성별로 보면, 가사

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길어, 평일은 여성 3.8시간, 남성 2.2시간(격차 1.6시간/95분), 휴일은 여성 3.6시간, 남성 2.3시간(격차 1.3시간/85분) 이었다. 평일을 기준으로 볼 때 성별 외에도 자녀 수,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평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2명인 응답자(3.4시간)보다 약 0.6시간(37분) 길었다.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가 영아(0~3세)인 경우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5.4시간으로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평일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주말·공휴일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빈도	평균	t/F(df)	빈도	평균	t/F(df)
전체		1,005	3.6	-	1,005	3.4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3.8	7.906*** (125)	854	3.6	5.002*** (314)
	남성	151	2.2		151	2.3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3.5	-1.498 (125)	903	3.5	1.538 (314)
	배우자_무	102	3.9		102	3.0	
자녀 수	2명	776	3.4	-3.568*** (125)	776	3.4	-.149 (314)
	3명 이상	229	4.0		229	3.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3.6	.447 (2)	400	4.8	71.783*** (2)
	영아(0~3세)	214	4.0		214	5.4	
	유아(4~6세)	186	3.1		186	4.0	
	초등학생	363	3.6		363	2.9	
	중고등학생	242	3.5		242	2.1	

23) 2019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20)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주말보다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주말보다 긴 것으로 조사된 특징이 있다.

구분		평일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주말·공휴일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빈도	평균	t/F(df)	빈도	평균	t/F(df)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3.1	-9.726*** (125)	662	2.7	-10.800*** (314)
	하지 않음	343	4.5		343	4.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4.1	7.328*** (4)	85	4.3	8.245*** (4)
	300~400만 원 미만	130	4.3		130	4.6	
	400~500만 원 미만	140	3.5		140	3.2	
	500~600만 원 미만	191	3.8		191	3.5	
	600만 원 이상	459	3.2		459	3.0	
맞벌이 ¹⁾	맞벌이	511	3.0	-8.454*** (108)	511	2.9	-6.823*** (285)
	비맞벌이	392	4.2		392	4.3	
	맞벌이 여성	440	3.1	4.698*** (108)	440	3.0	2.234* (285)
	맞벌이 남성	71	2.0		71	2.2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맞벌이일 가능성도 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비맞벌이 응답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할 가능성이 큼을 고려할 때,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중인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 평일에는 1일 평균 3.1시간, 주말·공휴일에는 3.0시간 가사노동을 하여 맞벌이 중인 남성보다 길었다(맞벌이 남성은 주중 2.0시간, 주말·공휴일 2.2시간).

그러나 자녀 수가 많더라도 주말 등 공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이 두 자녀 가구보다 유의미하게 길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돌봄노동시간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들이 평균적으로 돌봄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1일 평균 4.7시간, 주말 및 공휴일 기준 1일 평균 5.2시간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휴일에 평일보다 0.5시간(28분) 더 많이 돌봄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성 응답자는 평일 평균 1일 5.0시간(남성 3.5시간, 격차 1.5시간/88분), 휴일 평균 1일 5.4시간(남성 4.1시간, 격차 1.3시간/81분) 자녀 돌봄에 시간을 사용하였다.

표 V-2 | 1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평일 1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주말·공휴일의 1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빈도	평균	t/F(df)	빈도	평균	t/F(df)
전체		1,005	4.7	-	1,005	5.2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0	5.908*** (999)	854	5.4	3.513*** (298)
	남성	151	3.5		151	4.1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4.7	-2.462* (999)	903	5.3	1.884 (298)
	배우자_무	102	5.4		102	4.4	
자녀 수	2명	776	4.6	-3.022** (999)	776	5.3	.830 (298)
	3명 이상	229	5.2		229	5.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4.8	1.619 (2)	400	7.6	142.398*** (2)
	영아(0~3세)	214	5.0		214	8.4	
	유아(4~6세)	186	4.5		186	6.6	
	초등학생	363	4.9		363	4.5	
	중고등학생	242	4.5	242	2.4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4.7	-1.145 (999)	662	4.8	-4.047*** (298)
	하지 않음	343	4.9		343	6.0	

구분		평일 1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주말·공휴일의 1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빈도	평균	t/F(df)	빈도	평균	t/F(df)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5.5	2.706* (4)	85	5.6	.747 (4)
	300~400만 원 미만	130	5.1		130	5.6	
	400~500만 원 미만	140	4.7		140	4.8	
	500~600만 원 미만	191	4.7		191	5.3	
	600만 원 이상	459	4.5		459	5.1	
맞벌이 ¹⁾	맞벌이	511	4.5	-1.481 (897)	511	5.1	-1.433 (270)
	비맞벌이	392	4.8		392	5.5	
	맞벌이 여성	440	4.8	5.019*** (897)	440	5.3	2.265* (270)
	맞벌이 남성	71	3.2		71	4.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배우자가 없는 양육자는 홀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평균 돌봄노동시간이 길었는데, 특히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평균 돌봄노동시간이 돌봄노동시간은 5.4시간,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4.7시간으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돌봄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0.7시간(44분) 길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주말에는 돌봄노동시간이 감소하여 휴일 1일 평균 4.4시간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휴일에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여 휴일 1일 평균 5.3시간을 돌봄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돌봄노동시간은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주말에는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주말 돌봄노동시간은 7.6시간이었는데 이를 영아(0~3세)와 유아(4~6세)로 구분해보면, 영아(0~3세)의 주말 돌봄노동시간이 8.4시간으로 길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와 중고등학교 자녀 경우 휴일 돌봄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이는 돌봄이 많이 요구되는 미취학 자녀가 평일에는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만, 주말에는 주양육자가 주로 돌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돌봄이 적게 요구되는 초등학교 자녀와 중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휴일



다른 가족구성원의 돌봄 부담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평일 돌봄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휴일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돌봄노동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차이는 평일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돌봄노동시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맞벌이 중인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평일에는 1일 평균 4.8시간, 주말·공휴일에는 5.3시간 돌봄노동을 하여 각각 3.2시간과 4.0시간인 남성의 돌봄노동시간보다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노동시간

지난 1개월간, 취업 중인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5.9%(662명)이다. 이들의 평균 취업노동시간은 1일 평균 7.5시간으로(응답자 개인의 일자리 특징은 III장 참조), 시간단위별로 보면, 1일 평균 8~9시간 미만 노동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4시간~8시간 미만 노동한다는 응답이 24.2%, 9시간~12시간 미만 노동한다는 응답이 23.9%로 뒤를 이었다. 4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는 9.5%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7.7시간),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7.5시간)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취업노동시간이 약간 길었으나(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4시간, 세 자녀 이상 응답자 7.4시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고용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평균 취업노동시간이 가장 긴 고용 형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하루 평균 8.6시간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2시간, 정규직 임금근로자(상용직)의 경우 8.1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 표 V-3 】 지난 1개월 기준 1일 평균 취업노동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빈도	4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평균	t/F(df)
전체		662	9.5	24.2	37.9	23.9	4.5	7.5	-
응답자 성별	여성	527	11.6	28.1	38.1	19.7	2.5	7.1	-8.394*** (15)
	남성	135	1.5	8.9	37.0	40.0	12.6	9.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84	9.9	24.0	38.2	23.5	4.5	7.4	-1.074 (15)
	배우자_무	78	6.4	25.6	35.9	26.9	5.1	7.7	
자녀 수	2명	510	9.6	22.5	40.0	23.3	4.5	7.5	.519 (15)
	3명 이상	152	9.2	29.6	30.9	25.7	4.6	7.4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233	10.7	27.0	33.5	24.0	4.7	7.4	.701 (15)
	초등학생	247	7.7	22.7	40.5	24.7	4.5	7.6	
	중고등학생	182	10.4	22.5	40.1	22.5	4.4	7.4	
월평균 개인 소득	300만 원 미만	298	15.8	35.9	29.9	15.4	3.0	6.6	20.611*** (15)
	300~400만 원 미만	140	5.0	19.3	45.7	26.4	3.6	7.8	
	400~500만 원 미만	66	3.0	13.6	39.4	30.3	13.6	8.7	
	500~600만 원 미만	70	4.3	14.3	42.9	32.9	5.7	8.1	
	600만 원 이상	88	4.5	8.0	47.7	36.4	3.4	8.4	



구분		빈도	4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평균	t/F(df)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	12.8	31.9	31.9	19.1	4.3	7.0	2.316 (15)
	300~400만 원 미만	63	11.1	33.3	31.7	19.0	4.8	6.9	
	400~500만 원 미만	72	15.3	25.0	29.2	25.0	5.6	7.2	
	500~600만 원 미만	122	10.7	28.7	31.1	22.1	7.4	7.4	
	600만 원 이상	358	7.3	19.8	43.9	25.7	3.4	7.7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386	2.3	15.0	51.0	28.0	3.6	8.1	23.783*** (15)
	상용-비정규직	72	4.2	34.7	36.1	20.8	4.2	7.4	
	임시직	28	32.1	57.1	3.6	3.6	3.6	5.3	
	일용직	19	42.1	47.4	0.0	10.5	0.0	4.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0.0	36.4	22.7	22.7	18.2	8.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9	6.9	17.2	27.6	37.9	10.3	8.2	
	무급가족종사자	14	21.4	35.7	21.4	7.1	14.3	6.5	
	기타 종사자	92	31.5	37.0	12.0	16.3	3.3	5.7	
맞벌이 ¹⁾	맞벌이	482	8.7	25.1	40.5	22.2	3.5	7.4	-.099 (15)
	비맞벌이	102	15.7	18.6	27.5	29.4	8.8	7.4	
	맞벌이 여성	414	10.1	27.5	39.9	20.3	2.2	7.2	-5.728*** (15)
	맞벌이 남성	68	0.0	10.3	44.1	33.8	11.8	8.9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584)

맞벌이 중인 응답자를 성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맞벌이 여성과 맞벌이 남성의 취업노동시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은 1일 평균 7.2시간을, 맞벌이 남성은 1일 평균 8.9시간을 취업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 살펴본 취업노동시간(유급노동시간)과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무급노동시간)을

모두 합하여 '총 노동시간'으로 정의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총 노동시간을 분석하면 **표 V-4**와 같다. 먼저 맞벌이 응답자 전체의 총 노동시간은 14.9시간으로 취업노동은 7.4시간, 가사노동은 3.0시간, 돌봄노동은 4.5시간을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취업노동시간은 1.7시간 짧지만, 가사노동시간은 1.1시간, 돌봄노동시간은 1.6시간 더 길어 총 노동시간은 15.1시간으로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의 노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맞벌이하는 응답자의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평일 기준)

(단위: 시간)

구분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총 노동시간
전체	7.4	3.0	4.5	14.9
맞벌이 여성	7.2	3.1	4.8	15.1
맞벌이 남성	8.9	2.0	3.2	14.1



2.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

1)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 및 만족도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을 요리 및 식사 준비, 설거지, 세탁, 장보기, 집안 청소,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 관리로 세분하여 분담방식을 조사하였다. '주로 내가 한다'라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요리 및 식사 준비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주로 한다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별로 이를 구분해보면, 여성의 50.1%, 남성의 9.1%가 '주로 내가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은 여성의 6.6%, 남성의 10.6%였다. 자녀 수에 따른 분담방식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비맞벌이의 경우 '주로 내가 한다'라는 응답이 50.0%로 맞벌이인 경우보다 많았다.

설거지의 경우에도 여성 응답자의 43.2%, 남성 응답자의 13.6%가 주로 응답자 본인

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맞벌이인 경우, ‘주로 내가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맞벌이 34.8%, 비맞벌이 44.1%). 설거지는 자녀 수에 따른 응답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응답자가 주로 본인이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두 자녀 37.9%, 세 자녀 이상 42.4%),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은 두 자녀가 9.4%, 세 자녀 이상이 4.5%로 나타나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적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형태의 가사노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V-5 】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방식(유배우 응답자)

(단위 : 명, %)

구분		빈도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χ^2 (df)	
요리 및 식사 준비	전체	903	44.1	32.4	9.4	5.1	7.2	1.8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50.1	35.8	4.0	1.7	6.6	1.8	346.906*** (5)
		남성	132	9.1	12.9	40.9	25.0	10.6	1.5	
	자녀 수	2명	705	44.1	31.9	9.4	5.0	7.4	2.3	5.032 (5)
		3명 이상	198	43.9	34.3	9.6	5.6	6.6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39.5	33.1	8.6	5.7	10.6	2.5	29.769*** (5)
		비맞벌이	392	50.0	31.6	10.5	4.3	2.8	0.8	
	설거지	전체	903	38.9	31.8	10.4	9.3	8.3	1.3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43.2	33.9	6.9	7.0	7.5	1.6	131.666*** (5)
		남성	132	13.6	19.7	31.1	22.7	12.9	0.0	
자녀 수		2명	705	37.9	32.3	10.1	8.7	9.4	1.7	10.64* (5)
		3명 이상	198	42.4	29.8	11.6	11.6	4.5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34.8	29.7	12.1	10.0	11.5	1.8	26.949*** (5)
		비맞벌이	392	44.1	34.4	8.2	8.4	4.1	0.8	

구분		빈도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χ^2 (df)	
세탁	전체	903	48.1	26.9	9.2	7.5	7.4	0.9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54.2	29.3	4.2	4.4	7.1	0.8	268.166*** (5)
		남성	132	12.1	12.9	38.6	25.8	9.1	1.5	
	자녀 수	2명	705	47.4	27.2	9.4	7.2	7.8	1.0	1.963 (5)
		3명 이상	198	50.5	25.8	8.6	8.6	6.1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42.7	26.8	11.0	7.4	11.0	1.2	32.137*** (5)	
	비맞벌이	392	55.1	27.0	6.9	7.7	2.8	0.5		
시장 보기 , 쇼핑	전 체	903	43.4	30.8	8.0	4.8	12.6	0.4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48.4	33.1	3.5	2.6	11.9	0.5	225.95*** (5)
		남성	132	14.4	17.4	34.1	17.4	16.7	0.0	
	자녀 수	2명	705	43.4	30.8	7.9	4.4	13.0	0.4	1.384 (5)
		3명 이상	198	43.4	30.8	8.1	6.1	11.1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40.3	30.3	7.4	5.3	16.2	0.4	16.056*** (5)	
	비맞벌이	392	47.4	31.4	8.7	4.1	7.9	0.5		
집안 청소	전 체	903	36.7	34.0	10.9	7.4	9.5	1.6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40.7	37.0	6.2	5.3	9.2	1.6	173.508*** (5)
		남성	132	12.9	16.7	37.9	19.7	11.4	1.5	
	자녀 수	2명	705	35.5	34.2	11.1	7.0	10.4	2.0	8.633(5)
		3명 이상	198	40.9	33.3	10.1	9.1	6.6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31.7	32.1	11.7	9.0	13.5	2.0	34.787*** (5)	
	비맞벌이	392	43.1	36.5	9.7	5.4	4.3	1.0		



구분		빈도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χ^2 (df)	
집안 대소사 관련 가사노동	전 체	903	36.7	33.9	10.6	4.5	13.3	1.0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40.3	36.4	6.9	2.9	12.5	1.0	135.658*** (5)
		남성	132	15.2	18.9	32.6	14.4	18.2	0.8	
	자녀 수	2명	705	35.9	34.6	10.2	4.0	14.2	1.1	6.39(5)
		3명 이상	198	39.4	31.3	12.1	6.6	10.1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37.2	29.2	10.0	4.9	17.8	1.0	26.74*** (5)
비맞벌이		392	36.0	40.1	11.5	4.1	7.4	1.0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사노동은 집안 대소사 관련 가사노동과 장보기(각각 13.3%, 12.6%)였는데, 이 항목에서도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응답률이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응답률보다 낮았다. 이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가족 내 돌봄이나 가사노동이 분담되는 것이 아닌, 주양육자가 더 많은 돌봄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연구와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강혜진, 2009; 정은희·최유석, 2013).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중 2.39점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응답자는 2.29점으로 남성(2.93점)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으나, 자녀 수가 적고, 막내 자녀 연령이 많은 경우 분담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응답자가 맞벌이하는 경우보다 비맞벌이인 경우 가사노동 분담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가사노동 분담이 더 요구되거나 가사노동 분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표 V-6 】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유배우 응답자)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t/F
전체		903	17.4	34.1	41.1	7.4	2.39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19.3	38.1	36.6	6.0	2.29	28.159*** (3)
	남성	132	6.1	10.6	67.4	15.9	2.93	
자녀 수	2명	705	16.2	34.3	42.3	7.2	2.41	1.342 (3)
	3명 이상	198	21.7	33.3	36.9	8.1	2.31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17.4	35.1	37.9	9.5	2.40	1.216(3)
	초등학생	325	17.2	31.4	45.2	6.2	2.40	
	중고등학생	211	17.5	36.5	40.3	5.7	2.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19.2	35.8	37.2	7.8	2.34	2.612* (3)
	비맞벌이	392	15.1	31.9	46.2	6.9	2.45	

* $p < .05$, ** $p < .01$, *** $p < .001$

2)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 및 만족도

돌봄노동의 영역은 다양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일상적 돌봄(씻기기, 대화하기, 재우기 등), 병원 동행 및 간호, 학습관리 및 지원, 함께 놀아주기, 등하원·등하교, 학교·돌봄 기관 행사 참여 및 방문 등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응답자가 어떻게 배우자와 돌봄을 분담하는지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돌봄노동 분담방식의 차이는 자녀 수 자체보다는 양육자의 성별,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든 돌봄노동 영역에서 여성 응답자들은 본인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상적 돌봄의 41.2%, 병원 동행 및 간호의 41.2%, 학습관리 및 지원의 58.8%, 등하원·등하교의 50.2%, 그리고 학교·돌봄 기관 행사 참여 및 방문의 59.1%를 여성 응답자 본인이 주로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함께 놀아주기의 경우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전체의 37.2%), 여성 응답자의 경우 40.2%가 이에 응답했다. 함께 놀아주기는 돌봄노동 중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17.2%).



표 V-7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방식(유배우 응답자)

(단위 : 명, %)

구분		빈도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χ^2 (df)	
일반적인 배부	전체	903	36.5	38.2	10.1	4.2	9.6	1.3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41.2	43.5	3.1	1.8	9.5	0.9	402.643*** (5)
		남성	132	9.1	7.6	50.8	18.2	10.6	3.8	
	자녀 수	2명	705	35.5	38.7	9.9	4.1	10.2	1.6	3.809 (5)
		3명 이상	198	40.4	36.4	10.6	4.5	7.6	0.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29.7	41.7	9.0	4.1	14.7	0.8	32.965*** (10)
		초등학생	325	40.9	35.4	9.5	5.2	7.4	1.5	
		중·고등학생	211	41.7	36.5	12.8	2.8	4.3	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32.3	39.1	9.0	3.5	14.5	1.6	37.965*** (5)
		비맞벌이	392	42.1	37.0	11.5	5.1	3.3	1.0	
포괄적 돌봄기간 이후	전체	903	36.2	36.7	11.2	6.6	9.0	0.3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41.2	39.8	6.0	4.5	8.0	0.4	220.463*** (5)
		남성	132	6.8	18.2	41.7	18.9	14.4	0.0	
	자녀 수	2명	705	36.0	37.4	10.4	6.2	9.6	0.3	5.211(5)
		3명 이상	198	36.9	33.8	14.1	8.1	6.6	0.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34.3	36.0	10.1	6.0	13.1	0.5	20.307** (10)
		초등학생	325	33.8	40.3	11.7	7.1	6.8	0.3	
		중·고등학생	211	43.1	32.2	12.3	7.1	5.2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34.4	34.4	10.4	8.6	11.7	0.4	20.34*** (5)
		비맞벌이	392	38.5	39.5	12.2	4.1	5.4	0.3	

구분		빈도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χ^2 (df)	
학습관리 및 지원	전체	903	51.1	26.7	8.7	6.2	6.1	1.2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58.8	28.9	3.6	1.7	6.0	1.0	403.974*** (5)
		남성	132	6.1	13.6	38.6	32.6	6.8	2.3	
	자녀 수	2명	705	51.2	26.8	8.7	6.2	5.7	1.4	2.051 (5)
		3명 이상	198	50.5	26.3	9.1	6.1	7.6	0.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49.9	25.1	7.9	6.0	9.8	1.4	37.531*** (10)
		초등학생	325	46.2	32.6	8.3	8.6	3.7	0.6	
		중·고등학생	211	60.7	20.4	10.9	2.8	3.3	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48.7	26.6	8.2	6.1	9.2	1.2	20.333*** (5)	
	비맞벌이	392	54.1	26.8	9.4	6.4	2.0	1.3		
함께 놀아 주기	전체	903	22.0	37.2	15.0	6.4	17.2	2.2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24.1	40.2	11.9	5.6	16.3	1.8	67.036*** (5)
		남성	132	9.8	19.7	32.6	11.4	22.0	4.5	
	자녀 수	2명	705	21.1	37.4	15.2	6.1	17.7	2.4	3.033 (5)
		3명 이상	198	25.3	36.4	14.1	7.6	15.2	1.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20.7	35.4	13.9	6.5	22.9	0.5	51.736*** (10)
		초등학생	325	18.5	40.0	16.0	8.9	15.1	1.5	
		중·고등학생	211	29.9	36.0	15.2	2.4	10.4	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19.0	34.1	16.8	7.4	20.2	2.5	19.519*** (5)	
	비맞벌이	392	26.0	41.3	12.5	5.1	13.3	1.8		
등하원 / 등하교	전체	903	43.9	19.5	8.4	7.8	7.3	13.2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50.2	21.4	4.2	5.1	6.9	12.3	225.938*** (5)
		남성	132	6.8	8.3	33.3	23.5	9.8	18.2	
	자녀 수	2명	705	43.5	19.0	7.8	7.9	7.5	14.2	4.713 (5)
		3명 이상	198	44.9	21.2	10.6	7.1	6.6	9.6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41.4	20.7	7.4	10.1	10.6	9.8	28.749*** (1)
		초등학생	325	46.8	19.4	7.7	7.4	5.5	13.2	
		중·고등학생	211	43.6	17.5	11.4	4.3	4.3	19.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37.0	18.4	9.0	7.4	10.6	17.6	48.678*** (5)	
	비맞벌이	392	52.8	20.9	7.7	8.2	3.1	7.4		



구분		빈도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χ^2 (df)	
학교 돌봄기 관 행사 참여 및 방문	전체	903	51.7	23.5	6.4	6.0	7.4	5.0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59.1	26.2	2.1	1.8	6.0	4.8	396.462*** (5)
		남성	132	8.3	7.6	31.8	30.3	15.9	6.1	
	자녀 수	2명	705	52.6	23.1	5.8	5.1	7.8	5.5	9.21 (5)
		3명 이상	198	48.5	24.7	8.6	9.1	6.1	3.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50.1	23.4	5.4	6.3	8.7	6.0	10.097 (10)
		초등학생	325	52.6	23.7	6.8	6.5	7.7	2.8	
		중·고등학생	211	53.1	23.2	7.6	4.7	4.7	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48.1	24.1	5.9	5.1	10.2	6.7	23.855*** (5)
		비맞벌이	392	56.4	22.7	7.1	7.1	3.8	2.8	

* $p < .05$, ** $p < .01$, *** $p < .001$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는 2.45점으로(4점 기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여성 2.36점, 남성 2.98점).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어린 경우에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V-8 】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유배우 응답자)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t/F(df)
전체		903	16.2	30.8	45.2	7.9	2.45	-
응답자 성별	여성	771	18.4	33.9	41.4	6.4	2.36	23.157*** (3)
	남성	132	3.0	12.9	67.4	16.7	2.98	
자녀 수	2명	705	15.3	30.2	46.8	7.7	2.47	1.275 (3)
	3명 이상	198	19.2	32.8	39.4	8.6	2.37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67	17.2	29.7	42.8	10.4	2.46	1.882 (3)
	초등학생	325	15.7	31.1	46.8	6.5	2.44	
	중고등학생	211	15.2	32.2	46.9	5.7	2.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16.4	33.5	42.7	7.4	2.41	1.575 (3)
	비맞벌이	392	15.8	27.3	48.5	8.4	2.49	

* $p < .05$, ** $p < .01$, *** $p < .001$



3. 양육자의 일 경험

1)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다자녀 양육자가 취업노동을 하는 경우(1,005명 중 662명), 일과 가족 및 개인 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가끔 경험+자주 경험)은 ‘일 때문에 가족 및 개인 활동(모임 참여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54.6%의 응답자가 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가사, 양육,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52.2%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로 인해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고, 가사나 돌봄으로 인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은 일-생활의 부정적 전이 경험으로 일·생활균형 어려움의 일반적 특징이다.

【표 V-9】 일과 개인 생활 및 자녀 돌봄 병행의 어려움(전체 응답)

(단위 : 명, %)(n=662)

구분	전혀 경험한 적 없음	경험한 적 있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비해당	경험함 (가끔+자주)
1) 일 때문에 가족 및 개인 활동(모임 참여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11.6	28.1	30.4	24.2	5.7	54.6
2) 가사, 양육,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	11.9	27.8	31.7	20.5	8.0	52.2
3)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으로 아이를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맡겨야 하는 어려움	25.5	19.0	19.2	15.4	20.8	34.6
4) 휴일 근무로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	34.7	16.0	15.4	8.6	25.2	24.0
5) (자녀 돌봄 관련)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	25.2	21.8	23.3	14.8	15.0	38.1
6)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20.2	29.5	24.0	14.2	12.1	38.2

이를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일로 인해 개인 및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여성 53.7%, 남성 57.8%로 남성에게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사나 돌봄으로 인해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 52.9%, 남성 49.7%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휴일 근무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의 어려움, 어린이집 및 학교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감 등은 모두 여성이 더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일과 자녀 돌봄 병행의 어려움(응답자 성별)

(단위 : %)(여성 n=527, 남성 n=135)

구분	전혀 경험한 적 없음		경험한 적 있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비해당		경험함 (가끔+자주)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 일 때문에 가족 및 개인 활동(모임 참여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11.4	12.6	29.2	23.7	30.2	31.1	23.5	26.7	5.7	5.9	53.7	57.8
2) 가사, 양육,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	10.1	19.3	29.6	20.7	31.1	34.1	21.8	15.6	7.4	10.4	52.9	49.7
3)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으로 아이를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맡겨야 하는 어려움	23.9	31.9	19.7	16.3	19.9	16.3	16.1	12.6	20.3	23.0	36.0	28.9
4) 휴일 근무로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	33.6	39.3	16.9	12.6	15.6	14.8	8.5	8.9	25.4	24.4	24.1	23.7
5) (자녀 돌봄 관련)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	23.7	31.1	22.8	17.8	23.0	24.4	15.6	11.9	15.0	14.8	38.6	36.3
6)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17.8	29.6	31.9	20.0	23.9	24.4	14.6	12.6	11.8	13.3	38.5	37.0



자녀가 2명인 응답자가 일로 인해 가족 및 개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5.1%, 가사나 돌봄으로 인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53.2%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보다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 휴일 근무, 긴급상황 시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부모참여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두 자녀보다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 표 V-11 】 일과 자녀 돌봄 병행의 어려움(자녀 수)

(단위 : %)(2명 n=510, 3명 이상 n=152)

구분	전혀 경험한 적 없음		경험한 적 있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비해당		경험함 (가끔+자주)	
	2명	3명 이상	2명	3명 이상	2명	3명 이상	2명	3명 이상	2명	3명 이상	2명	3명 이상
1) 일 때문에 가족 및 개인 활동(모임 참여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10.6	15.1	28.6	26.3	31.6	26.3	23.5	26.3	5.7	5.9	55.1	52.6
2) 가사, 양육,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	12.2	11.2	26.3	32.9	32.2	30.3	21.0	19.1	8.4	6.6	53.2	49.4
3)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으로 아이를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맡겨야 하는 어려움	26.3	23.0	18.4	21.1	18.8	20.4	14.9	17.1	21.6	18.4	33.7	37.5
4) 휴일 근무로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	35.3	32.9	15.1	19.1	15.3	15.8	8.2	9.9	26.1	22.4	23.5	25.7
5) (자녀 돌봄 관련)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	25.5	24.3	22.5	19.1	22.0	27.6	13.7	18.4	16.3	10.5	35.7	46.0
6)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20.6	19.1	28.8	31.6	24.3	23.0	13.3	17.1	12.9	9.2	37.6	40.1

2)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이직 및 고용 단절 경험

현재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662명)의 43.1%는 첫째 자녀 양육 이후 지금도 처음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직 횟수 0회). 출산/입양 등 첫째 자녀 양육 이후, 1회 이직했다는 응답은 26.3%, 2회 이직했다는 응답은 16.5%였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은 0회라는 응답이 45.9%, 여성은 42.3%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12】 첫 번째 자녀 양육 이후 직장 이직 횟수

(단위 : 명, %)

구분		빈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χ^2 (df)
전체		662	43.1	26.3	16.5	6.8	7.4	-
응답자 성별	여성	527	42.3	26.6	16.9	6.8	7.4	0.688 (4)
	남성	135	45.9	25.2	14.8	6.7	7.4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584	44.7	26.4	16.1	6.5	6.3	11.751** (4)
	배우자_무	78	30.8	25.6	19.2	9.0	15.4	
자녀 수	2명	510	46.9	24.3	16.3	6.5	6.1	16.429*** (4)
	3명 이상	152	30.3	32.9	17.1	7.9	11.8	
월평균 개인 소득	300만 원 미만	298	28.9	29.9	19.5	9.1	12.8	63.249*** (16)
	300-400만 원 미만	140	51.4	24.3	18.6	3.6	2.1	
	400-500만 원 미만	66	59.1	16.7	13.6	6.1	4.5	
	500-600만 원 미만	70	54.3	28.6	10.0	4.3	2.9	
	600만 원 이상	88	56.8	22.7	10.2	6.8	3.4	

* $p < .05$, ** $p < .01$, *** $p < .00$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첫 자녀 출산 이후 이직 횟수가 상이했는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0회라는 응답이 44.7%인 것과 달리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0.8%만이 0회라고 응답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4회 이상 이직했다는 응답이 15.4%(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6.3%)로 상당히 높아, 배우자가 없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자녀 수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두 자녀 가구 응답자의 46.9%가 0회,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의 30.3%가 0회라고 응답했다. 이직 횟수가 증가할수록 두 자녀 가구 응답자의 응답률보다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자녀가 많은 양육자의 이직 횟수가 유의미하게 큰 결과를 보여준다.

월평균 개인소득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월평균 300만 원 미만) 0회라는 응답이 가장 낮았으며(28.9%) 4회 이상 이직했다는 응답률이 12.8%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343명의 70.3%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어 현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수가 적긴 하나,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45.8%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72.1%)보다 적었으며, 건강상의 문제와 자녀 외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해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각각 20.8%, 16.7%).

표 V-13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 (df)
전체		343	5.5	70.3	8.5	6.4	2.3	4.1	2.9	-
응답자 성별	여성	327	5.8	70.9	8.6	6.1	2.1	4.3	2.1	18.687*** (6)
	남성	16	0.0	56.3	6.3	12.5	6.3	0.0	18.8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319	5.3	72.1	7.8	5.3	2.5	4.4	2.5	17.232*** (6)
	배우자_무	24	8.3	45.8	16.7	20.8	0.0	0.0	8.3	
자녀 수	2명	266	5.3	70.7	8.3	5.6	1.9	4.9	3.4	5.164 (6)
	3명 이상	77	6.5	68.8	9.1	9.1	3.9	1.3	1.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67	4.2	79.0	7.2	3.0	0.6	3.6	2.4	37.602*** (12)
	초등학생	116	6.0	71.6	8.6	6.0	2.6	1.7	3.4	
	중고등학생	60	8.3	43.3	11.7	16.7	6.7	10.0	3.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	5.3	60.5	7.9	13.2	0.0	5.3	7.9	33.504* (24)
	300~400만 원 미만	67	1.5	77.6	7.5	7.5	1.5	1.5	3.0	
	400~500만 원 미만	68	1.5	72.1	7.4	4.4	7.4	2.9	4.4	
	500~600만 원 미만	69	8.7	72.5	11.6	2.9	1.4	2.9	0.0	
	600만 원 이상	101	8.9	66.3	7.9	6.9	1.0	6.9	2.0	

* $p < .05$, ** $p < .01$, *** $p < .001$

① 원래부터 하지 않았음(한 번도 한 적이 없음),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하게 되면서 그만둠, ③ 자녀 외 다른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그만둠, ④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둠, ⑤ 회사 사정(경영악화)으로 그만둠, ⑥ 힘들어서(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업무량, 적성에 맞지 않음 등) 그만둠, ⑦ 이직/창업 준비 중

자녀 수보다는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가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막내 자녀가 어린 경우(미취학)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79.0%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생애 한 번도 취업 활동을 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19명을 제외한 986명의 다자녀 양육자에게 임신, 출산, 자녀 돌봄, 입양 등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6%는 임신 시기에, 38.0%는 출산 이후, 그리고 35.0%는 영유아 시기 자녀 돌봄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을 보면 시기별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41.0%, 42.3%, 38.3%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출산과 영유아 자녀 돌봄 시기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다소 많아, 양부모 다자녀 가구 양육자보다 일과 돌봄 병행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편,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가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 돌봄 시기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각각 45.1%, 46.4%, 41.1%로 두 자녀 응답자보다 많았다.

【 표 V-14 】 직장을 그만둔 경험(‘있음’ 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 돌봄
전체		986 ²⁾	36.6	38.0	35.0
응답자 성별	여성	835	41.0	42.3	38.3
	남성	151	12.6	14.6	16.6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886	36.9	37.1	34.5
	배우자_무	100	34.0	46.0	39.0
자녀 수	2명	762	34.1	35.6	33.2
	3명 이상	224	45.1	46.4	41.1

주: 1)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응답자 제외



4.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다자녀 양육자들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자녀 돌봄과 관련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휴가·휴직,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제도는 출산휴가로 전체 응답자의 40.8%가 이용한 적 있었으며, 육아휴직은 28.8%, 가족돌봄휴가는 11.9%, 유연근무제는 9.7%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5%였다.

【표 V-15】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 여부: '있음' 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출산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²⁾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전 체 ¹⁾		986	40.8	28.8	10.5	8.0	9.7	11.9
응답자 성별	여성	835	43.0	31.7	10.5	9.1	9.9	12.5
	남성	151	28.5	12.6	-	2.0	8.6	8.6
	$\chi^2(df)$	-	-	22.877*** ⁽¹⁾	-	8.783** ⁽¹⁾	0.258 ⁽¹⁾	1.808 ⁽¹⁾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888	41.3	29.2	11.1	8.4	10.0	12.8
	배우자_무	100	36.0	25.0	4.9	5.0	7.0	4.0
	$\chi^2(df)$	-	1.049 ⁽¹⁾	0.785 ⁽¹⁾	2.984 ⁽¹⁾	1.370 ⁽¹⁾	0.948 ⁽¹⁾	6.584** ⁽¹⁾
자녀 수	2명	764	43.2	30.1	10.4	8.0	9.8	12.9
	3명 이상	224	32.6	24.6	10.9	8.0	9.4	8.5
	$\chi^2(df)$	-	8.034** ⁽¹⁾	2.553 ⁽¹⁾	0.042 ⁽¹⁾	0.000 ⁽¹⁾	0.043 ⁽¹⁾	3.174 ⁽¹⁾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93	49.1	39.4	18.2	11.2	13.7	14.2
	초등학생	356	38.5	28.1	5.0	7.6	10.1	12.9
	중고등학생	239	30.4	12.2	6.0	3.4	2.5	6.3
	$\chi^2(df)$	-	23.685*** ⁽²⁾	53.492*** ⁽²⁾	35.024*** ⁽²⁾	12.407*** ⁽²⁾	21.225*** ⁽²⁾	9.461** ⁽²⁾



구분	빈도	출산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²⁾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월 평균 개인 소득	300만 원 미만	503	31.9	22.9	9.7	7.2	7.0	8.4
	300~400 만 원 미만	170	53.5	37.1	13.0	9.4	12.9	17.1
	400~500 만 원 미만	99	48.5	35.4	16.7	11.1	11.1	18.2
	500~600 만 원 미만	92	48.9	34.8	6.6	5.4	13.0	13.0
	600만 원 이상	124	47.2	31.7	8.3	8.9	13.0	13.0
	χ^2 (df)	-	34.961***(4)	18.338***(4)	5.590(4)	3.197(4)	9.207(4)	14.313**(4)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3	18.1	12.0	9.7	7.2	3.6	1.2
	300~400 만 원 미만	129	30.2	19.4	8.6	3.1	5.4	4.7
	400~500 만 원 미만	139	24.5	13.7	6.9	6.5	5.8	3.6
	500~600 만 원 미만	186	37.8	29.2	7.3	4.9	7.6	11.4
	600만 원 이상	451	54.2	39.1	13.7	11.3	14.2	18.7
	χ^2 (df)	-	73.331***(4)	55.802***(4)	7.819(4)	13.958**(4)	20.067***(4)	44.47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52.4	39.1	15.0	12.1	15.5	19.6
	비맞벌이	477	26.1	15.7	5.7	3.2	2.7	3.5
	χ^2 (df)	-	61.764***(1)	57.274***(1)	15.897***(1)	22.548***(1)	39.174***(1)	50.400***(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생애 과정에서 한 번도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19명을 제외한 응답자 수

2) 여성만 응답

여성 응답자의 43.0%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성 응답자의 28.5%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의 31.7%, 남성의 12.6%가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여성 9.1%, 남성

2.0%로 사용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관련 제도사용 경험이 더 적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제활동 조건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좋아 제도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이나 무급이 포함된 휴가제도 사용 시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녀 수의 경우 세 자녀 이상 응답자보다 두 자녀 응답자의 관련 제도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경제활동 조건이 두 자녀 응답자보다 나쁘기 때문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두 자녀 응답자의 취업자 비율은 65.7%,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취업자 비율은 66.4%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의 이직 횟수가 두 자녀 가구 응답자보다 현저히 많다는 것(▶표 V-14▶참조)은 다자녀 출산 양육자들이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한편, 자녀 돌봄 관련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이용 경험 응답자의 만족도를 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는 가족돌봄휴가로 나타났다(8.37점)(1점 매우 불만족, 10점 매우 만족). 유연근무제 만족도는 7.69점, 육아휴직 만족도는 7.61점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7.13점)였다.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응답자의 만족도가 여성 응답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 활동이 어려운 조직 문화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 개선이 요구된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취학 상태) 낮을수록 제도 이용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과거 사용 경험보다 최근 사용한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제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기간 및 급여 지원 확대 등으로 개선되고 있어, 최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각 제도 이용의 만족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표 V-16 】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의 만족

(단위 : 명, 점)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빈도	만족도	빈도	만족도	빈도	만족도	빈도	만족도	빈도	만족도	빈도	만족도	
전체	402	7.18	284	7.61	88	7.13	79	7.37	96	7.69	117	8.37	
응답자 성별	여성	359	7.40	265	7.66	88	7.13	76	7.50	83	7.77	104	8.39
	남성	43	5.40	19	6.84	-	-	3	4.00	13	7.15	13	8.23
	f(df)	4.546*** ⁽⁹⁾		1.386 ⁽⁹⁾		-		2.322* ⁽⁹⁾		.753 ⁽⁹⁾		.252 ⁽⁹⁾	
배우자 유무	배우자유	366	7.30	259	7.75	84	7.19	74	7.54	89	7.76	113	8.36
	배우자무	36	5.97	25	6.16	4	5.75	5	4.80	7	6.71	4	8.50
	f(df)	2.745** ⁽⁹⁾		3.079** ⁽⁹⁾		1.012 ⁽⁹⁾		2.316* ⁽⁹⁾		.975 ⁽⁹⁾		-.130 ⁽⁹⁾	
자녀 수	2명	329	7.24	229	7.66	67	7.13	61	7.25	75	7.72	98	8.40
	3명 이상	73	6.92	55	7.42	21	7.10	18	7.78	21	7.57	19	8.21
	f(df)	.892 ⁽⁹⁾		.630 ⁽⁹⁾		.056 ⁽⁹⁾		-.751 ⁽⁹⁾		.218 ⁽⁹⁾		.360 ⁽⁹⁾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93	7.57	155	7.94	61	7.49	44	7.71	54	7.72	56	8.66
	초등학생	137	7.04	100	7.37	15	6.80	27	7.07	36	7.92	46	8.37
	중고등학생	72	6.42	29	6.66	12	5.67	8	6.50	6	6.00	15	7.27
	F(df)	4.842** ⁽⁹⁾		4.024* ⁽⁹⁾		2.351 ⁽⁹⁾		.962 ⁽⁹⁾		1.273 ⁽⁹⁾		2.764 ⁽⁹⁾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여성만 응답



5.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가족(배우자 및 자녀)관계, 가족과의 활동, 개인 시간 사용,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자녀들과의 관계로 만족도는 3.15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2.31점)과 '일과 생활의 균형'(2.80점)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시간빈곤을 예상할 수 있다.

표 V-17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일과 생활의 균형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 관계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	전반적인 내 자신의 삶
전체		1,005	2.80	2.94	3.15	2.82	2.31	2.56
응답자 성별	여성	854	2.63	2.83	3.14	2.82	2.31	2.56
	남성	151	2.66	3.07	3.19	2.84	2.32	2.60
	t(df)	-	1.510(4)	-2.794**(4)	-.822(3)	-.312(3)	-.083(3)	-.544(3)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2.82	2.88	3.16	2.84	2.32	2.58
	배우자_무	102	2.61	-	3.06	2.71	2.27	2.43
	t(df)	-	2.238*(4)	-	1.524(3)	1.716(3)	.464(3)	1.770(3)
자녀수	2명	776	2.81	2.94	3.16	2.85	2.33	2.57
	3명 이상	229	2.75	2.94	3.10	2.73	2.26	2.54
	t(df)	-	.891(4)	-.121(4)	1.304(3)	2.123*(3)	.998(3)	.582(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2.82	2.94	3.26	2.88	2.22	2.55
	초등학생	363	2.77	2.91	3.07	2.80	2.26	2.54
	중고등학생	242	2.81	2.98	3.09	2.76	2.55	2.64
	F(df)	-	.366(4)	.454(4)	10.840*** (3)	2.360(3)	11.934*** (3)	.836(3)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2.65	2.94	3.12	2.77	2.25	2.56
	하지 않음	343	3.09	2.94	3.20	2.93	2.44	2.58
	t(df)	-	-7.558*** (4)	-.040(4)	-1.883(3)	-3.228** (3)	-3.369** (3)	-.456(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71	3.22	3.05	2.65	2.26	2.33
	300~400만 원 미만	130	2.85	2.91	3.22	2.70	2.15	2.44
	400~500만 원 미만	140	2.65	2.81	3.11	2.69	2.29	2.49
	500~600만 원 미만	191	2.84	2.97	3.16	2.86	2.42	2.65
	600만 원 이상	459	2.83	2.92	3.15	2.92	2.33	2.63
	F(df)	-	1.501(4)	3.470** (4)	1.174(3)	5.285*** (3)	1.969(3)	4.400** (3)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511	2.67	2.84	3.12	2.80	2.25	2.57
	비맞벌이	392	3.02	2.93	3.20	2.89	2.40	2.59
	t(df)	-	-5.975*** (4)	-1.794(4)	-1.919(3)	-1.933(3)	-2.631** (3)	-.420(3)

* p<.05, ** p<.01, *** p<.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로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다(여성 2.83점, 남성 3.07점).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보다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었다(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82점,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2.61점). 일반적으로 한부모 양육자는 경제활동과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빈곤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는 점(노혜진, 2019)에서 자녀가 많고 배우자가 없는 양육자의 일과 생활균형의 어려움이 자녀가 적고 배우자가 있는 양육자보다 크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응답 결과에서 두 자녀 응답자와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차이가 확인되는 항목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로 두 자녀 응답자의 만족도가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두 자녀 2.85점, 세 자녀 이상 2.73점).

막내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자녀들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나,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중인 양육자의 경우, 일과 생활균형의 만족도는 2.65점,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 만족도는 2.77점, 나 자신을 위한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2.25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모두 낮았다. 이는 경제활동 중인 양육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여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요약

V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시간 사용 현황과 일·생활균형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발전해 왔으나, 제도 미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조직 문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하며,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 노동자의 일·생활균형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다자녀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양육자의 시간 사용 현황을 가사노동, 돌봄노동, 취업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일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다자녀 양육자의 가사노동은 3.6시간(휴일 3.4시간), 돌봄노동은 4.7시간(휴일 5.2시간), 취업노동은 7.5시간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더 길게 하였으며, 취업노동은 남성 응답자가 여성보다 더 길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취업노동을 모두 합해 총 노동시간을 구하면, 다자녀 맞벌이 가구 양육자의 총 노동시간은 14.9시간이다. 성별로 보면, 맞벌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15.1시간으로 남성(14.1시간)보다 하루 평균 1시간의 노동을 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자녀가 많을수록 더 길었으나, 취업노동시간은 자녀 수에 무관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와의 가사와 돌봄노동 분담 현황을 조사 결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모두 여성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가사와 돌봄노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양육자가 분담해 줄 것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자녀가 수가 증가할수록 ‘공평하게 한다’라는 응답은 감소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연구와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강혜진, 2009; 정은희·최유석, 2013).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가족 내 돌봄이나 가사노동이 분담되는 것이 아닌, 주양육자가 더 많은 돌봄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셋째, 양육자가 취업노동을 하는 경우, 일과 가족 및 개인 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조사한 결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일 때문에 가족 및 개인 활동(모임 참여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었다(54.6%). ‘가사, 양육,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52.2%로 뒤를 이었다. 자녀 수에 따른 분석에서는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 휴일 근무, 긴급상황 시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부모참여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두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다자녀 양육자의 돌봄으로 인한 고용 단절 및 이직 경험을 조사하였다. 일과 돌봄의 병행은 양육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여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이중부담은 고용 단절의 주요 원인이다. 조사 결과,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41.0%는 임신 시기에, 42.3%는 출산 이후, 그리고 38.3%는 영유아시기에 자녀 돌봄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가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 돌봄 시기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각각 45.1%, 46.4%, 41.1%로 두 자녀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직 경험을 보면, 현재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662명)의 43.1%는 지금도 처음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자녀 양육 이후, 한 번 이직했다는 응답은 26.3%, 두 번 이직했다는 응답은 16.5%였다. 자녀 양육 이후로 첫 번째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두 자녀 가구 응답자의 46.9%,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의 30.3%로 나타나, 자녀가 많은 양육자의 이직 횟수가 유의미하게 큰 결과를 보여준다.

다섯째,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들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자녀 돌봄 관련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제도는 출산휴가로 전체 응답자의 40.8%가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은 28.8%, 가족돌봄휴가는 11.9%, 유연근무제는 9.7%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43.0%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성 응답자의 28.5%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의 31.7%, 남성의 12.6%가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여성 9.1%, 남성 2.0%로 성별에 따라 사용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 수의 경우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보다 두 자녀 응답자의 관련 제도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가족(배우자 및 자녀)관계, 가족과의 활동, 개인 시간 사용,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자녀들과의 관계(3.15점)였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2.31점)과 '일과 생활의 균형'(2.80점)이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보다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었다(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82점,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2.61점). 일반적으로 한부모 양육자는 경제활동과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빈곤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노혜진, 2019)이기에, 한부모 다자녀 가구 여성 양육자의 일·생활균형의 어려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1.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2. 다자녀 양육자의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3.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4. 요약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VI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양육자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자녀와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고, 2절에서는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인식 정도를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역 이동 경험 및 계획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가족, 사회와 양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1.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1) 자녀에 대한 인식

기존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양육자는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무자녀 부부나 한 자녀 가구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정책과 제도의 영향뿐 아니라,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혜경, 2011; 염주희 외, 2013; 최옥채, 2019). 이는 다자녀 가구나 양육자의 특성에서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주요 변수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된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집안의 대를

VI

있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로 1.97점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로 3.20점으로 나타났다.

【 표 VI-1 】 자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	1,005	3.20	3.02	2.96	2.21	1.97	
응답자 성별	여성	854	3.19	3.00	2.93	2.20	1.92
	남성	151	3.26	3.17	3.13	2.27	2.26
	<i>t</i>	-	-1.390(3)	-2.599**(3)	-3.190***(3)	-1.133(3)	-4.557(3)
자녀수	2명	776	3.21	3.03	2.96	2.20	1.94
	3명 이상	229	3.15	2.99	2.96	2.24	2.08
	<i>t</i>	-	1.212(3)	.770(3)	.021(3)	-.641(3)	-2.173*(3)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3.22	3.04	2.97	2.20	1.98
	하지 않음	343	3.17	3.00	2.94	2.23	1.96
	<i>t</i>	-	1.132(3)	.747(3)	.572(3)	-.771(3)	.428(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3.18	2.85	3.06	2.34	1.98
	300-400만 원 미만	130	3.09	2.92	2.85	2.21	1.95
	400-500만 원 미만	140	3.19	3.03	2.93	2.14	1.91
	500-600만 원 미만	191	3.27	3.17	3.10	2.36	2.12
	600만 원 이상	459	3.20	3.02	2.92	2.14	1.94
	F(df)	-	1.475(3)	3.912**(3)	1.871(3)	3.956*(3)	1.788(3)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여성 3.00점, 남성 3.17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여성 2.93점,

남성 3.13점), 그리고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여성 1.92점, 남성 2.26점)였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아, 삶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도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은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로 두 자녀 응답자는 1.94점, 세 자녀 이상 응답자는 2.08점이었다.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아들인 비율이 높았던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표 III-4 참조).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인식과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 준다는 항목에 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600만 원 미만 집단의 평균 점수가 3.17로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응답 집단에서는 2.8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과 500~600만 원 미만인 응답 집단이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아 각각 2.34점, 2.3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특정한 인식의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 간 부양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자녀의 부모부양과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부모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2.47점,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가 2.37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1.96점이었다.



표 VI-2 가족 간 부양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전체	1,005	1.96	2.14	2.37	2.47	2.20	
응답자 성별	여성	854	1.92	2.11	2.36	2.44	2.19
	남성	151	2.15	2.32	2.46	2.60	2.29
	<i>t</i> (df)	-	-3.743*** ⁽³⁾	-3.238*** ⁽³⁾	-1.545 ⁽³⁾	-2.688** ⁽³⁾	.131 ⁽³⁾
자녀 수	2명	776	1.94	2.10	2.36	2.46	2.19
	3명 이상	229	2.01	2.27	2.42	2.47	2.24
	<i>t</i> (df)	-	-1.305 ⁽³⁾	-3.084** ⁽³⁾	-.981 ⁽³⁾	-.150 ⁽³⁾	-.801 ⁽³⁾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1.94	2.12	2.35	2.43	2.19
	하지 않음	343	1.98	2.17	2.42	2.54	2.22
	<i>t</i> (df)	-	-.881 ⁽³⁾	-.946 ⁽³⁾	-1.552 ⁽³⁾	-2.376* ⁽³⁾	-.635 ⁽³⁾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05	2.24	2.42	2.51	2.27
	300~400 만 원 미만	130	2.05	2.18	2.32	2.34	2.24
	400~500 만 원 미만	140	1.94	2.21	2.39	2.44	2.17
	500~600 만 원 미만	191	2.08	2.15	2.40	2.43	2.23
	600만 원 이상	459	1.86	2.08	2.36	2.52	2.18
	<i>F</i> (df)	-	4.487*** ⁽³⁾	1.410 ⁽³⁾	0.367 ⁽³⁾	2.025 ⁽³⁾	.503 ⁽³⁾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별 응답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은 자녀의 부모 부양(모시고 살기, 여성 1.92점, 남성 2.15점 /경제적 부양, 여성 2.11점, 남성 2.32점)과 부모의 자녀 결혼 비용 지원(여성 2.44점, 남성 2.60점)이었다.

자녀 수에 따른 인식 차이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서 두드러졌는데, 두 자녀 응답자(2.10점)보다 세 자녀 이상 응답자(2.27점)가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 부모의 자녀 결혼 비용지원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2.43점)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2.54점)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에게서 모든 항목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보다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2. 다자녀 양육자의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1) 다자녀 가구를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저출산이 인구정책의 주요 기조였고, 이에 따른 소자녀 정책으로 다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여겨졌다(배은경, 2010; 조은주, 2018). 현재는 초저출생으로 인해 다자녀 출산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오랜 가족계획의 유산은 다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잔존한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들이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를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5%는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의 37.1%, 남성 응답자의 33.1%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부정적 (매우 부정적 + 부정적)	χ^2 (df)
전체		1,005	3.3	33.2	57.0	6.5	36.5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2.9	34.2	57.3	5.6	37.1	10.132* (3)
	남성	151	5.3	27.8	55.6	11.3	33.1	
자녀 수	2명	776	2.6	32.2	58.5	6.7	34.8	7.847* (3)
	3명 이상	229	5.7	36.7	52.0	5.7	42.4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5.8	36.3	50.5	7.5	42.1	23.995** (6)
	초등학생	363	1.9	33.6	59.8	4.7	35.5	
	중고등학생	242	1.2	27.7	63.6	7.4	28.9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3.2	32.8	57.9	6.2	36.0	.660 (3)
	하지 않음	343	3.5	34.1	55.4	7.0	37.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3.5	30.6	57.6	8.2	34.1	9.478 (12)
	300~400만 원 미만	130	3.8	35.4	56.2	4.6	39.2	
	400~500만 원 미만	140	3.6	34.3	59.3	2.9	37.9	
	500~600만 원 미만	191	3.1	27.7	62.3	6.8	30.8	
	600만 원 이상	459	3.1	35.1	54.2	7.6	38.2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34.8%, 3명 이상인 응답자의 42.4%가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저학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중고생학생인 응답자

의 경우 28.9%만이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는데,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42.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된 배경으로는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이 취학 이후 경험하는 양육자들의 어려움과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근 확산된 노키즈 존과 같이 영유아에 비친화적 사회 환경은 아동 당사자뿐 아니라, 양육자, 다자녀 가구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우리 사회와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인식할수록 다자녀 가구일 가능성은 크다(서정연·김한곤, 2015).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점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임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응답자 거주지역의 안전 및 편리성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8%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거주권역별 응답을 보면, 동남권 응답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아 60.8%가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도심과 서북권 응답자는 45.8%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 응답자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여성 48.9%, 남성 68.2%).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가 2명인 응답자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두 자녀 51.5%, 세 자녀 이상 52.8%),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동의 응답은 53.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동의 응답은 48.4%였으나 자녀 수와 경제활동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막내 자녀 취학 상태에 따라서는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우리 사회가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49.8%, 초등학생인 경우 51.0%, 중고등학생인 경우 56.7%가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집단에서(600만 원 이상) 동의 정도가 높았다.



【 표 VI-4 】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사회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안전하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전체		1,005	48.2	51.8	50.8	49.2	33.3	66.7
거주권역	도심+서북권	155	54.2	45.8	57.4	42.6	40.6	59.4
	동북권	300	49.7	50.3	48.0	52.0	32.0	68.0
	서남권	300	51.0	49.0	54.3	45.7	35.0	65.0
	동남권	250	39.2	60.8	46.0	54.0	28.4	71.6
	$\chi^2(df)$	-	18.930*(9)		18.851*(9)		14.714(9)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1.1	48.9	53.2	46.8	34.3	65.7
	남성	151	31.8	68.2	37.7	62.3	27.8	72.2
	$\chi^2(df)$	-	32.463*** (3)		23.243*** (3)		40.176*** (3)	
자녀 수	2명	776	48.5	51.5	50.6	49.4	33.2	66.8
	3명 이상	229	47.2	52.8	51.5	48.5	33.6	66.4
	$\chi^2(df)$	-	.963(3)		2.158(3)		4.529(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50.2	49.8	53.8	46.3	36.3	63.8
	초등학생	363	49.1	51.0	50.7	49.3	34.2	65.8
	중고등학생	242	43.4	56.7	46.3	53.7	27.3	72.7
	$\chi^2(df)$	-	12.883*(6)		8.589(6)		9.733(6)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46.4	53.6	50.6	49.4	33.1	66.9
	하지 않음	343	51.6	48.4	51.3	48.7	33.8	66.2
	$\chi^2(df)$	-	4.055(3)		1.362(3)		2.577(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5	56.5	43.5	54.1	45.9	34.1	65.9
	300~400만 원 미만	130	66.2	33.8	60.0	40.0	49.2	50.8
	400~500만 원 미만	140	52.1	47.9	50.7	49.3	35.0	65.0
	500~600만 원 미만	191	42.9	57.1	49.7	50.3	29.3	70.7
	600만 원 이상	459	42.5	57.5	48.1	51.9	29.8	70.2
	$\chi^2(df)$	-	39.356*** (12)		16.870(12)		23.798*(12)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관련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서는(‘우리 사회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안전하다’) 전체 응답자의 49.2%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동의한다’라는 응답) 나타났다. 거주권역이 동남권인 응답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54.0%), 도심권과 서북권 응답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49.2%). 여성의 경우 46.8%, 남성은 62.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안전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거주권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동남권 응답자의 71.6%, 도심권과 서북권 응답자의 59.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의 72.2%, 여성의 65.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자녀 수, 막내 자녀 취학 상태,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월평균 가구소득 500~600만 원)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70.7%).

3) 지역 사회(동네)의 안전에 대한 인식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 밤길 안전), 사고로부터의 안전(교통사고, 시설물 붕괴 사고 등), 먹을거리 안전, 보행 안전(보행 편의)을 질문하였다. 먼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영역은 먹을거리 안전으로 전체 응답 결과 2.74점(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안전성에 대한 동의점수가 낮은 항목은 교통사고와 보행 안전(보행 편의)으로 나타났다(각각 2.38점, 2.39점).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밤길 안전, 그리고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동의점수는 응답자의 거주권역, 성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었다. 동남권 응답자가 모든 항목에서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도심권과 서북권 응답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VI-5 】 지역 사회(우리 동네) 안전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의 범죄위험에서 안전하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	교통사고 등 사고에서 안전하다	건축물 및 시설물이 안전하다 (붕괴사고 위험 등)	먹거리가 안전하다	공공기관, 길거리가 아동 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전체		1,005	2.55	2.56	2.38	2.56	2.74	2.39
거주 구역	도심+서북권	155	2.45	2.43	2.25	2.45	2.68	2.34
	동북권	300	2.51	2.55	2.40	2.57	2.71	2.40
	서남권	300	2.51	2.53	2.35	2.54	2.72	2.37
	동남권	250	2.69	2.68	2.48	2.64	2.82	2.45
	F(df)	-	3.525*(3)	3.396*(3)	3.111*(3)	2.028(3)	1.583(3)	.848(3)
응답자 성별	여성	854	2.49	2.51	2.36	2.52	2.71	2.38
	남성	151	2.85	2.82	2.50	2.76	2.88	2.48
	t(df)	-	-5.032*** (3)	-4.379*** (3)	-2.044* (3)	-3.646*** (3)	-2.803** (3)	-1.548 (3)
자녀수	2명	776	2.56	2.58	2.39	2.58	2.76	2.41
	3명 이상	229	2.51	2.48	2.35	2.50	2.67	2.35
	t(df)	-	.805 (3)	1.727 (3)	.765 (3)	1.391 (3)	1.632 (3)	1.062 (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2.47	2.51	2.35	2.53	2.68	2.31
	초등학생	363	2.53	2.53	2.35	2.54	2.76	2.42
	중고등학생	242	2.69	2.67	2.47	2.63	2.81	2.49
	F(df)	-	5.214** (2)	3.366* (2)	2.089 (2)	.895 (2)	2.906 (2)	4.514* (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49	2.48	2.33	2.49	2.67	2.31
	300~400만 원 미만	130	2.32	2.26	2.27	2.39	2.61	2.21
	400~500만 원 미만	140	2.54	2.46	2.31	2.54	2.69	2.36
	500~600만 원 미만	191	2.58	2.63	2.37	2.58	2.75	2.44
	600만 원 이상	459	2.61	2.66	2.44	2.61	2.79	2.46
	F(df)	-	3.334** (4)	4.667*** (4)	1.788 (4)	2.493* (4)	2.314 (4)	3.072* (4)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모든 항목에 대해 점수가 높아,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우려가 여성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수에 따른 응답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막내 자녀 취학 상태에 따른 응답 차이가 있었다. 사고보다는 범죄 안전 및 밤길 안전에 대한 차이가 있어,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안전성에 대한 동의 점수가 낮았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길거리가 이동 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높아 보행 안전(보행 편의)에 대한 동의점수가 미취학 자녀 양육자에게서 가장 낮게(2.31점)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범죄, 밤길 이동, 시설물 붕괴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공공기관이나 길거리의 보행이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유자녀 가구 중 다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II장 참조). 이에 양육자들이 서울시의 양육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의 기준이나 개선 지점은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은 45.9%(동의함+매우 동의함, 4점 중 2.38점)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54.1%, 동의하지 않음+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조금 더 많았다.

거주권역, 자녀 수, 막내 자녀 취학 상태, 경제활동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응답을 보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0%, 동의한다는 응답이 47.0%인 반면, 남성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9%, 동의한다는 응답은 39.1%로 나타나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상당한 것(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와 거주지역의 안전이나 편리함에 대한 평가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표 VI-6 】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t/F(df)
전체		1,005	12.0	42.1	42.2	3.7	2.38	-
거주 구역	도심+서북권	155	11.0	41.3	43.2	4.5	2.41	1.901 (3)
	동북권	300	13.7	40.3	43.7	2.3	2.35	
	서남권	300	12.7	46.3	37.7	3.3	2.32	
	동남권	250	10.0	39.6	45.2	5.2	2.46	
응답자 성별	여성	854	10.8	42.2	43.6	3.4	2.40	2.345* (3)
	남성	151	19.2	41.7	34.5	4.6	2.2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11.7	41.0	43.3	4.0	2.40	2.581** (3)
	배우자_무	102	14.7	52.0	32.4	1.0	2.20	
자녀 수	2명	776	12.5	40.2	43.0	4.3	2.39	1.208 (3)
	3명 이상	229	10.5	48.5	39.3	1.7	2.32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13.3	40.0	40.8	6.0	2.40	2.858 (3)
	초등학생	363	13.2	44.9	39.9	1.9	2.31	
	중고등학생	242	8.3	41.3	47.9	2.5	2.4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10.6	44.7	42.4	2.4	2.36	.611 (3)
	300-400만 원 미만	130	14.6	44.6	38.5	2.3	2.28	
	400-500만 원 미만	140	10.7	44.3	42.1	2.9	2.37	
	500-600만 원 미만	191	9.9	42.9	45.0	2.1	2.39	
	600만 원 이상	459	12.9	39.9	42.0	5.2	2.40	

* $p < .05$, ** $p < .01$, *** $p < .001$

【 표 VI-7 】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많은 보육 인프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의 높은 질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	다양한 교육 시설(사교육 포함)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
전체		461	33.6	5.0	24.3	14.3	8.9
거주 권역	도심+서북권	74	40.5	2.7	17.6	10.8	10.8
	동북권	138	31.2	6.5	23.2	14.5	8.7
	서남권	123	35.8	4.9	26.8	13.8	8.1
	동남권	126	30.2	4.8	27.0	16.7	8.7
응답자 성별	여성	402	32.1	5.5	24.4	15.4	9.2
	남성	59	44.1	1.7	23.7	6.8	6.8
자녀 수	2명	367	33.5	4.4	23.4	15.8	9.8
	3명 이상	94	34.0	7.4	27.7	8.5	5.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87	41.2	8.6	17.1	11.8	7.0
	초등학생	152	27.6	3.3	26.3	18.4	11.8
	중고등학생	122	29.5	1.6	32.8	13.1	8.2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	39.5	5.3	23.7	10.5	2.6
	300~400만 원 미만	53	32.1	7.5	22.6	13.2	11.3
	400~500만 원 미만	63	33.3	6.3	17.5	14.3	14.3
	500~600만 원 미만	90	36.7	3.3	31.1	8.9	8.9
	600만 원 이상	217	31.8	4.6	24.0	17.5	7.8

* $p < .05$, ** $p < .01$, *** $p < .001$



【 표 VI-8 】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는 이유(1순위)(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공원, 산, 한강 등 자연환경	편리한/좋은 주거환경	다양한 편의시설	좋은 치안	$\chi^2(df)$
전체		461	0.9	6.9	5.9	0.2	-
거주 권역	도심+서북권	74	2.7	9.5	5.4	0.0	16,369 (24)
	동북권	138	0.7	8.7	5.8	0.7	
	서남권	123	0.8	4.9	4.9	0.0	
	동남권	126	0.0	5.6	7.1	0.0	
응답자 성별	여성	402	0.5	7.2	5.5	0.2	12.935 (8)
	남성	59	3.4	5.1	8.5	0.0	
자녀 수	2명	367	1.1	7.1	4.6	0.3	12.405 (8)
	3명 이상	94	0.0	6.4	10.6	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87	1.1	8.0	4.8	0.5	31.896** (16)
	초등학생	152	0.0	6.6	5.9	0.0	
	중고등학생	122	1.6	5.7	7.4	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	0.0	7.9	10.5	0.0	31.258 (32)
	300~400만 원 미만	53	0.0	5.7	7.5	0.0	
	400~500만 원 미만	63	0.0	9.5	4.8	0.0	
	500~600만 원 미만	90	3.3	3.3	3.3	1.1	
	600만 원 이상	217	0.5	7.8	6.0	0.0	

* $p < .05$, ** $p < .01$, *** $p < .001$

서울시 양육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1순위 응답)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많은 보육 인프라'(33.6%),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24.3%), '다양한 교육 시설

(사교육 포함)'(14.3%),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8.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권역별로 보면 도심권과 서북권에서 '많은 보육 인프라'가 서울시 양육환경이 좋은 이유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동남권은 다른 권역보다 '다양한 교육 시설(사교육 포함)'이 좋은 양육환경이라는 응답이 높았다(16.7%).

여성과 남성 모두 '많은 보육 인프라'가 서울시가 양육하기 좋은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44.1%로 여성(32.1%)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에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세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을 보면, 남성은 '다양한 편의시설'(8.5%), 여성은 '다양한 교육 시설(사교육 포함)'(15.4%)로 응답했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는 '많은 보육 인프라'(33.5%),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23.4%), '다양한 교육 시설(사교육 포함)'(15.8%) 순으로 서울시 양육환경이 좋은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는 '많은 보육 인프라'(34.0%),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27.7%), '다양한 편의 시설'(10.6%) 순으로 응답했다.

막내 자녀 학년이 낮은 응답자가 '많은 보육 인프라'(41.2%)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32.8%)를 1위로 응답하여,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취학 상태가 양육환경 평가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순위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 응답자가 '다양한 교육 시설(사교육 포함)'(17.5%)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소득 집단보다 높았다.



【 표 VI-9 】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보육 인프라 부족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음	교육 인프라 부족	높은 교육비용 (사교육 포함)	공원, 산, 강 등 자연환경 부족	높은 주거비용	높은 생활비 (공공요금, 생필품 비용 등)	
전체	544	10.8	3.5	3.1	46.0	1.3	27.6	3.1	
거주 권역	도심+서북권	81	7.4	2.5	6.2	48.1	0.0	25.9	6.2
	동북권	162	6.2	1.9	3.1	48.8	1.9	31.5	3.1
	서남권	177	13.0	4.5	3.4	40.7	1.7	29.4	2.3
	동남권	124	16.1	4.8	0.8	48.4	0.8	21.0	2.4
응답자 성별	여성	452	10.8	3.8	3.3	44.2	1.5	28.1	2.9
	남성	92	10.9	2.2	2.2	54.3	0.0	25.0	4.3
자녀 수	2명	409	11.2	3.2	3.7	44.5	1.5	28.1	2.7
	3명 이상	135	9.6	4.4	1.5	50.4	0.7	25.9	4.4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213	16.0	3.8	2.8	30.5	2.3	32.4	5.2
	초등학생	211	8.1	3.3	3.8	51.2	0.9	26.1	2.4
	중고등학생	120	6.7	3.3	2.5	64.2	0.0	21.7	0.8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	4.3	4.3	4.3	44.7	0.0	29.8	4.3
	300~400만 원 미만	77	11.7	0.0	3.9	41.6	0.0	35.1	3.9
	400~500만 원 미만	77	7.8	3.9	5.2	36.4	1.3	33.8	9.1
	500~600만 원 미만	101	9.9	2.0	1.0	55.4	3.0	25.7	0.0
	600만 원 이상	242	13.2	5.0	2.9	46.7	1.2	23.6	2.1

* $p < .05$, ** $p < .01$, *** $p < .001$

【 표 VI-10 】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1순위)(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돌봄 지원 서비스의 부족	범죄, 사고, 교통 등의 위험한 거주환경	미세먼지, 수질 등 환경오염	나쁜 주거환경	일·생활 균형 환경 미흡	기타	$\chi^2(df)$
전체		544	1.3	0.7	0.6	0.4	1.3	0.4	-
거주 권역	도심+서북권	81	1.2	2.5	0.0	0.0	0.0	0.0	45.517 (36)
	동북권	162	1.2	0.6	0.6	0.0	1.2	0.0	
	서남권	177	0.0	0.6	0.6	1.1	1.7	1.1	
	동남권	124	3.2	0.0	0.8	0.0	1.6	0.0	
응답자 성별	여성	452	1.3	0.9	0.7	0.4	1.5	0.4	8.487 (12)
	남성	92	1.1	0.0	0.0	0.0	0.0	0.0	
자녀 수	2명	409	1.2	0.7	0.7	0.5	1.7	0.2	9.311 (12)
	3명 이상	135	1.5	0.7	0.0	0.0	0.0	0.7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213	2.3	0.5	0.5	0.5	2.8	0.5	56.345 *** (24)
	초등학생	211	0.9	1.4	0.5	0.5	0.5	0.5	
	중고등학생	120	0.0	0.0	0.8	0.0	0.0	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	0.0	2.1	2.1	2.1	2.1	0.0	67.758* (48)
	300~400 만 원 미만	77	0.0	1.3	0.0	0.0	0.0	2.6	
	400~500 만 원 미만	77	0.0	1.3	0.0	0.0	1.3	0.0	
	500~600 만 원 미만	101	1.0	0.0	0.0	0.0	2.0	0.0	
	600만 원 이상	242	2.5	0.4	0.8	0.4	1.2	0.0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46.0%)과 '높은 주거비용'(27.6%), 그리고 '보육 인프라 부족'(10.8%) 순으로 응답했다.

거주권역별로 보면, 서남권과 동남권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보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서남권 13.0%, 동남권 16.1%). '높은 주거비용'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권역은 동북권과 서남권이었으며, 도심권과 서북권은 '높은 생활비'라는 응답이 타 권역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6.2%).

여성 응답자보다 남성 응답자가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이라고 더 많이 응답했으며(여성 44.2%, 남성 54.3%), 여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보다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여성 28.1%, 남성 25.0%).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보다 3명 이상인 경우,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이라는 응답이 많았고(2명 44.5%, 3명 이상 50.4%), 2명인 응답자는 높은 주거비용이라는 응답이 3명 이상인 응답자보다 조금 많았다(2명 28.1%, 3명 이상 25.9%).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막내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보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라 서울시 양육환경이 달리 체감되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막내 자녀의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응답은 '높은 주거비용'과 '높은 생활비'였는데,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높은 주거비용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서울시 양육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주거비용: 미취학 32.4%, 초등 26.1%, 중고등 21.7%/높은 생활비: 미취학 5.2%, 초등 2.4%, 중고등 0.8%). 응답 수가 적어 비교가 어렵기는 하나,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일·생활균형 환경 미흡'이라는 응답도 다른 취학 상태의 자녀를 둔 응답자보다 많았다(미취학 2.8%).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면, 비교적 고소득 가구의 응답자들이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 '보육 인프라의 부족',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음', '돌봄 지원 서비스의 부족' 등에 다른 소득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2) 육아·교육 목적의 이동 경험과 계획

(1) 이동 경험

자녀 출산이나 양육,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역을 이동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3.0%였으며, 이동 유형은 서울시 내의 타 자치구로 이동(48.5%)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동한 경우가 38.5%, 동일 자치구 내의 다른 동으로 이동한 경우가 16.9%였다.

동남권 응답자의 28.8%가 자녀 출산, 양육, 교육을 목적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다른 권역 응답자보다 많았다. 서남권 응답 결과를 보면 타 권역과 달리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동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자녀 수에 따른 응답 결과, 자녀가 2명인 응답자는 23.6%, 3명 이상인 응답자는 21.0%가 이동 경험이 있었으며, 두 집단 모두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현 자치구로 이동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두 자녀 47.0%, 세 명 이상 54.2%).

【표 VI-11】 출산, 양육, 교육 목적의 지역 이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이동 경험			이동 유형(중복응답)					
	빈도	있다	χ^2 (df)	빈도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동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현 자치구로 이동	동일 자치구 내 다른 동으로	기타	
전체	1,005	23.0	-	251	38.5	48.5	16.9	4.8	
거주권 역	도심+서북권	155	18.7	7.116 (3)	36	44.8	62.1	17.2	0.0
	동북권	300	21.0		68	34.9	42.9	22.2	7.9
	서남권	300	22.3		69	40.3	38.8	16.4	7.5
	동남권	250	28.8		78	37.5	56.9	12.5	1.4
자녀 수	2명	776	23.6	0.687 (1)	200	37.7	47.0	18.6	6.0
	3명 이상	229	21.0		51	41.7	54.2	10.4	0.0



구분		이동 경험			이동 유형(중복응답)				
		빈도	있다	χ^2 (df)	빈도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동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현 자치구로 이동	동일 자치구 내 다른 동으로	기타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26.1	10.858*** (1)	189	36.4	51.4	17.3	4.0
	하지 않음	343	16.9		62	44.8	39.7	15.5	6.9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2.4	12.130* (4)	19	42.1	21.1	31.6	5.3
	300~400 만 원 미만	130	15.4		21	60.0	35.0	10.0	0.0
	400~500 만 원 미만	140	15.7		23	27.3	45.5	22.7	9.1
	500~600 만 원 미만	191	26.2		57	34.0	56.0	16.0	8.0
	600만 원 이상	459	26.1		131	38.3	52.5	15.0	3.3

* $p < .05$, ** $p < .01$, *** $p < .001$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이동 경험이 많았으며(각각 26.1%, 16.9%),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이동 유형이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현 자치구로 이동한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51.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동해 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4.8%).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교적 높은 집단(500만 원 이상)에서 다른 소득 구간의 응답자보다 이동 경험이 많았다. 소득이 비교적 낮은 집단(400만 원 미만)에서는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동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응답 집단에서는 서울시 내 타 자치구에서 현 자치구로 이동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2) 이동 계획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 교육을 목적으로 향후 이동할 계획 여부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4%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응답자의 28.3%가 이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이동 의향이 가장 많았다. 이동 의향이 있는 경우, 이동 유형은 타 자치구로 이동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6.8%), 타 시도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30.9%로 많았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이동 계획은 27.8%로 3명 이상인 응답자(21.4%)보다 약간 많았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계획 중인 이동 유형을 보면, 타 자치구로 이동 45.4%, 타 시도로 이동 32.9%, 그리고 동일 자치구 내 다른 동으로 이동이 19.9%였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타 자치구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53.1%, 동일 자치구 내 다른 동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4.5%, 그리고 타 시도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2.4%로 나타나, 2명인 응답자와 이동 계획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이동 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 자녀인 응답자는 34.5%가 이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동 유형으로는 타 자치구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43.5%, 타 시도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응답자의 이동 계획이 가장 적어, 14.9%가 이동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응답자는 타 자치구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7.2%), 타 시도로 이동할 계획은 30.6%, 동일 자치구 내 다른 동으로 이동할 계획은 19.4%였다.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27.9%,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23.3%가 이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동 여부에 무관하게 모두 타 자치구로 이동할 계획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타 시도로 이동할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동일 자치구 내 다른 동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약간 많았다(각각 22.2%, 17.5%).

【 표 VI-12 】 출산, 양육,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 이동할 계획

(단위 : 명, %)

구분		이동 계획			이동 유형					
		빈도	있다	χ^2 (df)	빈도	타 시도로 이동	타 자치구로 이동	동일 자치구 내 다른 동으로	기타	χ^2 (df)
전체		1,005	26.4	-	265	30.9	46.8	20.8	1.5	-
거주 권역	도삼+서북권	155	27.1	1.104 (3)	42	35.7	50.0	14.3	0.0	17.276* (9)
	동북권	300	25.0		75	29.3	46.7	22.7	1.3	
	서남권	300	28.3		85	34.1	52.9	10.6	2.4	
	동남권	250	25.2		63	25.4	36.5	36.5	1.6	
자녀 수	2명	776	27.8	3.774 (1)	216	32.9	45.4	19.9	1.9	3.218 (3)
	3명 이상	229	21.4		49	22.4	53.1	24.5	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34.5	30.401*** (2)	138	34.8	43.5	21.7	0.0	6.916 (6)
	초등학생	363	25.1		91	25.3	51.6	19.8	3.3	
	중고등학생	242	14.9		36	30.6	47.2	19.4	2.8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27.9	2.486 (1)	185	29.2	47.0	22.2	1.6	1.253 (3)
	하지 않음	343	23.3		80	35.0	46.3	17.5	1.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35.3	13.000* (4)	30	36.7	26.7	33.3	3.3	35.794*** (12)
	300~400만 원 미만	130	23.8		31	58.1	32.3	9.7	0.0	
	400~500만 원 미만	140	15.7		22	22.7	40.9	31.8	4.5	
	500~600만 원 미만	191	28.3		54	40.7	44.4	11.1	3.7	
	600만 원 이상	459	27.9		128	20.3	57.0	22.7	0.0	

* $p < .05$, ** $p < .01$, *** $p < .001$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35.3%가 이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소득 구간의 응답자 중 가장 이동 의사가 높았다. 이들은 타 시도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4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도 (이동 계획 있음 23.8%) 타 시도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58.1%로 많았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타 자치구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이동 계획의 이유

이동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의 주된 이동 이유는 더 좋은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34.0%로 가장 컸으며, 더 좋은 여가·문화·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1.2%로 뒤를 이었다.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18.9%였다.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더 좋은 여가·문화·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순으로 응답하여 같은 응답 순위를 나타냈으나, 도심권과 서북권의 응답자들은 이와 달리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33.3%),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23.8%) 순으로 응답했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38.0%는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명 이상인 응답자는 더 좋은 여가·문화·자연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응답했다(34.7%). 막내 자녀가 미취학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가장 주된 이동 원인은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로 나타났다(각각 35.5%, 41.8%), 중고등학생인 경우 자녀가 다른 지역에 진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6.1%). 한편,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돌봄을 지원하는 사람과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 이동한다는 응답도 15.2%로 나타났다.



【 표 VI-13 】 계획 중인 이동의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더 좋은 보육, 교육기관/시설 을 이용하고 싶어서	사교육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더 안전한 환경으로 가고 싶어서	더 좋은 여가, 문화, 자연환경/시설 을 이용하고 싶어서
전체		265	34.0	18.9	2.6	21.1
거주권역	도심+서북권	42	33.3	23.8	2.4	11.9
	동북권	75	30.7	16.0	1.3	21.3
	서남권	85	36.5	21.2	0.0	21.2
	동남권	63	34.9	15.9	7.9	27.0
자녀 수	2명	216	38.0	18.5	1.4	18.1
	3명 이상	49	16.3	20.4	8.2	34.7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38	35.5	18.1	2.9	18.8
	초등학생	91	41.8	20.9	1.1	24.2
	중고등학생	36	8.3	16.7	5.6	22.2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185	29.2	22.7	2.7	20.5
	하지 않음	80	45.0	10.0	2.5	22.5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0	23.3	0.0	3.3	36.7
	300-400만 원 미만	31	48.4	6.5	0.0	19.4
	400-500만 원 미만	22	40.9	13.6	0.0	18.2
	500-600만 원 미만	54	33.3	14.8	3.7	16.7
	600만 원 이상	128	32.0	28.9	3.1	20.3

* $p < .05$, ** $p < .01$, *** $p < .001$

【표 VI-14】 계획 중인 이동의 가장 주된 원인(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까이 거주)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녀의 진학 때문에	기타	$\chi^2(df)$
전체		265	9.8	0.4	6.0	7.2	-
거주권역	도심+서북권	42	11.9	0.0	2.4	14.3	29.985 (21)
	동북권	75	13.3	0.0	6.7	10.7	
	서남권	85	7.1	0.0	8.2	5.9	
	동남권	63	7.9	1.6	4.8	0.0	
자녀 수	2명	216	11.1	0.5	6.0	6.5	20.763** (7)
	3명 이상	49	4.1	0.0	6.1	10.2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38	15.2	0.7	0.7	8.0	86.005*** (14)
	초등학생	91	2.2	0.0	2.2	7.7	
	중고등학생	36	8.3	0.0	36.1	2.8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185	10.8	0.0	7.6	6.5	14.708* (7)
	하지 않음	80	7.5	1.3	2.5	8.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0	10.0	3.3	13.3	10.0	47.168* (28)
	300-400만 원 미만	31	6.5	0.0	3.2	16.1	
	400-500만 원 미만	22	18.2	0.0	4.5	4.5	
	500-600만 원 미만	54	14.8	0.0	7.4	9.3	
	600만 원 이상	128	7.0	0.0	4.7	3.9	

* $p < .05$, ** $p < .01$, *** $p < .001$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29.2%가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45.0%가 여기에 응답했다. 또한,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이동 계획의 이유는 사교육 접근성(22.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더 좋은 여가·문화·자연환경 이용이었다(22.5%).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더 좋은 여가·문화·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싫어서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그 외 소득 구간의 응답자들은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 이용을 가장 주된 이유로 응답했다. 응답자 수는 적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10.0%가 돌봄 지원(돌봐줄 사람과 가까이 살기 위해)을 받기 위해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VI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양육자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서울시 양육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먼저,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은 전통적인 자녀 가치관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4점 중 1.97점)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와 같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의미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가장 높아 3.20점이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은 '부모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2.47점),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2.37점)와 같은 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감에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가장 동의 정도가 낮았다(1.96점). 자녀 수에 따른 인식 차이는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서 두드러졌는데, 두 자녀 응답자(2.10점)보다 세 자녀 이상 응답자(2.27점)가 자녀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들은 우리 사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를 긍정적/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5%는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의 37.1%, 남성 응답자의 33.1%가,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는 34.8%, 3명 이상인 응답자는 42.4%가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또한,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저학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사회의 양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안전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8%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거주권역별 응답을 보면, 동남권 응답자의 60.8%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도심권과 서북권 응답자는 45.8%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거주 중인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보행 편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4점 중 각각 2.38점, 2.39점). 권역별로 동남권 응답자가 모든 항목에서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도심권과 서북권 응답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았다(각각 45.9%, 54.1%). 서울시의 양육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46.0%)과 ‘높은 주거비용’(27.6%), 그리고 ‘보육 인프라 부족’(10.8%)이 이유라고 응답했다. 거주권역별로 보면, 서남권과 동남권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보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서남권 13.0%, 동남권 16.1%). ‘높은 주거비용’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권역은 동북권과 서남권이었으며, 도심권과 서북권은 높은 생활비라는 응답이 타 권역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6.2%).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보다 3명 이상인 경우,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이라는 응답이 많았고(2명 44.5%, 3명 이상 50.4%), 2명인 응답자는 ‘높은 주거비용’이라는 응답이 3명 이상인 응답자보다 조금 많았다(2명 28.1%, 3명 이상 25.9%).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막내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보육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양육자의 23.0%는 출산·양육·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역을 이동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이동 유형은 서울시 내의 타 자치구로 이동(48.5%)이었다. 향후, 출산·양육·교육을 목적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26.4%였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응답자의 28.3%가 이동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이동 의향이 가장 많았다. 이동 의향이 있는 경우, 이동 유형은 타 자치구로 이동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6.8%), 이동의 주된 이유는 더 좋은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34.0%로 가장 컸으며, 더 좋은 여가·문화·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1.2%로 뒤를 이었다.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38.0%는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명 이상인 응답자는 더 좋은 여가·문화·자연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응답했다(34.7%). 막내 자녀가 미취학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가장 주된 이동 원인은 더 좋은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로 나타났으며(각각 35.5%, 41.8%), 중고등학생인 경우 자녀가 다른 지역에 진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6.1%). 한편,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돌봄을 지원하는 사람과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 이동한다는 응답도 15.2%로 나타났다.

VII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정책 이용 현황 및 정책 수요

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이용 현황
2.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3. 요약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I 서울시 다자녀 양육자의 정책 이용 현황 및 정책 수요

VII장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이용 현황을 제시하고, 2절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책 수요를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정책 이용 현황 및 정책 수요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이용 현황

1)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이용 경험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은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두 자녀 지원 정책과 세 자녀 이상 지원 정책의 인지도, 이용 경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5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출산크레딧 지원의 경우 44.5%가 알고 있어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정책으로 29.4%의 응답자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거의 모든 정책에서 두 자녀 가구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인지도가 다소 높았다.

각 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이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은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으로 46.4%가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 경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3.12점),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3.11점) 순이었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육아용품 비용 지원(2.93점), 출산크레딧 지원(2.97점)으로 나타났다.

【표 VII-1】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두 자녀 이상 가구)

(단위 : %, 점)

구분	정책 인지도('알고 있다')			이용한 적 있다 ¹⁾			이용자 만족도 ²⁾			t(df)
	전체 ³⁾	두 자녀 ⁴⁾	세 자녀 이상 ⁵⁾	전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전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출산크레딧 지원	44.5	43.2	48.9	58.8	57.0	64.3	2.97	3.01	2.88	1.472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36.9	34.9	43.7	22.6	17.7	36.0	3.12	3.29	2.89	2.702**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1	41.0	45.9	8.0	5.7	15.2	3.09	3.11	3.06	0.176 (3)
KTX, SRT 할인	41.0	38.5	49.3	27.7	24.1	37.2	3.03	3.01	3.05	-0.228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55.5	53.0	64.2	46.4	42.3	57.8	3.03	3.03	3.04	-0.081 (3)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29.4	27.7	34.9	23.7	21.9	28.7	3.11	3.21	2.91	1.845 (3)
육아용품 비용지원	34.6	34.4	35.4	40.8	36.7	54.3	2.93	2.97	2.84	0.956 (3)
공항주차장 이용료 지원	34.8	33.0	41.0	45.4	43.0	52.1	3.09	3.09	3.08	0.076 (3)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알고 있다' 응답자의 이용 경험

2) '이용한 적 있다' 응답자의 이용 만족도

3) $n=1,005$, 4) $n=776$, 5) $n=229$

【표 VII-2】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세 자녀 이상 가구)

(단위 : %, 점)(n=229)

구분	정책 인지도		이용 경험		이용자 만족도
	알고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	53.3	46.7	24.6	75.4	2.90
자동차 취득세 감면	65.9	34.1	60.9	39.1	3.15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72.5	27.5	23.5	76.5	3.10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52.4	47.6	26.7	73.3	2.75
전기요금 할인	81.7	18.3	91.4	8.6	2.96
난방비 할인	52.4	47.6	84.2	15.8	2.95
도시가스요금 할인	84.7	15.3	87.6	12.4	2.85

주: 1) '알고 있다' 응답자의 이용 경험
2) '이용한 적 있다' 응답자의 이용 만족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되는 정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도시가스요금 할인(84.7%), 전기요금 할인(81.7%) 정책 그리고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72.5%) 순이었다. 이용 경험 가장 많은 정책은 각종 공과금 할인이었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을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60.9%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3.15점), 가장 낮은 정책은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2.75점)이었다.

2)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이용 경험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주택 관련 지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청소년수련관 및 시민공원, 서울대공원 이용료 할인,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할인서비스, 다둥이행복카드가 있고, 2021년까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 등 명칭 다양)을 지급하였다(관련 내용은 【표 II-7】, 【표 II-8】 참조).



【 표 Ⅶ-3 】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단위 : %, 점)

구분	정책 인지도('알고 있다')			이용한 적 있다 ¹⁾			이용자 만족도 ²⁾			t(df)
	전체 ⁴⁾	두 자녀 ⁵⁾	세 자녀 이상 ⁶⁾	전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전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자차구)출산축하금 / 첫만남이용권	59.6	59.3	60.7	64.4	64.6	64.0	2.86	2.91	2.72	2.154* (3)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37.5	36.9	39.7	15.9	12.9	25.3	2.90	2.95	2.83	.511 (3)
하수도사용료 감면	28.1	23.5	43.7	43.6	28.6	71.0	2.94	3.10	2.83	1.960 (3)
공영주차장 할인	52.9	49.5	64.6	59.6	54.9	71.6	3.08	3.11	3.02	1.235 (3)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 할인	23.6	22.0	28.8	22.4	18.1	33.3	3.04	3.07	3.00	.338 (3)
한강시민공원 이용료 할인	26.0	24.2	31.9	46.0	41.5	57.5	2.98	3.00	2.93	.558 (3)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 ³⁾	29.8	27.7	36.7	44.5	41.9	51.2	3.13	3.12	3.14	-.139 (3)
다둥이행복카드	73.5	72.2	78.2	55.2	50.4	70.4	2.84	2.86	2.80	.758 (3)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알고 있다' 응답자의 이용 경험

2) '이용한 적 있다' 응답자의 이용 만족도

3)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의 경우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가구에 할인되는 정책임(공영주차장의 경우 다둥이행복카드 외 다른 방법으로도 다자녀 증명이 가능하면 할인 가능).

4) $n=1,005$, 5) $n=776$, 6) $n=229$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다둥이행복카드로 전체 응답자의 73.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78.2%, 두 자녀 응답자의 72.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각 자차구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9.6%였다(두 자녀 59.3%, 세 자녀 이상 60.7%). 공영주차장 할인 정책도 인지도가 52.9%였으며 이 제도 역시 두 자녀 응답자보다(49.5%)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인지도가 높았다(64.6%). 반면,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 할인(23.6%)이었으며, 한강시민공원 이용료 할인도 26.0%로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 본 정책은 출산축하금(64.4%)이었으며, 다둥이행복카드는 해당 정책을 아는 응답자의 55.2%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이용 경험이 낮은 정책은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으로 15.9%의 응답자가 이용 경험이 있었는데, 해당 정책의 이용 제한이 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3.13점),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였다(3.08점).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할인제도는 인지도도 낮고 이용 경험도 적은 정책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3.04점).

다둥이행복카드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응답자(408명)의 70.4%가 월 1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처는 공영주차장(50.5%), 그리고 병·의원 및 문화체육시설(각각 11.5%)이었다. 월평균 결제금액은 1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71.8%였는데 두 자녀 가구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사용률과 사용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경험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혜택(할인 금액)이 적어서 60.0%,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39.0%)로 나타났다.

한편,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지만 발급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249명이었는데, 이들의 50.2%는 별로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발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32.9%는 기관 방문이나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로 인해 발급받기 귀찮아서라고 응답했다(부록 1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실태조사> 참조).

2.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1)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39.2%),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16.6%), 그리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9.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37.5%는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16.7%는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돌봄·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각각 8.5%로 이를 합하면(돌봄·가사노동 인한 어려움) 17.0%를 차지한다. 남성 응답자의 49.0%는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으며,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15.9%), 주거 및 생활비 부담(13.2%)이 주요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이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0%와 3.3%로 나타나 여성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되어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으며(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38.3%,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47.1%), 자녀 돌봄 시간 부족, 그리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응답률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약간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소득원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한 명의 양육자가 자녀를 돌봄으로 인해 자녀 돌봄을 위한 인적 자원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응답자와 3명 이상인 응답자 모두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명 이상인 응답자는 42.4%, 2명인 응답자는 38.3%로 3명 이상인 응답자의 응답률이 조금 높았다. 반면,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18.2%로 3명 이상인 응답자보다 많았다(11.4%).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이 어렵다는 응답이 10.9%로 자녀가 2명인 응답자(8.9%)보다 많았다.

【 표 VII-4 】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돌봄·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돌봄·가사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체		1,005	39.2	16.6	4.4	7.9	7.8	2.7	1.2	0.2
응답자 성별	여성	854	37.5	16.7	4.7	8.5	8.5	2.1	1.4	0.1
	남성	151	49.0	15.9	2.6	4.0	3.3	6.0	0.0	0.7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38.3	17.3	4.1	8.3	8.1	2.8	1.1	0.2
	배우자_무	102	47.1	10.8	6.9	3.9	4.9	2.0	2.0	0.0
자녀 수	2명	776	38.3	18.2	4.5	8.0	8.2	2.6	0.9	0.0
	3명 이상	229	42.4	11.4	3.9	7.4	6.1	3.1	2.2	0.9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24.5	20.5	6.3	11.0	11.0	2.5	0.8	0.3
	초등학생	363	45.5	15.7	3.0	6.9	7.2	2.5	1.9	0.3
	중고등학생	242	54.1	11.6	3.3	4.1	3.3	3.3	0.8	0.0
경제 활동 여부 ¹⁾	하고 있음	662	39.3	19.6	5.9	6.6	6.8	2.9	0.8	0.2
	하지 않음	343	39.1	10.8	1.5	10.2	9.6	2.3	2.0	0.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35.3	10.6	4.7	7.1	7.1	1.2	3.5	0.0
	300~400만 원 미만	130	35.4	10.0	5.4	7.7	11.5	3.1	0.8	0.0
	400~500만 원 미만	140	40.0	16.4	1.4	8.6	7.9	1.4	2.9	0.0
	500~600만 원 미만	191	43.5	14.1	2.6	7.9	6.8	4.2	0.5	0.0
	600만 원 이상	459	39.0	20.7	5.7	7.8	7.2	2.6	0.7	0.4
맞벌이 여부 ²⁾	맞벌이	511	32.9	23.3	6.3	7.8	6.3	3.3	0.8	0.4
	비맞벌이	392	45.4	9.4	1.3	8.9	10.5	2.0	1.5	0.0

주: 1) '경제활동 여부'는 현재 상황임. 문항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고 있어,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반영된 응답임

2)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 표 VII-5 】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주거 및 생활비 부담	자녀 학습 지도의 어려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	정부나 서울시의 긴급돌봄 자원서비스 미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어려움 없음	기타	$\chi^2(df)$
전체		1,005	9.4	2.3	3.5	0.5	1.8	2.2	0.5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8.7	2.3	3.9	0.6	1.8	2.6	0.6	35.722*** (14)
	남성	151	13.2	2.0	1.3	0.0	2.0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9.1	2.0	3.7	0.4	1.9	2.2	0.6	16.544 (14)
	배우자_무	102	11.8	4.9	2.0	1.0	1.0	2.0	0.0	
자녀 수	2명	776	8.9	2.2	3.5	0.4	1.5	2.3	0.5	19.487 (14)
	3명 이상	229	10.9	2.6	3.5	0.9	2.6	1.7	0.4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9.8	1.8	5.0	1.0	2.8	2.0	1.0	97.365*** (28)
	초등학생	363	7.4	2.5	3.0	0.3	1.4	2.2	0.3	
	중고등학생	242	11.6	2.9	1.7	0.0	0.8	2.5	0.0	
경제 활동 여부 ¹⁾	하고 있음	662	9.5	2.3	3.3	0.5	1.5	0.6	0.3	55.222*** (14)
	하지 않음	343	9.0	2.3	3.8	0.6	2.3	5.2	0.9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0.0	3.5	1.2	1.2	2.4	2.4	0.0	98.081*** (56)
	300~400만 원 미만	130	13.1	1.5	3.1	0.0	4.6	1.5	2.3	
	400~500만 원 미만	140	14.3	0.7	1.4	0.7	0.7	2.1	1.4	
	500~600만 원 미만	191	7.9	3.7	3.1	0.5	1.0	4.2	0.0	
	600만 원 이상	459	5.4	2.2	4.8	0.4	1.5	1.5	0.0	
맞벌이 여부 ²⁾	맞벌이	511	9.2	1.8	4.3	0.8	1.4	1.2	0.4	69.046*** (14)
	비맞벌이	392	8.9	2.3	2.8	0.0	2.6	3.6	0.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경제활동 여부는 현재 상황임. 문항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고 있어,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반영된 응답임

2)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막내 자녀가 미취학 자녀인 응답자의 24.5%,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의 45.5%,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 자녀인 응답자의 54.1%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는 다른 취학 상태의 자녀를 둔 응답자에 비해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으며(미취학 20.5%, 초등학생 자녀 15.7%, 중고등학생 자녀 11.6%), 자녀 돌봄 시간 부족(6.3%), 돌봄·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11.0%)와 정신적 스트레스(11.0%)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는 일과 자녀 돌봄 병행 어려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돌봄의 주책임자이자 수행자로서 돌봄·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400만 원 미만 응답자보다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4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은 그 이상의 소득 집단 응답자에 비해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이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수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타 시도에 비해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점증지원 방식이 두드러진다(최효미 외, 2020; 강하라 외, 2021). 이러한 정책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우대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점증지원은 비용 지원에 초점이 있으며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등 명칭 상이)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점증지원 방식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한 자녀당 소요되는 양육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 수 있으나, 현재의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 당시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자녀 양육자가 이러한 점증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점증지원이 필요하다는데 61.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증지원보다 개별 자녀에



대한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29.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였다.

【표 VII-6】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 정책 필요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개별 자녀에 대한 지원이면 충분	자녀 수에 따른 점증지원 필요	잘 모르겠음	χ^2 (df)
전체		1,005	29.4	61.1	9.6	-
자녀 수	2명	776	33.2	57.0	9.8	27.337*** (2)
	3명 이상	229	16.2	75.1	8.7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24.8	67.3	8.0	11.518* (4)
	초등학생	363	32.8	57.6	9.6	
	중고등학생	242	31.8	56.2	12.0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30.8	61.3	7.9	7.28* (2)
	하지 않음	343	26.5	60.6	12.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3.5	60.0	16.5	9.854 (8)
	300~400만 원 미만	130	26.2	62.3	11.5	
	400~500만 원 미만	140	26.4	65.7	7.9	
	500~600만 원 미만	191	29.8	62.3	7.9	
	600만 원 이상	459	32.0	59.0	8.9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점증지원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75.1%가 점증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개별 자녀에 대한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16.2%로 두 자녀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응답률을 보였다(두 자녀 응답자 33.2%).

막내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자녀 수에 따른 점증지원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이 개별 자녀에 대한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30.8%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지만(26.5%),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8%로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보다 많았다(경제활동 중 7.9%). 월평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개별 자녀에 대한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300만 원 미만 23.5%, 600만 원 이상 32.0%).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비용 지원(23.6%), 공교육 강화 정책(사교육비용 최소화)(15.7%),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정책(14.8%),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시설 확대(13.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여성 응답자의 23.0%는 자녀 양육비용 지원, 16.3%는 공교육 강화 정책(사교육비용 최소화), 그리고 13.8%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7.2%,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5%,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시설 확대는 15.9%로 나타났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양육비용 지원 확대와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공교육 강화 정책 순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자녀가 2명인 응답자의 경우 양육비용 지원 확대, 공교육 강화 정책, 그리고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공교육 강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라 정책 체감이 다르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 관련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3.0%였으며, 막내의 연령이 어릴수록 해당 정책 확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응답 결과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맞벌이 응답자에 비해 비맞벌이 응답자가 양육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맞벌이 20.9%, 비맞벌이 27.3%), 맞벌이할 경우 방과 후 돌봄 기관 등 공공돌봄 지원 확대(10.4%)와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10.8%)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 응답자는 가장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라고 응답(25.9%)한 것도 다른 소득 구간 응답자와 다른 점이였다.

【 표 VII-7 】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돌봄 기관 등 공공돌봄 지원 확대	자녀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지원 확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지원 확대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최소화 (비용 최소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전체		1,005	13.5	8.8	8.4	23.6	15.7	14.8
응답자 성별	여성	854	13.1	9.6	7.7	23.0	16.3	13.8
	남성	151	15.9	4.0	11.9	27.2	12.6	20.5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13.1	9.0	8.3	23.7	16.1	14.3
	배우자_무	102	17.6	6.9	8.8	22.5	12.7	19.6
자녀 수	2명	776	13.9	8.9	8.4	22.8	15.9	14.2
	3명 이상	229	12.2	8.3	8.3	26.2	15.3	17.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16.8	10.8	11.5	22.3	5.8	15.3
	초등학생	363	12.4	7.2	6.1	25.3	20.1	14.3
	중고등학생	242	9.9	7.9	6.6	23.1	25.6	14.9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13.9	9.5	8.3	23.6	15.4	14.0
	하지 않음	343	12.8	7.3	8.5	23.6	16.3	16.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7.1	5.9	8.2	22.4	11.8	25.9
	300~400만 원 미만	130	16.2	8.5	8.5	28.5	11.5	14.6
	400~500만 원 미만	140	12.1	9.3	3.6	21.4	19.3	21.4
	500~600만 원 미만	191	17.8	7.9	12.6	22.0	12.6	14.7
	600만 원 이상	459	12.6	9.6	8.1	23.7	17.9	10.9

구분		빈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돌봄 기관 등 공공돌봄 지원 확대	자녀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지원 확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지원 확대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최소화 (비용 최소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511	12.9	10.4	8.6	20.9	16.4	14.1
	비맞벌이	392	13.3	7.1	7.9	27.3	15.6	14.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 표 VII-8 】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1순위)(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세제, 공과금 등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의 문화생활(여가, 운동, 공연 관람 등) 지원	고연령,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	기타	$\chi^2(df)$
전체		1,005	9.6	3.0	0.9	1.3	0.5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10.4	3.2	0.9	1.5	0.5	21.639* (10)
	남성	151	4.6	2.0	0.7	0.0	0.7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9.6	3.1	1.0	1.3	0.6	6.486 (10)
	배우자_무	102	8.8	2.0	0.0	1.0	0.0	
자녀 수	2명	776	10.8	2.2	1.0	1.5	0.4	18.512* (10)
	3명 이상	229	5.2	5.7	0.4	0.4	0.9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13.0	2.3	0.8	1.3	0.5	81.904 *** (20)
	초등학생	363	9.1	3.3	1.4	0.6	0.3	
	중고등학생	242	4.5	3.7	0.4	2.5	0.8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9.7	3.2	0.8	0.9	0.8	7.909 (10)
	하지 않음	343	9.3	2.6	1.2	2.0	0.0	



구분	빈도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세제, 공과금 등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의 문화생활(여가, 운동, 공연 관람 등) 지원	고연령,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	기타	$\chi^2(df)$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11.8	3.5	1.2	2.4	57.480* (40)
	300~400만 원 미만	130	5.4	3.1	0.0	3.1	
	400~500만 원 미만	140	8.6	1.4	1.4	0.7	
	500~600만 원 미만	191	6.8	3.1	1.6	1.0	
	600만 원 이상	459	11.8	3.3	0.7	0.9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511	10.8	2.7	1.2	1.0	13.998 (10)
	비맞벌이	392	8.2	3.6	0.8	1.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현재 유배우자만 응답(n=903)

3) 서울시 양육환경 개선의 조건

양육자가 자녀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자녀 가구 양육자들은 주택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했다(전체 응답자의 25.8%). 이는 확대가 필요한 정책과 부담되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높은 주택 가격은 다자녀 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자녀 양육비용이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가구원 수가 많음으로 인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을 고려할 때,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은 다자녀 가구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은 공교육 강화(15.1%),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해소(9.4%), 그리고 양성평등한 사회(7.7%), 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및 치열한 경쟁 문화 해소(각각 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9】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가장 중요한 조건(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양성 평등한 사회	학벌 위주 사회 문화 해소	공교육 강화	일 중심의 사회 (장시간 노동 등) 변화	주택 가격 안정	고용 안정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전체		1,005	7.7	9.4	15.1	4.1	25.8	3.6	0.8
응답자 성별	여성	854	7.6	8.4	14.5	4.2	26.3	3.3	0.8
	남성	151	7.9	14.6	18.5	3.3	22.5	5.3	0.7
배우자 유무	배우자유	903	7.6	9.4	15.3	4.3	24.8	3.5	0.8
	배우자무	102	7.8	8.8	13.7	2.0	34.3	3.9	1.0
자녀 수	2명	776	7.5	8.8	14.9	4.1	26.3	3.9	0.5
	3명 이상	229	8.3	11.4	15.7	3.9	24.0	2.6	1.7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9.0	9.0	11.5	6.8	26.0	4.5	0.8
	초등학교	363	6.9	7.7	17.6	3.0	26.2	3.0	1.1
	중고등학교	242	6.6	12.4	17.4	1.2	24.8	2.9	0.4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6.6	8.6	14.8	4.2	25.4	4.1	0.8
	하지 않음	343	9.6	10.8	15.7	3.8	26.5	2.6	0.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9.4	5.9	11.8	1.2	34.1	2.4	1.2
	300~400 만원 미만	130	10.0	9.2	14.6	3.8	26.2	3.8	0.0
	400~500 만원 미만	140	7.9	11.4	15.7	4.3	28.6	5.0	0.0
	500~600 만원 미만	191	7.9	11.5	15.7	1.6	27.7	4.2	1.0
	600만 원 이상	459	6.5	8.5	15.5	5.7	22.4	3.1	1.1



【 표 VII-10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가장 중요한 조건(1위)(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질 높은 보육·육아 지원 시설 확충	치열한 경쟁 문화 해소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 문화 확립	범죄, 사고 등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사교육 비용 경감	복지 수준 향상	기타
전체		1,005	5.2	6.4	4.3	6.4	5.5	3.8	1.7	0.5
응답자 성별	여성	854	5.3	6.6	4.7	6.8	5.2	3.9	1.9	0.6
	남성	151	4.6	5.3	2.0	4.0	7.3	3.3	0.7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5.3	6.9	4.5	6.2	5.5	3.9	1.6	0.3
	배우자_무	102	3.9	2.0	2.0	7.8	4.9	2.9	2.9	2.0
자녀 수	2명	776	4.6	7.2	5.2	6.4	4.8	4.1	1.2	0.5
	3명 이상	229	7.0	3.5	1.3	6.1	7.9	2.6	3.5	0.4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7.5	3.5	6.8	5.3	4.8	2.8	1.8	0.3
	초등학생	363	3.9	7.2	3.3	7.4	6.6	3.6	1.4	1.1
	중고등학생	242	3.3	9.9	1.7	6.6	5.0	5.8	2.1	0.0
경제 활동 여부	하고 있음	662	5.3	6.6	4.8	7.1	5.1	4.4	1.8	0.3
	하지 않음	343	5.0	5.8	3.2	5.0	6.1	2.6	1.5	0.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	2.4	2.4	3.5	7.1	9.4	4.7	3.5	1.2
	300~400 만 원 미만	130	4.6	7.7	1.5	6.9	7.7	0.8	3.1	0.0
	400~500 만 원 미만	140	2.9	8.6	2.1	7.1	2.9	2.9	0.7	0.0
	500~600 만 원 미만	191	7.3	2.1	3.1	4.7	6.3	4.7	1.6	0.5
	600만 원 이상	459	5.7	7.8	6.3	6.5	4.6	4.4	1.3	0.7

모든 응답 집단에서 주택 가격 안정은 자녀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

만 원 미만 응답 집단에서 주택 가격 안정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34.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4.1%).

공교육 강화와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해소가 중요한 조건이라는 응답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18.5%가 공교육 강화가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하였으며(여성 14.5%), 14.6%가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해소가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여성 8.4%)했다.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범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여성 6.8, 남성 4.0%), 일·생활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확립(여성 4.7%, 남성 2.0%) 등이었다.

세 자녀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공교육 강화(15.7%), 학벌 위주 사회문화 해소(11.4%), 양성평등한 사회(8.3%)라는 응답이 두 자녀 응답자보다 많았다(두 자녀 응답자는 각각 14.9%, 8.8%, 7.5%). 한편, 두 자녀 응답자는 치열한 경쟁 문화 해소(7.2%), 일·생활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확립(5.2%) 사교육비 경감(4.1%)에서 세 자녀 응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세 자녀 응답자는 각각 3.5%, 1.3%, 2.6%).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양성평등한 사회(9.0%)가 주요 조건이라는 응답이 다른 취학 상태 자녀의 양육자보다 많았으며, 장시간 노동 등 일 중심 사회의 변화(6.8%) 일·생활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확립이 조건이라는 응답(6.8%)도 다른 취학 상태 자녀의 양육자에 비해 많았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는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해소가 주요 조건이라는 응답이 12.4%, 치열한 경쟁 문화 해소라는 응답이 9.9%로 다른 취학 상태의 양육자보다 많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와 하지 않는 응답자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경우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응답률이 높았으며(2.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에 비해 양성평등한 사회가 중요한 조건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경제활동 함 6.6%, 하지 않음 9.6%).



3. 요약

Ⅶ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 평가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가구 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구로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과 다를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의 정책 이용 경험과 서울시의 정책 이용 경험을 따로 조사하였다.

먼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55.5%, '알고 있다')이었으며,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정책(29.4%)이었다. 정책 인지도는 두 자녀 가구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해 본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으로 46.4%가 이용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 경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3.12점),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3.11점)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육아용품 비용 지원(2.93점), 출산크레딧 지원(2.97점)으로 나타났다.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도시가스요금 할인(84.7%), 전기요금 할인(81.7%),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72.5%) 순으로, 각종 공과금 할인이 이용 경험 가장 많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3.15점), 가장 낮은 정책은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2.75점)이었다.

둘째, 서울시 정책 이용 경험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다둥이행복카드(73.5%)였으며,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인지도가 더 높았다(세 자녀 이상 78.2%, 두 자녀 72.2%).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9.6%였다(두 자녀 59.3%, 세 자녀 이상 60.7%).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할인(23.6%), 한강시민공원 이용료 할인(26.0%)이었다.

이용 경험이 많은 정책은 출산축하금(64.4%), 다둥이행복카드(55.2%) 순이었으며(정

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 기준), 이용 경험이 적은 정책은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15.9%) 이었는데 이는 해당 정책의 이용 제한이 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3.13점), 공영주차장 할인제도였다(3.08점). 한편,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다둥이행복카드(2.84점)와 출산장려금(2.86점)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과 다둥이행복카드 등 다수의 지원 정책은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39.2%),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16.6%), 그리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9.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37.5%는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16.7%는 직장 생활과 돌봄 병행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돌봄·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각각 8.5%로 이를 합하면(돌봄·가사노동 인한 어려움) 17.0%를 차지한다. 남성 응답자의 49.0%는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15.9%는 직장 생활과 자녀 돌봄 병행이, 13.2%는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이 주요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이 돌봄·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0%와 3.3%로 나타나 여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되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으며(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38.3%,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47.1%), 자녀 돌봄 시간 부족, 그리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응답률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응답률보다 높았다. 자녀가 2명인 응답자와 3명 이상인 응답자 모두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명 이상인 응답자는 42.4%, 2명인 응답자는 38.3%로 3명 이상인 응답자의 응답률이 조금 높았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이 어렵다는 응답이 10.9%로 자녀가 2명인 응답자(8.9%)보다 많았다.

넷째, 정책 수요와 관련하여 자녀 수에 따른 점증지원 방식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61.1%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점증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 자녀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75.1%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막내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자녀 수에 따른 점증지원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자녀 양육비용 지원(23.6%), 공교육 강화 정책(사교육비용 최소화)(15.7%),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정책(14.8%),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시설 확대(13.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양육비용 지원 확대와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공교육 강화 정책 순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자녀가 2명인 응답자의 경우 양육비용 지원 확대, 공교육 강화 정책, 그리고 주거 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이 선결될 필요가 가장 크다고 보았다.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상 자녀 수가 증가하면서 요구되는 면적 증대로 인해 주거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른 가구에 비해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은 공교육 강화(15.1%),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해소(9.4%), 그리고 양성평등한 사회(7.7%), 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및 치열한 경쟁문화 해소(각각 6.4%) 순으로 나타났다.

VIII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2.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추진 방안
3.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II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VIII장의 1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2절에서는 향후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체계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마련된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와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서울시 거주 다자녀 양육자 1,005명)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와 가구 특성, 주거 현황, 자녀 현황, 돌봄 실태와 양육자의 일·생활균형 실태, 자녀와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정책 이용 경험 및 평가, 정책 수요를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및 향후 실태조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시 다자녀 가구 구성의 다양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실태조사와 정책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자녀의 대부분은 출생 자녀였

으나(98.6%) 입양 자녀(0.3%), 재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자녀(1.0%)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6.5%였는데, 자녀 수 추가 방법은 출산이 87.7%, 입양이 13.9%, 위탁 아동 양육이 3.1%였고, 추가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을 10% 선으로 할당 하긴 하였으나 한부모 다자녀 가구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⁴⁾. 그뿐만 아니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향후 자녀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9.8%로 유배우 응답자보다 높았다(유배우 응답자의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6.1%). 이는 기존의 실태조사가 출산율 제고를 배경으로 ‘추가 출산’을 질문하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재혼 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적으로 입양하는 경우는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나, 재혼-사실혼 관계의 자녀와 위탁 아동의 경우 일부 정책에서는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다양한 다자녀 가구 형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적 지위로 인해 배제되는 자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자녀 가구의 돌봄공백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기존의 틈새돌봄 지원이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은(공공 아이돌보미 사업 등) 맞벌이 가구와 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를 정책 지원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특별히 돌봄 지원을 요구하는 집단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의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은 미취학 아동 양육 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여전히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양육자 현황에서도 조손 돌봄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한부모 다자녀 가구는 부양육자가 없다는 응답이 양부모 다자녀 가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돌봄 지원 요구는 비단 다자녀 가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편적 돌봄 지원 정책으로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돌봄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자녀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자녀 가구에서 가증되는 문제는 비용 부담과 돌봄노동의 여성 집중 현상으로

24)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서울시 응답자 중 두 자녀 이상 응답자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81.4% 유배우자, 8.2%는 별거 또는 이혼, 10.4%는 사별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 두 자녀 가구보다 세 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더 적었으나(두 자녀 가구 626.2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585.6만 원), 가구지출은 세 자녀 가구가 더 컸다(두 자녀 가구 476.3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493.2만 원). 또한, 주택 관련 부채액도 두 자녀 가구보다 세 자녀 가구가 더 컸다(두 자녀 가구 1억 7,540.6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1억 9,022.8만 원). 가구소득 대비 지출이 세 자녀 가구에서 높다 보니(84.2%, 두 자녀 가구 76.1%),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한 자녀당 지출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자녀가구는 양육비용뿐 아니라, 돌봄 시간도 더 많이 요구된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 지원 요구가 높아 부양육자가 돌봄을 지원하는 시간도 길었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 수에 다른 양육자의 경제활동 비율에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고, 임금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수행을 위해 경제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더 나쁜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공공돌봄 및 공교육을 통한 돌봄 지원과 더불어 자녀 수가 증가하더라도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환경 개선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고, 이직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경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다자녀 양육이 노동시장 참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입양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낮았는데, 특히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에게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직 횟수 역시 두 자녀 가구 양육자가 첫째 자녀 양육 이후 지금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6.9%, 세 자녀 이상의 경우 30.3%로 낮았다. 또한, 현재 일하지 않는 여성 양육자의 70.9%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²⁵⁾. 이처럼 돌봄으로 인한 불이

25)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정원 외, 2018)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구 중 42.3%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아이의 어머니가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다자녀 가구의 어머니 중 61.1%가 첫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이 클수록 시민들은 자녀 돌봄을 선택하지 않게 되거나, 소수의 시민만이 이를 감수하면서 돌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과 교육 정책, 고용환경 개선 정책 등 다각적 해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자녀 돌봄의 여성 집중 현상은 여성의 일·생활균형을 매우 어렵게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취업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길지만,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길어, 경제활동 중인 양육자의 총 노동시간(취업노동시간+가사노동시간+돌봄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모든 형태에서 여성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로 인한 가사 및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여성에게서 더 높았으며, 자녀 양육 스트레스도 여성과 자녀가 어린 양육자에게서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남성의 가사와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는 여성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의 절대적인 시간 및 강도, 그리고 일자리의 상황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자녀가 많은 양육자에게 일과 가족생활 병행은 매우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자 지원 정책이 충분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과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하는 한부모 양육자의 경우 일·생활균형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부모 양육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요구된다.

여섯째, 자녀 양육에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 안전과 편의성의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자의 36.5%는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37.1%가 우리 사회가 다자녀 가구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남성 33.1%).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응답률이 높아졌다(2명 24.3%, 3명 이상 42.4%).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안전, 편의성 부분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사회의 교통안전과 보행편의는 매우 낮다는 평가를 보였고, 거주권역에 따른 편차도 나타났다. 대체로 서남권의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점수가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다자녀 양육자의 상당수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구이나 이를 모르는 양육자도 상당하여 정책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 두 자녀 가구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는 정책이 많아,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가구인지 모르는 응답자도 있었다. 중앙정부 정책 중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이었고(55.5%), 세 자녀 이상 가구부터 적용되는 정책의 경우 각종 공과금 할인 정책의 인지도가 80% 이상으로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6%로 낮았으며, 출산축하금과 공영주차장 할인(52.9%), 그리고 다둥이행복카드(인지도 73.5%)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최대 40%를 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는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서울시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현황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고 한 자녀 가구와의 비교도 불가능하여, 다자녀 가구만의 특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 한 자녀 가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특징을 분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면밀히 검토·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추진 방안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기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의 규모와 조사항목, 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조사체계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방안

향후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태조사의 명칭, △실태조사 실시 방안(표본추출과 표본 크기), △실태조사 항목, △실태조사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 강화를 제안하였다.



(1)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명칭 제안

실태조사의 명칭을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로 제안한다. 기존 정책의 일부가 이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집단의 틀도 '가구'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를 반영하여 실태조사 명칭으로 '다자녀 가구'를 사용할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구'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며 혈족 관계의 여부에 상관하지 않는 개념(국립국어원)으로 '가족'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법령, 조례와 정책에서는 '가족'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민법」 779조의 가족 개념을 준용한다²⁶⁾. 이에 따르면 다자녀 가족은 출산을 통해 자녀가 된 경우, 재혼 시 법률혼을 통해 자녀가 된 경우, 또는 입양을 통해 법률적으로 자녀가 된 경우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생아의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족을 추정하는 것은 가구 단위로 생활하는 서울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추정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변화를 고려할 때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II장의 「인구주택총조사」 다자녀 가구 참조), 이에 따라 정책의 대상 역시 가구 단위로 고려될 필요가 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재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2.6%,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0.1%로 나타났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으나,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 가구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구'의 개념 접근이 더 많은 시민을 정책안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의 조례 명칭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다자녀 가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제7조 실태조사에서도 '다자녀 가족'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칭 개선은 조례 개선을 필요로 한다. 향후 조례의 개정 검토를 통해 실태조사 명칭을 개선하고 조사

2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상과 조사 내용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실태조사 실시 방안(표본추출과 표본 크기)

신뢰할만한 품질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추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다자녀 가구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의 표본 크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자치구별 비례 할당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1,005명의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자녀 수로 층화 후 자치구별 비례 할당).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가구 부문 표본조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표본추출 틀로²⁷⁾ 가구 대상 조사통계 292종(2020년 2월 기준) 중 220종(75.3%)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통계청, 2020). 5년마다 실시되었으나 2015년부터 등록 센서스 방식이 도입되어 인구, 가구, 주택의 총규모, 구조 등 일반적인 특성은 가구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며(통계청, 2020),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유자녀 가구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2015년 처음으로 아동 관련 모집단 통계를 제시하여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의 표본추출 틀로 가장 적합하다. 이에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 분포에 따른 층화 후 할당하는 방식의 표본추출을 고려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는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표본 수 이상의 표본 확보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5명의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표본 오차 ± 3.10 이내에서 적합한 표본 크기이다²⁸⁾.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 수에 따른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이 더 클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특징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집단의

27)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총 수는 물론 규모, 구조, 분포와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는 물론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통계청, 2017)으로 활용되는 표본추출 틀이다.

28) 다음의 방식으로 표본 크기를 정하였다.

충분한 표본 확보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실태조사에서는 특정 대상자 집단의 규모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 응답 대상자의 규모를 조정하여 집단 별 안정성을 높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자녀 수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조사하였으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수가 적어²⁹⁾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웠다는 점은 표본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들도 표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큰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4~5개 권역의 비교 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층화별로

$$n = \frac{Z_{\alpha}^2 \cdot p(1-p)}{e^2} \quad e = Z_{\alpha} \cdot \sqrt{\frac{p(1-p)}{n}}$$

N : 모집단의 크기(Population Size)

n : 표본의 크기(Sample Size)

e : 표본 오차(Margin of error or confidence interval)

Z :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에 대응하는 z-score

P : 관찰치(The observed percentage) 보통 최대 표본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P=0.5를 사용

표본 크기	95% 신뢰구간 표본 오차	99% 신뢰구간 표본 오차
500	4.38	5.77
800	3.46	4.56
1,000	3.10	4.08
1,200	2.83	3.72
1,500	2.53	3.33
1,800	2.31	3.04

29)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시 거주 다자녀 가구는 총 458,327가구로 이 중 두 자녀 가구는 85.5%(392,002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4.5%(66,325가구)이다. 1,000명을 목표로 할 경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수가 너무 적을 것이 예상되어, 두 자녀 가구 80%, 세 자녀 가구 20%를 할당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각각 77.2%, 22.8%가 참여하였다. 향후 자녀 수를 주요 변수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의도적 과표집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 자녀 가구를 포함하여 다자녀 가구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유자녀 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의 유자녀 가구는 20,818,685가구(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로 유자녀 가구의 44.0%를 차지한다. 모든 유자녀 가구를 포함할 경우 한 자녀 가구 44.0%, 두 자녀 가구 47.9%, 세 자녀 이상 가구 8.2%라는 비율을 고려하고, 표본 크기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사례 수가 모집될 수 있는 규모의 표본 크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2,000~2,500명의 표본 크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돌봄 실태 문항의 경우 응답 난이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및 돌봄 실태 등과 같이 여러 자녀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하는 경우 유사 문항이 반복됨에 따라 응답자의 증도 이탈 우려가 크고, 세 자녀 이상 가구 표본 확보에 따른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충분한 표본 크기와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면 조사 병행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다³⁰⁾.

(3) 실태조사 항목(조사표) 제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유사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자녀 돌봄 특성 및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현황, 자녀 및 사회·지역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정책 이용 경험 및 수요 등을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실태조사가 서울시의 조례에 근거하는 만큼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관련 문항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조례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주거, △교육, △취업·창업, △문화·여가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는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명시된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II. 양육 및 돌봄 실태’ 영역과 ‘III. 일·생활균형 현황’ 영역을 통해 조례 제3조에 제시된 주거 지원 정책, 교육 지원 정책, 취업·창업 지원 정책, 문화·여가 지원 정책, 그리고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VI. 정책 평가 및 수요’ 영역을 통해 조례

30)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2022.8.5.~8.10.) 실태조사의 실행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제기된 점은 최소 2,000명 이상의 표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대면 조사를 통해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조사가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확보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제5조의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자 현황을 통하여 정책 수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삭제/추가 문항에 대한 검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의 문항을 제안하였다. 응답 시 선택할 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문항의 경우 응답 항목의 축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10개 이상의 응답 항목이 제시되었던 문항들의 경우, 응답률이 극히 낮은 것은 응답 항목에서 삭제하고 유사 항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구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정책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의 경우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위 문항을 삭제하여 문항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사로 주양육자와 부양육자 현황을 동시에 담아내고자 응답자가 다른 양육자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응답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응답자에 집중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분석 과정에서 응답의 의미가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응답 방식의 변동이 필요한 것,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문항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조사 항목(안)은 다음과 같다.

【 표 Ⅷ-1 】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항목(안)

영역	본 연구 문항	개선 사항
0. 선문 (온라인 조사/표본 할당 시 필요 문항)	1. 거주지(자치구)	-
	2. 성별	-
	3. 응답자 혼인상태	가구 특성으로 질문 (한부모 가구 할당 ³¹⁾)
	4. 함께 사는 총 자녀수(위탁아동 포함)(두 자녀 이상만 응답)	가구의 총 자녀 수로 개선
	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
I. 자녀 현황	1. 자녀의 일반사항(자녀 순위별 응답)	-
	1-1. 성별	
	1-2. 출생년도	
	1-3. 취학 상태(미취학/초등/중고등)	

영역	본 연구 문항	개선 사항
II. 양육 및 돌봄 실태	1-4. 장애여부	
	1-5. 자녀 유형 : 출산, 입양, 재혼 배우자의 자녀, 위탁자녀	
	1-6. 출산/입양/위탁 이유	
	1-7. 동거 여부	
	1-8. 비동거이유	
	2. 이상적인 자녀수	-
	3. 선호하는 자녀 성별	-
	4. 자녀 수를 늘릴 의향	
	4-1. 방법: 출산, 입양, 위탁양육	
	4-2. 추가 예정 자녀수	-
	4-3. 자녀 추가 희망 이유	
	4-4. 자녀 추가(출산/입양/위탁양육) 예정 시기	
	4-5. 자녀 추가 의향 없는 이유	응답 항목 축소
	5. 미취학 자녀 양육 및 돌봄(자녀 순위별 응답)	
	5-1.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5-1-1. 미취학 자녀의 순위별 연령 5-1-2. 주중 일과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 5-1-3. 주중 저녁-야간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 5-1-4. 주말 및 공휴일에 주로 돌보는 사람	-
5-2. 미취학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 5-2-1. 주중 일과 시간의 공공/민간기관 이용 여부/기관 5-2-2. 주중 저녁 시간의 공공/민간기관 이용 여부/기관 5-2-3. 주말 및 공휴일의 공공/민간기관 이용 여부/기관 5-2-4.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5-2-5.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5-2-6. 월평균 소요 비용	공공/민간 중 한 유형만 이용하는 경우의 이유 문항 추가	
6. 초등학교 자녀의 양육 및 돌봄(자녀 순위별 응답)		
6-1. 초등학교 자녀 방과 후 주로 돌보는 사람 6-1-1. 초등학교 자녀의 순위별 연령 6-1-2. 방과 후 주로 돌보는 사람	-	
6-2. 초등학교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 6-2-1. 방과 후 이용하는 공교육/사교육 기관 6-2-2.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6-2-3.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6-2-4. 월평균 소요 비용	공교육/사교육 중 한 유형만 이용하는 경우의 이유 문항 추가	
7. 중고등학교 자녀의 돌봄 및 교육 현황	-	
7-1. 중고등학교 자녀의 순위별 연령	-	



영역	본 연구 문항	개선 사항
	7-2. 방과 후 이용하는 공교육/사교육 기관	공교육/사교육 중 한 유형만 이용하는 경우의 이유 문항 추가
	7-3.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
	7-4.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7-5. 월평균 소요 비용	
	8. 미성년 자녀의 부양육자(자녀 순위별 응답)	자녀 순위별 응답에서 막내 자녀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질문 방식 개선, 응답 항목 축소
	8-1. 자녀를 주양육자 외에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8-2. 부양육자가 일주일 평균 돌봐주는 일수	
	8-3. 부양육자가 일주일 평균 돌봐주는 시간	
	8-4. 부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	
	9. 성인 자녀의 하는 일	-
	9-1. 성인 자녀의 순위별 연령	
	9-2. 성인 자녀의 현재 하는 일	
	10. 자녀 양육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되었던) 지출 항목	응답 항목 축소
11. 돌봄공백	-	
11-1. 돌봄공백 경험 유무		
11-2. 돌봄공백 대응 방법		
12. 응답자 및 배우자의 산후우울증 진단 경험	응답자 본인만 응답, 산후우울증 진단 받은 자녀의 출생순위 문항 추가	
13. 양육 스트레스 정도(주관적 스트레스 정도, 10점 평점)	양육 스트레스 척도 활용으로 개선	
Ⅲ. 일·생활균형	14.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	-
	14-1. 평일의 가사노동/돌봄노동시간	
	14-2. 주말·공휴일의 가사노동/돌봄노동시간	
	15.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유배우자만 응답)	-
	15-1.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 방식	가사노동 유형 구분 없이 전반적인 가사노동 분담 방식 질문으로 개선, 응답자와 배우자의 분담 비율로 응답 방식 개선
	15-1-1. 요리 및 식사준비	
	15-1-2. 설거지	
15-1-3. 세탁		
15-1-4. 시장보기, 쇼핑		
15-1-5. 집안청소		
15-1-6. 집안의 대소사 관련 업무		
15-2.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	

영역	본 연구 문항	개선 사항
IV. 가족 및 자녀 가치관	16.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유배우자만 응답)	-
	16-1. 돌봄노동 유형별 분담 방식 16-1-1. 일상적 돌봄 16-1-2. 아플 때 병원동행 및 간호 16-1-3. 자녀 학습 관리 16-1-4. 함께 놀아주기 16-1-5. 등하원/등학교 16-1-6. 학교, 돌봄 기관 행사 참여 및 방문	돌봄노동 유형 구분 없이 전반적인 돌봄노동 분담 방식 질문으로 개선, 응답자와 배우자의 분담 비율로 응답 방식 개선(자녀 취학 상태별 응답)
	16-2.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	-
	17. 경제활동 현황	현재 경제활동 하지 않는 응답자의 재취업 의사 및 필요 지원 문항 추가
	17-1. 경제활동 여부	
	17-2. 1일 평균 노동시간	
	17-3. 일 하면서의 어려움: 개인 활동 및 돌봄의 어려움	
	17-4. 첫째 자녀 양육 이후 이직 경험	
	17-5. 경제활동하지 않는 이유	
	18. 응답자와 배우자의 고용 중단 경험	응답자 본인만 응답으로 개선
	18-1. 각 시기별 고용 중단 경험 유무 : 임신, 출산, 영유아 돌봄, 초등학교 입학, 학업 지원, 장애 아/환아 돌봄, 입양 전후 적응 기간 18-2. 일을 그만 둔 이유	
	19. 자녀 돌봄 관련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이용 경험·만족도	-
	19-1. 출산휴가	
	19-2. 육아휴직	
	19-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9-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5. 유연근무제	
	19-6. 가족돌봄휴가	
	20. 일상생활 만족도	문항 순서 변경 (개인-배우자-자녀-가족-일 순서 등)
	20-1. 일과 생활의 균형	
20-2. 배우자와의 관계		
20-3. 자녀와의 관계		
20-4.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		
20-5.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		
20-6. 전반적인 내 자신의 삶		
21. 자녀에 대한 인식	자녀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으로 통합하여 문항	
21-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영역	본 연구 문항	개선 사항	
	21-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축소. 현재의 가족관계 다양성, 자녀 양육의 긍정적 측면 등을 포함하여 문항 개선	
	21-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1-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2. 가족 간 부양에 대한 인식		
	22-1.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가능한 모시고 살아야 한다.		
	22-2.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22-3. 부모는 자녀가 상인이 되어서도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22-4. 부모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야한다.		
	22-5.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손자녀 돌봄 포함)		
	23. 다자녀 가구를 보는 우리 사회 인식에 대한 평가	V영역으로 이동	
V. 사회·지역에 대한 인식	24.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차별 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개선	
	24-1.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24-2. 우리 사회는 빈부에 따른 차별이 없다.		
	24-3.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		
	24-4.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4-5. 우리 사회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안전하다.		
		24-6.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삭제 (사유: 지역 사회 안전과 유사)
	25. 지역 사회의 안전	먹거리 안전 삭제 (사유: 타 안전 항목과 차원 상이, 현재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 안전 관련 항목만 있어 인프라 이용 편리성 문항 추가	
	25-1. 우리 동네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의 범죄위험에서 안전하다.		
	25-2. 우리 동네의 먹거리는 안전하다.		
25-3. 우리 동네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			
25-4.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 등에서 안전하다.			
25-5. 우리 동네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안전하다 (붕괴위험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			
25-6. 우리 동네는 공공기관이나 길거리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25-7. 우리 동네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26.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	동의/미동의 이유의 응답 항목 축소		
26-1. 동의하지 않는 이유			
	26-2. 동의하는 이유		
	27. 자녀 양육을 이유로 지역 이동 경험	-	
	27-1. 이동의 유형		
	28. 자녀 양육을 이유로 지역 이동 계획	-	

영역	본 연구 문항	개선 사항
	28-1. 이동을 계획하는 이유	응답 방식 변경 (순위 응답→각 항목의 중요도 평가)
	29.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사회환경의 중요 조건	
Ⅵ. 정책 평가 및 수요	30.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여부, 활용경험, 만족도	30-4. 삭제 (사유: 응답자마다 이용 정책 상이)
	30-1. 인지여부	
	30-2. 이용 경험	
	30-3. 만족도	
	30-4. 가장 도움이 된 정책	
	31.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여부, 활용경험, 만족도	31-4. 삭제 (사유: 응답자마다 이용 정책 상이)
	31-1. 인지여부	
	31-2. 이용 경험	
	31-3. 만족도	
	31-4. 가장 도움이 된 정책	
	32. 다자녀 양육 중 가장 큰 어려움	응답 항목 축소, 응답 방식 변경 (주된 어려움 응답→각 항목별 어려움 평가)
	33.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점증지원 필요성	삭제 (사유: 주기적 조사 필요성이 낮음)
34. 확대 필요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응답 방식 변경 (순위 응답→각 항목별 필요성 평가)	
Ⅶ. 다동이행복 카드 이용 현황	35. 다동이행복카드 인지 여부	삭제 (사유: 다동이행복카드 사업에서 자체 조사 검토 제안)
	35-1. 인지 경로	
	35-2. 발급 경험	
	35-3. 이용 경험	
	35-4. 만족도	
	35-5. 월평균 이용 횟수	
	35-6. 주로 이용하는 곳	
	35-7. 월평균 결제 금액	
36. 발급자가 이용하지 않는 이유		
Ⅷ. 주거 현황	37. 주거지 현황	-
	37-1. 주택 유형	응답 항목 축소



영역	본 연구 문항	개선 사항
	37-2. 주택 점유 형태	응답 항목 축소
	37-3. 주택 관련 부채 여부	
	37-4. 월평균 주거비용	불만족 사유 문항 추가
	37-5.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38. 응답자(개인) 일반 사항	
38-1. 출생연도	-	
38-2. 응답자 또는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여부		
38-3. 장애 여부		
38-4. 최종학력		
38-5. 경제활동 참여자의 고용 형태		
38-6. 경제활동 참여자의 직업		
38-7. 월평균 개인소득(세후)		
IX. 응답자 일반 현황	39. 가구 일반 현황	-
	39-1. 가구원 수 및 함께 사는 사람	
	39-2. 맞벌이 여부	
	39-3.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39-4. 월평균 가구 지출	
	39-5. 주관적 계층 인식	
	39-6. 자녀 외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유무	
	39-7. 이주배경 가구원 여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하고 가독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를 가구에 대한 응답과 양육자에 대한 응답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표를 가구에 대한 문항과 개인에 대한 문항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조사와 분석 모두에서 유용할 것이다. 현재 제안한 실태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가구와 개인 응답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래 표와 같다.

31) 2021년 기준, 서울시에 18세 이하 자녀가 거주하는 가구수는 총 785,311가구이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수는 총 51,430가구로 18세 이하 유자녀 가구의 6.7%를 차지한다(통계청, 2021).

Ⅰ 표 Ⅷ-2 Ⅰ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단위 구분(안)

구분	영역
가구 단위 분석	I. 자녀 현황 : 자녀의 일반사항: 자녀 순위별 특성(성별, 출생연도, 취학 상태 등) II. 양육 및 돌봄 실태 : 자녀 취학상태별 돌봄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성인 자녀 현황 VI. 정책 및 수요 VIII. 주거 현황 IX. 일반 현황(가구)
개인 응답 분석	I. 자녀 현황 : 이상적 자녀 수, 선호 성별, 자녀 추가 의향 등 II. 양육 및 돌봄 실태 : 응답자의 산후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 III. 일·생활 균형 IV. 가족 및 자녀 가치관 V. 지역 및 사회에 대한 인식 IX. 일반 현황(개인)

(4) 실태조사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 강화: 조례 개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7조(실태조사 등)는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례 개선은 손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 조례 개선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하는 가족 개념 반영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다자녀 ‘가족’을 ‘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족, 다자녀 가정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용어는 법적 의미의 가족에 준하여 통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법적 의미의 혈연 가족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고자 한 의도이다. 예컨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가구 단위로 지원되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다자녀 가족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이 다자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면 실질적인 양육자를 지원하고, 가구 단위로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중앙정부의 「가족실태조사」³²⁾와 「한부모가족실태조사」³³⁾는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를 통해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각 법의 시행규칙을 통해 조사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주기와 내용을 관련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대다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조의 ‘다자녀 가족 지원’에 서울시의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제7조의 ‘실태조사 등’에 조사의 주기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제2항 신설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을 명시한다면, 향후 실태조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2)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2020년 5월 19일 개정).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에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2항: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를 통해 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2017년 12월 12일 개정).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1항: 1.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 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태조사의 향후 과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목적)). 이러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 특화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양육자에게 확대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서울시 양육지원 정책의 목적은 서울시의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양육자의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해소의 기본 요건으로 지적되는 공공돌봄 정책 확대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실태조사의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 제한하지 않고 전체 양육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자녀 양육 및 양육 가구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다. 현황 파악을 통해 근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 자녀 가구보다 더 많은 돌봄과 양육비용 등이 요구되지만, 한정된 돌봄 자원으로 인해 양육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특정 자녀 수에 국한될 경우, 한 자녀가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즉, 한 자녀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비교할만한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녀 수에 한정하지 않는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녀 양육과 양육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다자녀에 따른 돌봄 부담 및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돌봄과 공교육 인프라 확충, 양육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다자녀 양육자들은 자녀가 자라면서 더 많이 소요되는 교육비와 주거 및 생활비가 다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으며, 일과 직장 생활 병행 어려움과 돌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다. 다자녀 양육에 따른 가구지출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교육비용과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당하였는데, 이는 공교육 강화 정책과 주택비용 안정 등 기본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필요로 한다.

양육자들의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는 다자녀 양육과 주거 유지 등의 지출 규모가 가구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인프라 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교육과 주택시장,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성장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양하다는 점,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부담의 어려움은 양육자의 경제활동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공교육 인프라의 확대를 통한 교육비용 절감, 자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돌봄 지원 인프라 확장,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출산, 양육, 돌봄으로 고용 단절과 임금 하락 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분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관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이 더 불안정하고, 이직 횟수도 증가하며, 특히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만을 볼 때는 자녀 수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두 자녀 가구와 세 자녀 가구 모두 맞벌이 비율은 56.6%), 경제활동 중인 양육자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자녀 수가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나타난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응답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두 자녀 가구 응답자보다 높았으며(두 자녀 8.6%, 세 자녀 이상 18.4%), 여성 응답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여성 11.8%, 남성 7.4%). 또한,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세 자녀 이상 양육자가 두 자녀 양육자보다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자가 두 자녀 가구 양육자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양육자의 고용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고용 단절 및 이직 경험을 통해 확인되는데, 여성들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0.3%가 출산과 양육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한 번 이상 이직한 직장이라는 응답이 남성보다 많았다. 자녀 수로 보면,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경우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라는 응답이 30.3%이나 두 자녀 응답자는 46.9%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취업 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에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제5조 시장의 책무) 명시하고 있어, 관련 서울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취업 지원과 함께 다자녀 양육자의 고용 단절을 예방하는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돌봄 지원 확대와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의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양성평등한 돌봄 참여를 목표로 한 양육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경제활동 중인 양육자의 취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와 돌봄 분담에 대하여, 대부분 영역에서 여성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높지만 분담 만족도는 남성이 더 높았다. 이는 남성이 더 적게 가사와 돌봄노동을 하면서 자기분담 비율에 만족하는 반면, 여성은 더 많은 가사와 돌봄노동을 수행하며, 배우자와의 분담에 불만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요구되어 다른 양육자와의 분담이 필요하지만,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여성의 수행 비율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녀 수가 적은 응답자의 배우자와의 분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강혜진,



2009; 정은희·최유석, 2013). 양성평등한 돌봄 참여를 목표로 양육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과 양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과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은 다자녀 가구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한 자녀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두드러진 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자녀 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의 상당 부분에서 자녀의 연령대가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자녀가 어릴수록 양육이 어려움)은 자녀의 취학 특성에 맞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유아 돌봄의 어려움은 다자녀 가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모든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가사와 돌봄, 그로 인한 양육자의 삶의 질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정책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양육자 관점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상 중이다. 서울시를 양육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는 양육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요를 진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 자녀 가구를 포함하여 자녀 수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하라·문정희·박지영, 2021, 「부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강혜진, 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민권익위원회, 2019.09.23.,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결서)」.
- 교육부, 2021,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09.15.,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보도자료」.
- 박경자·전혜정·김은영·김지현·장수지, 2008.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 배은경, 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3(2), 37-75.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 서정연·김한곤, 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37(3), 318-342.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 염주희·주영선·정승은, 2013. 「다자녀 가정의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분석에 관한 연구: 혼합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3(1), 35-77.
- 안재진, 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 이명석·김근서·김대근, 201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149-174.
-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운진, 윤지연, 염혜경,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혜경, 2011.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양육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15(6), 377-406.
- 정성호, 2012,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정은희·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 최옥채, 2019, 「다자녀 가정 부부의 양육경험」, “2019 제16차 아동복지포럼-초저출산 사회, 가

족가치의 재발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발표문.

최은아,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7(4), 193-219.

최효미·박은정·엄지원, 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 2017, 「인구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_____, 2020, 「인구주택총조사」.

_____, 2020, 「인구동향조사」.

_____,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조례 검색)(<https://legal.seoul.go.kr>)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검색)(<https://www.law.go.kr>)

Abstrac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ulti-Child Families Survey and Policy Tasks

Eunae Kang

(Research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Yihae Nam

(Research Assistant,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rengthened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multi-child families by revising the ordinance in 2020. The ordinance stipulates that a fact-finding survey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policy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Article 7). This study prepared a systematic fact-finding survey based on the ordinance. To this end, the subjects and items of the survey of multi-child families in Seoul were selected,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methods for future surveys (sampling method, number of samples, survey items, survey methods, etc.)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eoul's multi-child families support policy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was suggested.

The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fact-finding surve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uggested that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hild families should be conducted by household, not by legal family. Accordingly, the sampling target was recommended to be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among households with one or more children under 18, as indicated by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ince estimating the number of multi-child families based on legal families is nearly impossible and inaccurate, a household-level survey shall be conducted. To establish a policy in which

no children are excluded due to legal statuses, such as remarriage families that have not registered their marriage and foster families that take in a foster child or children into their hom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and policy target in the household unit.

Second, the fact-finding survey shall include the child status, the perceptions of the parents(caregivers) about their children and families, work and economic activities, the work-life balance, the housing status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the policy experiences, and the policy demands. Considering various family types, the method of questioning should not only represent biological children and married families. For example, it was suggested to avoid the method of asking only about additional births to add children.

Third, considering the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distribution of single-parent, it is necessary to secure at least 2,000 to 2,500 samples to secure a sufficient number of samples. The margin of error was established through expert advice and statistical calculation methods. As a result, such a sample size needs to be secured for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roups. If a single-child family is included as a comparison group, the sample must be larger than 3,000.

Fourth, securing a budget for a stable fact-finding survey is necessary. Samples of around 2,500 are investigated, and face-to-face surveys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an adequate sample size. Since a considerable budget is required, guaranteeing a budget and preparing a system that enables stable surveys is necessary.

Lastly, securing the execution power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is necessary to increase policy utilization by periodically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Currently, the relevant ordinanc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ate that the survey can be carried out but do not specify the frequency and content of the survey. The period of the central government's similar fact-finding survey is set at three years, and the contents of the survey are also specified through the enforcement rules. Therefore, the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the fact-finding survey's execution by improving the ordinance.

Based on the study results, a direction for improving Seoul's multi-child families support policy was proposed.

First, policies that assist in expanding childcare support, public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parents(caregivers) job retention schemes must be highlighted to help multi-child famili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was found to raise the cost of care and dependence on private tutoring or private car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made it difficult for parents(caregivers)(especially women) to maintain jobs. As economic activity becomes more difficult, the burden of child-rearing and housing costs is high among multi-child parents(caregivers); therefore, policies based on real life should be formulated.

Seco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aiming at gender-equal participation in care are required. As the number of children increases, the burden of care increases, and human resources to support childcare are necessary. However the rise in the number of children resulted in a higher proportion of care for mother. As a result,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 was high. Without gender-equal participation in care, raising children will be an avoidable task for female car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mid to long-term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rents(caregivers) and childcare support.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improve the caring environment and create a city where multi-child families can live pleasantly, a long-term perspective is requir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lose and systematic policies not only with family policies and care policies but also with housing policies,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ies, and job policies.

Key words: a multi-child families, a multi-child support, a care support policy, a caregivers support policy

부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1]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실태조사 결과

1.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실태조사 개요³⁴⁾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현황 조사를 시행하였음.
- 조사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정도와 인지 경로,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는 양육자의 발급 및 이용 경험(이용 만족도, 빈도, 이용 영역 및 평균 결제금액)
 - 다둥이행복카드 미발급 및 미이용자의 미발급/미이용 사유를 조사함.

▮ 부표 1 ▮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실태조사 내용

항목	세부 항목
1.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정도 및 인지 경로	-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2.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경험	- 발급 경험 및 이용경험 여부 -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 - 월평균 이용 빈도 - 주로 이용하는 영역 - 월평균 이용 결제금액
3. 다둥이행복카드 미발급/미이용 이유	- 다둥이행복카드 인지자 중 미발급/미이용 이유

2.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정도 및 인지 경로

□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정도

- 조사 결과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73.5%, ‘모른다’라는 응답은 26.5%로 나타남.

34) 분석 결과 제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99.9 또는 100.1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여성 응답자의 74.9%가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응답자는 65.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배우자의 74.5%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64.7%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함.
-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78.8%)인 경우 막내 자녀가 미취학(70.3%)이거나 중고등학생(71.1%)인 경우보다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음.
- 자녀 수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78.2%가 알고 있고, 두 자녀 응답자의 72.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1】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다'(전체 응답)

【부표 2】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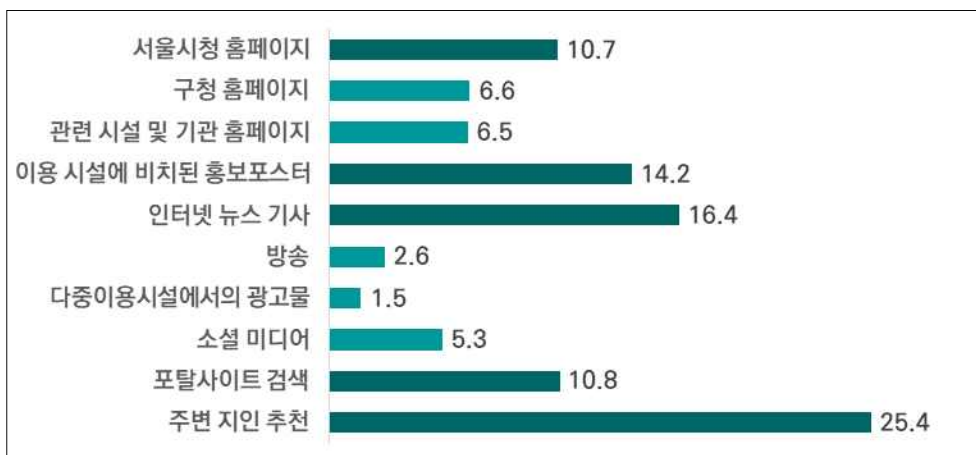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빈도	알고 있다	모른다	$\chi^2(df)$
전체		1,005	73.5	26.5	-
응답자 성별	여성	854	74.9	25.1	5.799* (1)
	남성	151	65.5	34.4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03	74.5	25.5	4.544* (1)
	배우자_무	102	64.7	35.3	
자녀 수	2명	776	72.2	27.8	3.272 (1)
	3명 이상	229	78.2	21.8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400	70.3	29.8	8.117* (2)
	초등학생	363	78.8	21.2	
	중고등학생	242	71.1	28.9	

* $p < .05$, ** $p < .01$, *** $p < .001$

□ 다동이행복카드 인지 경로

- 다동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739명을 대상으로 다동이행복카드를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5.4%로 가장 높았음. 인터넷 뉴스 기사(16.4%), 병원 등 이용 시설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14.2%), 포털사이트 검색(10.8%), 서울시청 홈페이지(10.7%), 구청 홈페이지(6.6%), 관련 시설 및 기관 홈페이지(6.5%),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광고물(1.5%), 방송(2.6%), 소셜 미디어(5.3%)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음.



(단위: %)

■ 그림 2 ■ 다동이행복카드 인지 경로(전체 응답)

- 응답 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응답자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미취학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남(미취학 13.5%, 초등학생 14.7%, 중고등학생 23.8%).
-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병원을 포함하여 이용 시설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17.8%).

부표 3 |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경로

(단위 : 명, %)

구분		빈도	서울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시설 홈페이지	이용 시설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	인터넷 뉴스 기사
전체		739	10.7	6.6	6.5	14.2	16.4
응답자 성별	여성	640	10.8	6.6	6.1	14.8	15.6
	남성	99	10.1	7.1	9.1	10.1	21.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673	10.5	6.1	6.7	14.3	16.0
	배우자_무	66	12.1	12.1	4.5	13.6	19.7
자녀수	2명	560	9.4	6.6	6.8	14.5	16.1
	3명 이상	179	14.5	6.7	5.6	13.4	17.3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281	11.7	5.7	6.0	17.8	13.5
	초등학생	286	8.7	7.0	7.3	16.1	14.7
	중고등학생	172	12.2	7.6	5.8	5.2	23.8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4 | 다둥이행복카드 인지 경로(계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방송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및 옥외 광고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 하다가	포털 사이트 검색	주변 지인 추천	χ^2 (df)
전체		739	2.6	1.5	5.3	10.8	25.4	-
응답자 성별	여성	640	2.5	1.4	5.9	10.2	26.1	11.288 (9)
	남성	99	3.0	2.0	1.0	15.2	21.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673	2.5	1.6	5.3	11.3	25.6	7.136 (9)
	배우자_무	66	3.0	0.0	4.5	6.1	24.2	
자녀수	2명	560	3.0	1.8	5.7	9.8	26.3	10.687 (9)
	3명 이상	179	1.1	0.6	3.9	14.0	22.9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281	2.1	1.4	6.8	10.7	24.2	43.065 *** (18)
	초등학생	286	1.0	1.7	5.2	13.6	24.5	
	중고등학생	172	5.8	1.2	2.9	6.4	29.1	

* $p < .05$, ** $p < .01$, *** $p < .001$

3.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경험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경험

○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739명 중 실제로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응답자는 66.6%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의 65.9%, 남성 응답자의 70.7%가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77.7%가 발급받은 경험이 있어 두 자녀 가구(63.0%)보다 높았음.



(단위: %)

【그림 3】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경험 '있다'(전체 응답)

【부표 5】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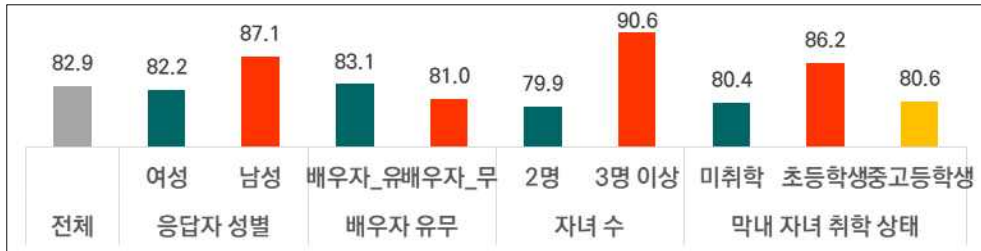
구분		빈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739	66.6	33.4	-
응답자 성별	여성	640	65.9	34.1	.877
	남성	99	70.7	29.3	(1)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673	66.9	33.1	.282
	배우자_무	66	63.6	36.4	(1)
자녀 수	2명	560	63.0	37.0	13.026***
	3명 이상	179	77.7	22.3	(1)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281	67.3	32.7	18.180***
	초등학생	286	73.4	26.6	
	중고등학생	172	54.1	45.9	

* $p < .05$, ** $p < .01$, *** $p < .001$

□ 다동이행복카드 이용 경험

○ 다동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492명 중 82.9%는 다동이행복카드를 이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90.6%)가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79.9%)보다 카드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로 볼 때,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의 이용률이 다른 취학 상태의 자녀보다 높았음(미취학 80.4%, 초등학교 86.2%, 중고등학교 80.6%).



(단위: %)

▮ 그림 4 ▮ 다동이행복카드 이용 경험 '있다'(전체 응답)

▮ 부표 6 ▮ 다동이행복카드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492	82.9	17.1	-
응답자 성별	여성	422	82.2	17.8	1.025 (1)
	남성	70	87.1	12.9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450	83.1	16.9	.126 (1)
	배우자_무	42	81.0	19.0	
자녀 수	2명	353	79.9	20.1	8.157** (1)
	3명 이상	139	90.6	9.4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89	80.4	19.6	2.759 (2)
	초등학교	210	86.2	13.8	
	중고등학교	93	80.6	19.4	

* $p < .05$, ** $p < .01$, *** $p < .00$

- 다둥이행복카드의 이용 빈도는 월 1회(70.4%)가 가장 많았고, 월 2회(13.9%), 월 4회 이상(11.5%), 월 3회(4.2%)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 4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18.3%로 자녀가 2명(8.5%)인 경우보다 많았고, 자녀가 2명이 경우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75.5%로 3명 이상인 가구(58.7%)보다 많았음.

Ⅰ 부표 7Ⅰ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빈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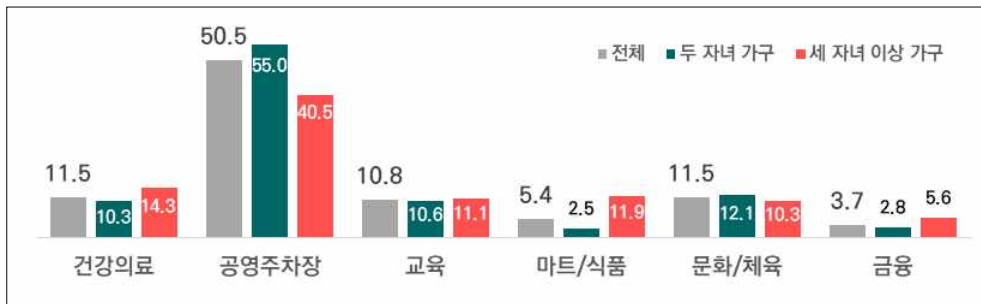
구분		빈도	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이상	$\chi^2(df)$
전체		408	70.4	13.9	4.2	11.5	-
응답자 성별	여성	347	69.5	13.8	4.3	12.4	1.962 (3)
	남성	61	75.4	14.8	3.3	6.6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374	70.6	14.2	4.0	11.2	.756 (3)
	배우자_무	34	67.6	11.8	5.9	14.7	
자녀 수	2명	282	75.5	13.1	2.8	8.5	15.020** (3)
	3명 이상	126	58.7	15.9	7.1	18.3	
막내자녀 취업상태	미취학	152	65.1	16.4	5.9	12.5	4.965 (6)
	초등학생	181	73.5	12.2	3.9	10.5	
	중고등학생	75	73.3	13.3	1.3	12.0	

* $p < .05$, ** $p < .01$, *** $p < .001$

- 다둥이행복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11.5%), 건강/의료(11.5%), 교육(1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 모두 공영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여성 49.6%, 남성 55.7%)하였음. 여성 응답자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사용처가 건강/의료인 것(12.1%)과 달리 남성 응답자는 교육으로 나타남(16.4%).
 -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 모두 공영주차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51.9%,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5.3%로 비율

의 격차가 있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마트/식품, 문화/체육 등의 영역에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응답률이 높았음

-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주된 이용처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마트/식품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11.9%로 자녀가 2명인 경우(2.5%)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특징을 보였음.
-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건강/의료가 주된 사용처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막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과 문화/체육이 주된 사용처라는 응답이 높았음.



(단위: %)

그림 5 | 다동이행복카드 주된 사용처

*응답률 3% 이상만 표기

부표 8 | 다동이행복카드 주된 사용처

(단위 : 명, %)

구분	빈도	건강/의료	공영 주차장	교육	도서/문구	도서관	마트/식품	
전체	408	11.5	50.5	10.8	1.5	1	5.4	
응답자 성별	여성	347	12.1	49.6	9.8	1.4	1.2	4.9
	남성	61	8.2	55.7	16.4	1.6	0	8.2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374	11.5	51.9	10.7	1.3	0.8	5.1
	배우자_무	34	11.8	35.3	11.8	2.9	2.9	8.8
자녀 수	2명	282	10.3	55	10.6	1.8	0.7	2.5
	3명 이상	126	14.3	40.5	11.1	0.8	1.6	11.9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52	18.4	50	6.6	2.6	2	3.3
	초등학생	181	9.9	52.5	11.6	0.6	0.6	7.2
	중고등학생	75	1.3	46.7	17.3	1.3	0	5.3

부표 9 | 다동이행복카드 주된 사용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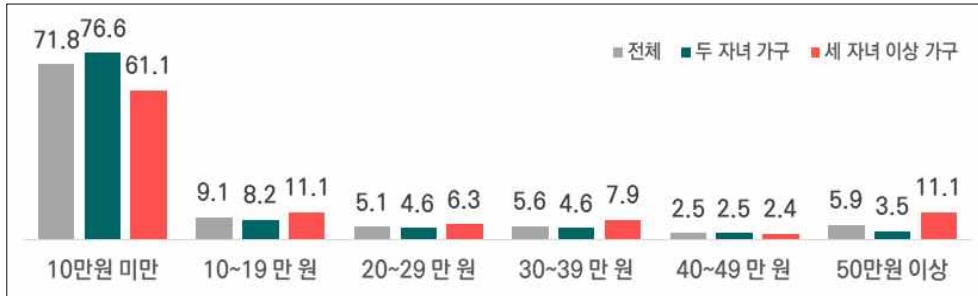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빈도	문화/체육	생활/금융	외식	청소년 시설	출산/육아	t/F(df)
전체		408	11.5	3.7	1.5	1.5	1.2	
응답자 성별	여성	347	11.8	4.3	1.7	1.7	1.4	10.736 (10)
	남성	61	9.8	0	0	0	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374	11.2	3.5	1.3	1.3	1.3	6.905 (10)
	배우자_무	34	14.7	5.9	2.9	2.9	0	
자녀 수	2명	282	12.1	2.8	1.8	1.1	1.4	24.294** (10)
	3명 이상	126	10.3	5.6	0.8	2.4	0.8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52	9.2	2.6	2.6	0	2.6	46.319*** (20)
	초등학생	181	12.2	3.9	0.6	1.1	0	
	중고등학생	75	14.7	5.3	1.3	5.3	1.3	

* $p < .05$, ** $p < .01$, *** $p < .001$

○ 다동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월평균 금액은 1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71.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0~19만 원(9.1%), 50만 원 이상(5.9%), 30~39만 원(5.6%), 20~29만 원(5.1%), 40~49만 원(2.5%)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 모두 1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71.5%와 73.8%로 가장 많았는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월평균 20만 원 이상 결제한다는 응답률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높았음.
- 자녀 수는 적을수록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10만 원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61.1%로 2명인 응답자보다(76.6%) 15.5%p 적었으며,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 월평균 50만 원 이상 결제한다는 응답은 11.1%로 2명인 응답자의 3.5%의 3.2배로 나타남.



(단위: %)

【그림 6】 다등이행복카드 월평균 결제금액

【부표 10】 다등이행복카드 월평균 결제금액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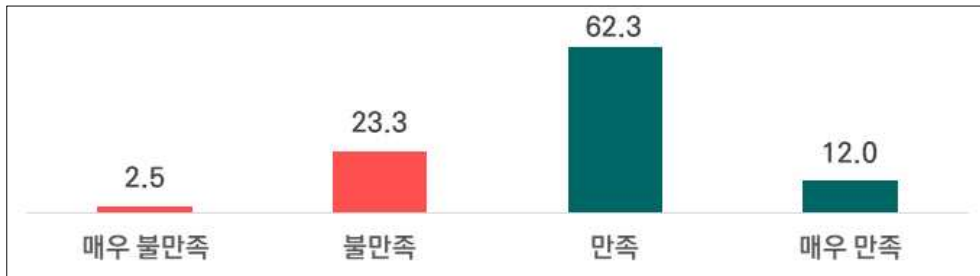
구분		빈도	10만 원 미만	10~19 만 원	20~29 만 원	30~39 만 원	40~49 만 원	50만 원 이상	χ^2 (df)
전체		408	71.8	9.1	5.1	5.6	2.5	5.9	-
응답자 성별	여성	347	71.5	8.6	5.8	5.8	2.0	6.3	4.884 (5)
	남성	61	73.8	11.5	1.6	4.9	4.9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374	73.0	9.1	4.5	5.3	2.4	5.6	5.280 (5)
	배우자_무	34	58.8	8.8	11.8	8.8	2.9	8.8	
자녀 수	2명	282	76.6	8.2	4.6	4.6	2.5	3.5	14.444* (5)
	3명 이상	126	61.1	11.1	6.3	7.9	2.4	11.1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52	73.7	9.9	4.6	4.6	2.6	4.6	7.517 (10)
	초등학생	181	69.6	9.9	4.4	5.5	3.3	7.2	
	중고등학생	75	73.3	5.3	8.0	8.0	0.0	5.3	

* $p < .05$, ** $p < .01$, *** $p < .001$

□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만족도

○ 다둥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4.3%는 카드 사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4점 만점 중 2.84점).

- 응답자의 성별,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여성 2.87점, 남성 2.67점),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2.86점)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2.56점)보다 만족도가 높았음.
-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취학 상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단위: %)

【그림 7】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만족도(전체 응답)

【부표 11】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t/F(df)
전체		408	2.5	23.3	62.3	12.0	2.84	-
응답자 성별	여성	347	1.7	22.8	62.5	13.0	2.87	2.165*(3)
	남성	61	6.6	26.2	60.7	6.6	2.67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374	1.9	23.0	62.0	13.1	2.86	2.626**(3)
	배우자_무	34	8.8	26.5	64.7	0.0	2.56	
자녀 수	2명	282	2.1	23.8	60.6	13.5	2.86	.758(3)
	3명 이상	126	3.2	22.2	65.9	8.7	2.8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152	2.6	22.4	62.5	12.5	2.85	.158(3)
	초등학생	181	2.8	23.2	60.8	13.3	2.85	
	중고등학생	75	1.3	25.3	65.3	8.0	2.80	

* $p < .05$, ** $p < .01$, *** $p < .001$

○ 다둥이행복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혜택이 적어서 (60.0%)가 가장 많았고,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39.0%)로 나타남.

- 응답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배우자 유무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혜택(할인 금액 등)이 적어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1.3%였으며,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라는 응답은 38.7%로 나타났음. 반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혜택(할인 금액 등)이 적어서'라는 응답은 50.0%,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라는 응답은 41.7%로 나타남.

▣ 부표 12 ▣ 다둥이행복카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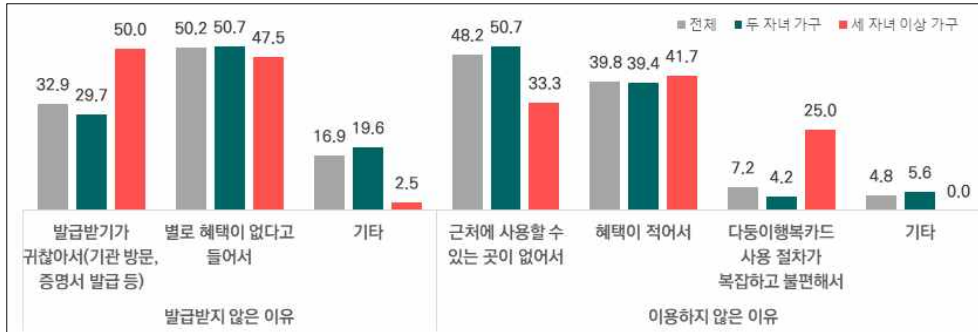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빈도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	혜택(할인 금액 등)이 적어서	카드 이용 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χ^2 (df)
전체 ¹⁾		105	39.0	60.0	1.0	-
응답자 성별	여성	85	40.0	58.8	1.2	.442 (2)
	남성	20	35.0	65.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93	38.7	61.3	0.0	8.000* (2)
	배우자_무	12	41.7	50.0	8.3	
자녀 수	2명	73	41.1	57.5	1.4	.938 (2)
	3명 이상	32	34.4	65.6	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8	31.6	65.8	2.6	5.073 (4)
	초등학생	47	48.9	51.1	0.0	
	중고등학생	20	30.0	70.0	0.0	

주: 1) 다둥이행복카드 이용 만족도 문항에 매우 불만족, 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만 응답

* $p < .05$, ** $p < .01$, *** $p < .001$

4. 다둥이행복카드 미발급 및 미이용 이유



(단위: %)

【그림 8】 다둥이행복카드 미발급 및 미사용 이유

□ 다둥이행복카드 미발급 이유

○ 다둥이행복카드를 알고 있지만 발급받지 않은 이유로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들어서’가 50.2%로 가장 많았고, ‘발급받기 귀찮아서’(32.9%), ‘기타’(16.9%) 순이었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남성 응답자의 경우 ‘별로 혜택이 없다고 들어서’ 발급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65.5%로 여성(48.2%)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47.5%가 ‘별로 혜택이 없다고 들어서’ 미발급했다고 응답하였으며, 50.0%는 ‘발급받기가 귀찮아서’라고 응답함. 자녀 수가 2명인 응답자의 ‘기타’ 응답 비율은 19.6%로 높았는데, ‘두 자녀도 다자녀인지 몰라서’ 발급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두 자녀 ‘기타’ 응답자의 56.7%).

부표 13 | 다동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발급받기가 귀찮아서(기관 방문, 증명서 발급 등)	별로 혜택이 없다고 들어서	기타	$\chi^2(df)$
전체		249	32.9	50.2	16.9	-
응답자 성별	여성	220	34.5	48.2	17.3	3.211 (2)
	남성	29	20.7	65.5	13.8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224	32.1	49.6	18.3	3.336 (2)
	배우자_무	25	40.0	56.0	4.0	
자녀수	2자녀 가구	209	29.7	50.7	19.6	10.117*** (2)
	3자녀 이상	40	50.0	47.5	2.5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93	35.5	54.8	9.7	9.916** (4)
	초등학생	77	29.9	54.5	15.6	
	중고등학생	79	32.9	40.5	26.6	

* $p < .05$, ** $p < .01$, *** $p < .001$

□ 다동이행복카드 미사용 이유

○ 다동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48.2%), 혜택이 적어서(39.8%), 다동이행복카드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7.2%), 기타(4.8%)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는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51.4%)가 가장 높았던 반면 남성 응답자는 ‘혜택이 적어서’(77.8%)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두 자녀 가구 응답자는 ‘근처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없어서’(50.7%)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응답자는 ‘혜택이 적어서’(41.7%)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부표 14】 다둥이행복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혜택이 적어서	다둥이행복카드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기타	$\chi^2(df)$
전체		83	48.2	39.8	7.2	4.8	-
응답자 성별	여성	74	51.4	35.1	8.1	5.4	6.299* (3)
	남성	9	22.2	77.8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_유	75	48.0	42.1	5.3	4.0	6.612* (3)
	배우자_무	8	50.0	12.5	25.0	12.5	
자녀 수	2자녀 가구	71	50.7	39.4	4.2	5.6	7.46* (3)
	3자녀 이상	12	33.3	41.7	25.0	0.0	
막내 자녀 취학 상태	미취학	37	43.2	37.8	8.1	10.8	5.832 (6)
	초등학생	29	55.2	37.9	6.9	0.0	
	중고등학생	17	47.1	47.1	5.9	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2] 조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507호, 2020. 3. 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 교육, 취업·창업, 문화·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7507호, 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3] 설문지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법 33조에 의해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사주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돌봄정책연구팀
- 조사수행기관 : (주)케이디앤리서치

SQ1 귀하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 ㉖ 그 외 지역 (→ **설문 중단**)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SQ3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비혼/미혼 ② 유배우(법률혼 외 동거 등 포함)
- ③ 별거 중 ④ 이혼 ⑤ 사별

SQ4 현재 귀하와 함께 사는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자녀: 출산, 입양,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 동거 중인 경우, 위탁자녀를 포함, 임신 중인 경우 자녀 수에서 제외)

총 자녀수 ()명 *0~1명 **설문 중단**

- ⑥ 자녀가 있어야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아서
- ⑦ 주변에서 권해서
- ⑧ 그냥 생겨서
- ⑨ 아이를 좋아해서
- ⑩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⑪ 친인척의 자녀여서(친인척이 부탁해서) (입양/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⑫ 기관/시설의 요청/부탁으로 (입양/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⑬ 기타()

문1-7 첫째 자녀와 현재 동거중이십니까?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동거
- ② 비동거 (문1-8도 응답)

문1-8 첫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가 멀어서 자녀가 기숙사, 하숙/자취, 친척집에서 거주 중
- ②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
- ③ 재혼하여 전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
- ④ 자녀가 해외 유학 중
- ⑤ 자녀의 가출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 ⑥ 내가 현재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 맡김
- ⑦ 군입대
- ⑧ 기타()

※ 둘째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둘째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문1-2 둘째 자녀의 출생년도를 적어주세요

()년

문1-3 둘째 자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미취학
- ② 초등학생
- ③ 중학생
- ④ 고등학생
- ⑤ 성인(대학생 포함)

문1-4 둘째 자녀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있음 학생
- ③ 없음

- ⑫ 더 출산 하고 싶지만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서(입양/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⑬ 친인척의 자녀여서(친인척이 부탁해서)(입양/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⑭ 기관/시설의 요청/부탁으로(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⑮ 기타()

문1-7 넷째 자녀와 현재 동거중이십니까?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동거
- ② 비동거 (문1-8도 응답)

문1-8 넷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가 멀어서 자녀가 기숙사, 하숙/자취, 친척집에서 거주 중
- ②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
- ③ 재혼하여 전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
- ④ 자녀가 해외 유학 중
- ⑤ 자녀의 가출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 ⑥ 내가 현재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 맡김
- ⑦ 군 입대
- ⑧ 기타()

※ 다섯째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다섯째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문1-2 다섯째 자녀의 출생년도를 적어주세요

()년

문1-3 다섯째 자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미취학
- ② 초등학생
- ③ 중학생
- ④ 고등학생
- ⑤ 성인(대학생 포함)

문1-4 다섯째 자녀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있음 학생
- ③ 없음

문1-5 다섯째 자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출산자녀
- ② 입양 자녀
- ③ 재혼 배우자의 자녀
- ④ 위탁자녀 (문1-5-1도 응답)

문1-6 다섯째 자녀를 출산/입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 ②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 ③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④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 ⑤ 다른 가족들이 원해서
- ⑥ 종교적인 이유로(피임, 인공임신중절 반대 등)
- ⑦ 자녀가 많아야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아서
- ⑧ 주변에서 권해서
- ⑨ 그냥 생겨서
- ⑩ 아이를 좋아해서
- ⑪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⑫ 더 출산 하고 싶지만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서(입양/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⑬ 친인척의 자녀여서(친인척이 부탁해서)(입양/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⑭ 기관/시설의 요청/부탁으로(위탁자녀 선택 시에만)
- ⑮ 기타()

문1-7 다섯째 자녀와 현재 동거중이십니까?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동거
- ② 비동거 (문1-8도 응답)

문1-8 다섯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가 멀어서 자녀가 기숙사, 하숙/자취, 친척집에서 거주 중
- ②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
- ③ 재혼하여 전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
- ④ 자녀가 해외 유학 중
- ⑤ 자녀의 가출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 ⑥ 내가 현재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 맡김
- ⑦ 군 입대
- ⑧ 기타()

문2 귀하께서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명
- ② 생각해보지 않음

문3 귀하는 선호하는 자녀 성별이 있습니까?

- ① 여아 선호
- ② 남아 선호
- ③ 선호 없음
- ④ 생각해보지 않음

문4 귀하는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문4-5로 이동)
- ③ 생각해 본 적 없음(→ 문7로 이동)

문4-1 귀하가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리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① 출산
- ② 입양
- ③ 위탁아동

문4-2 귀하의 출산/입양/위탁 예정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예정 자녀 수 ()명

문4-3 귀하가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 ②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 ③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④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 ⑤ 다른 가족들이 원해서
- ⑥ 종교적인 이유로
- ⑦ 자녀가 많아야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아서
- ⑧ 사회가 다자녀 가족을 권장하고 있어서
- ⑨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⑩ 더 출산을 하고 싶지만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서(입양/위탁아동 선택 시에만)
- ⑪ 기타()

문4-4 귀하의 출산/입양/위탁 예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년 이내
- ② 1~2년 사이
- ③ 2년 이후

문4-5 귀하가 추가로 자녀 수를 늘릴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 ②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 ③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 ④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 ⑤ 나이가 많아서
- ⑥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 ⑦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 ⑧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 ⑨ 다른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 ⑩ 경제적으로 부담(주거, 생활비 등이 커서)
- ⑪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해서
- ⑫ 기타()

II 양육 및 돌봄 실태

문5 다음은 미취학 자녀 양육 및 돌봄에 관한 문항입니다.
(미취학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까지만 응답,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작성)

※ 첫 번째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1 귀하 가족의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미취학 자녀1	[보기]
5-1-1. 미취학 자녀	문1-1, 1-2에 연동	-
5-1-2. 주중 일과 시간	[보기]에서 선택	① 나 ② 배우자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아버지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아동의 형제자매 ⑧ 친척 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⑩ (공공)아이돌보미 ⑪ 민간 육아도우미 ⑫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⑬ 이웃주민 ⑭ 나의 친구 ⑮ 혼자 지냄 ⑯ 기타()
5-1-3. 주중 저녁~야간	〃	
5-1-4. 주말 및 공휴일	〃	

문5-2 다음은 미취학 자녀의 기관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기관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항목	미취학 자녀1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5-2-1. 주중 일과 시간(9시~18시)	① 국공립 유치원 ② 국공립 어린이집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공공육아나눔터 ⑤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⑥ 기타()	① 사립 유치원 ②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③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학원 포함) ④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⑤ 직장보육시설 ⑥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⑦ 예체능 개인교습
5-2-2. 주중 저녁~야간		
5-2-3. 주말 및 공휴일		

항목	미취학 자녀1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⑧ 공동체육아 ⑨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⑩ 기타()
5-2-4.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모든 기관의 이용 일수)	()일	()일
5-2-5.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모든 기관의 이용 시간 합계)	()시간	()시간
5-2-6.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원	()원

※ 두 번째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1 귀하 가족의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미취학 자녀2	[보기]
5-1-1. 미취학 자녀	문1-1, 1-2에 연동	-
5-1-2. 주중 일과 시간	[보기]에서 선택	① 나 ② 배우자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아버지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아동의 형제자매 ⑧ 친척 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⑩ (공공)아이돌보미 ⑪ 민간 육아도우미 ⑫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⑬ 이웃주민 ⑭ 나의 친구 ⑮ 혼자 지냄 ⑯ 기타()
5-1-3. 주중 저녁~야간	〃	
5-1-4. 주말 및 공휴일	〃	

문5-2 다음은 미취학 자녀의 기관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기관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항목	미취학 자녀1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5-2-1. 주중 일과 시간(9시~18시)	① 국공립 유치원 ② 국공립 어린이집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공공육아나눔터 ⑤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⑥ 기타()	① 사립 유치원 ②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③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학원 포함)
5-2-2. 주중 저녁~야간		④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⑤ 직장보육시설 ⑥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5-2-3. 주말 및 공휴일		⑦ 예체능 개인교습 ⑧ 공동체육아 ⑨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⑩ 기타()
5-2-4.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모든 기관의 이용 일수)	()일	()일
5-2-5.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모든 기관의 이용 시간 합계)	()시간	()시간
5-2-6.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원	()원

※ 세 번째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1 귀하 가족의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미취학 자녀3	[보기]
5-1-1. 출생년	문1-1, 1-2에 연동	-
5-1-2. 주중 일과 시간	[보기]에서 선택	① 나 ② 배우자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아버지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아동의 형제자매 ⑧ 친척 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5-1-3. 주중 저녁~야간	〃	

		⑩ (공공)아이돌보미 ⑪ 민간 육아도우미 ⑫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⑬ 이웃주민 ⑭ 나의 친구 ⑮ 혼자 지냄 ⑯ 기타()
5-1-4. 주말 및 공휴일	/	

문5-2

다음은 미취학 자녀의 기관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기관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항목	미취학 자녀1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5-2-1. 주중 일과 시간(9시~18시)		① 사립 유치원 ②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③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학원 포함)
5-2-2. 주중 저녁~야간	① 국공립 유치원 ② 국공립 어린이집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공공육아나눔터 ⑤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⑥ 기타()	④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⑤ 직장보육시설 ⑥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5-2-3. 주말 및 공휴일		⑦ 예체능 개인교습 ⑧ 공동체육아 ⑨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⑩ 기타()
5-2-4.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모든 기관의 이용 일수)	()일	()일
5-2-5.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모든 기관의 이용 시간 합계)	()시간	()시간
5-2-6.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원	()원

문6

다음은 초등학교 자녀 양육 및 돌봄에 관한 문항입니다.

(초등학교 자녀 3명까지만 응답,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작성)

※ 첫 번째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 가족의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목	초등학교 자녀1
6-1-1. 출생년	문1-1, 1-2에 연동
6-1-2. “방과 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① 나 ② 배우자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아버지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아동의 형제자매 ⑧ 친척 ⑨ 방과 후 학교 교사 ⑩ 지역아동센터 교사 ⑪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돌봄센터 교사 ⑫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⑬ 이웃주민 ⑭ 나의 친구 ⑮ 혼자 지냄 ⑯ 기타()

문6-2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	초등학교 자녀1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6-2-1. 자녀가 방과 후 이용하는 기관	① 방과 후 교실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 돌봄센터 등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⑤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⑥ 기타()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②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③ 교과목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④ 예체능 개인교습 ⑤ 인터넷 강의 ⑥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⑦ 기타()
6-2-2.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	()일
6-2-3.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시간	()시간
6-2-4. 월평균 비용	()원	()원

항목	초등학생 자녀1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응답)		

※ 두 번째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목	초등학생 자녀2
6-1-1. 출생년	문1-1, 1-2에 연동
6-1-2. “방과 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나 ② 배우자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아버지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아동의 형제자매 ⑧ 친척 ⑨ 방과 후 학교 교사 ⑩ 지역아동센터 교사 ⑪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돌봄센터 교사 ⑫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⑬ 이웃주민 ⑭ 나의 친구 ⑮ 혼자 지냄 ⑯ 기타()

문6-2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	초등학생 자녀2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6-2-1. 자카방과 후 이용하는 기관	① 방과 후 교실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 돌봄센터 등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⑤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⑥ 기타()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②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③ 교과목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④ 예체능 개인교습 ⑤ 인터넷 강의 ⑥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⑦ 기타()
6-2-2.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	()일

항목	초등학생 자녀2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6-2-3.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시간	()시간
6-2-4.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응답)	()원	()원

※ 세 번째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목	초등학생 자녀3
6-1-1. 출생년	문1-1, 1-2에 연동
6-1-2. “방과 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① 나 ② 배우자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아버지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아동의 형제자매 ⑧ 친척 ⑨ 방과 후 학교 교사 ⑩ 지역아동센터 교사 ⑪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돌봄센터 교사 ⑫ 학원 강사(방문 교육 교사 포함) ⑬ 이웃주민 ⑭ 나의 친구 ⑮ 혼자 지냄 ⑯ 기타()

문6-2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	초등학생 자녀3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6-2-1. 자카방과 후 이용하는 기관	① 방과 후 교실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 돌봄센터 등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⑤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②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③ 교과목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④ 예체능 개인교습 ⑤ 인터넷 강의

항목	초등학생 자녀3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⑥ 기타()	⑥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⑦ 기타()
6-2-2.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	()일
6-2-3.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시간	()시간
6-2-4.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응답)	()원	()원

문7

다음은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 3명까지만 응답,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작성)

※ 첫 번째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중고등학생 자녀1	
7-1. 출생년	문1-1, 1-2에 연동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7-2. 자녀가 방과 후 이용하는 기관	① 방과 후 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④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⑤ 기타()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②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 ③ 교과목 개인교습 (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④ 예체능 개인교습 ⑤ 인터넷 강의 ⑥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⑦ 기타()
7-3.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	()일
7-4.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시간	()시간
7-5.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응답)	()원	()원

※ 두 번째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중고등학생 자녀2	
7-1. 출생년	문1-1, 1-2에 연동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7-2. 자녀가 방과 후 이용하는 기관	① 방과 후 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④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⑤ 기타()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②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 ③ 교과목 개인교습 (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④ 예체능 개인교습 ⑤ 인터넷 강의 ⑥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⑦ 기타()
7-3.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	()일
7-4.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시간	()시간
7-5.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응답)	()원	()원

※ 세 번째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중고등학생 자녀3	
7-1. 출생년	문1-1, 1-2에 연동	
	공공기관 [보기]	민간기관 [보기]
7-2. 자녀가 방과 후 이용하는 기관	① 방과 후 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④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⑤ 기타()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②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 ③ 교과목 개인교습 (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④ 예체능 개인교습 ⑤ 인터넷 강의 ⑥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⑦ 기타()
7-3.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일	()일
7-4.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	()시간	()시간
7-5. 월평균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제외, 본인 부담 금액만 응답)	()원	()원

문8

귀하의 미성년 자녀를(아·고등학생) 주양육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기에서 택1) *1)에서 ⑰없음을 선택한 경우, 2), 3), 4) 건너뛰

항목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8-1. “자녀를 주양육자 외에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보기] 중 택 1	[보기] ① 나 ② 배우자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아버지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아동의 형제자매 ⑧ 친척 ⑨ 어린이집/유치원교사 ⑩ 공공(정부지원) 아이돌보미 ⑪ 민간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등) ⑫ 방과후학교 교사 ⑬ 지역아동센터 교사 ⑭ 우리동네키움센터/온종일돌봄센터 교사 ⑮ 학원강사(방문교사 포함) ⑯ 이웃 ⑰ 나의 친구 ⑱ 없음 ⑲ 기타()				
8-2. (그 사람의) 일주일 평균 돌봄 일수	()일	()일	()일	()일	()일
8-3. (그 사람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8-4. 월평균 돌봄 비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0원으로 응답)	()원	()원	()원	()원	()원

문9

귀하의 성인 자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성인 자녀1	성인 자녀2	성인 자녀3
9-1. 출생년	()년	()년	()년
9-2. 현재 하는 일 [보기] 중 택 1	[보기] ① 취업(창업포함) ② 취업 준비 ③ 대학생/대학원생(휴학 포함) ④ 진학 준비 ⑤ 군입대 ⑥ 쉬고 있음 ⑦ 기타 ()		

문10 귀하께서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② 방과 후 돌봄교실 등 공공돌봄/교육기관 이용료
- ③ 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④ 돌봄 비용(친인척, 지인 등에 지출하는 돌봄 비용)
- 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⑥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육아도우미 등)
- ⑦ 자녀의 의료비 ⑧ 자녀의 식료품비
- ⑨ 자녀의 여가활동/문화활동비(핸드폰요금 포함)
- ⑩ 보험료 등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지출
- ⑪ 자녀의 학교 등록금 ⑫ 자녀의 용돈
- ⑬ 자녀 의복비(의류비) ⑭ 부담되는 항목 없음
- ⑮ 기타()

문11 귀하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 문11-1로 이동)
-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 문12로 이동)

문11-1 문11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주로 내가 일정 변경 ② 주로 배우자가 일정 변경
- ③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④ 이웃이나 나의 친구가 돌봄
- 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 ⑥ 민간 육아도우미 고용 ⑦ 다른 자녀(아동의 형제자매)가 돌봄
- ⑧ 아동 혼자 머무름 ⑨ 기타()

문12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 중 산후우울증 진단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본인	배우자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③ 출산 당시에 배우자가 없었음(비혼 등)

문13 귀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
(스트레스를 전혀 못 느끼셨다면 1점, 견디기 매우 힘들었으면 10점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못 느꼈다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 일·생활균형

문14 귀하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으로 환산하여 작성 (예: 2시간 = 120분)

항목	14-1. 평일	14-2. 주말·공휴일 등 (주일에 알는 경우는 본인의 수는 날 기준)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청소, 빨래, 설거지, 세탁, 장보기, 요리 등)	()분	()분
1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자녀(숙제 돕기, 씻기기, 놀아주기 등 포함), 환자, 노인 돌보기 등)	()분	()분

문15 귀하와 귀하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및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SQ4의 @응답자에게만 보이도록)

문15-1 귀하는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항목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공평하게 반씩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15-1. 요리 및 식사 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15-2. 설거지	①	②	③	④	⑤	⑥
15-3. 세탁	①	②	③	④	⑤	⑥
15-4. 시장보기, 쇼핑	①	②	③	④	⑤	⑥
15-5. 집안청소	①	②	③	④	⑤	⑥
15-6. 집안의 대소사 (명절 챙기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문15-2 귀하는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문16

귀하와 귀하 배우자의 자녀 양육 및 돌봄 부담 및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SQ4의 ②응답자에게만 보이도록)

(*함께 놀아주기, 등하원/등하교의 경우 현재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과거 양육 과정에 대해서 응답)

문16-1

귀하는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어떻게 부담하십니까? (SQ4의

②응답자에게만 보이도록)

항목	주로 내가 한다	주로 내가 하고 배우자 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 가 하고 내가 돕는다	주로 배우자 가 한다	해당 없음 (둘 다 거의 하지 않음)
16-1-1. 일상적인 돌봄 (식사, 세탁, 목욕시키기 등의 일상생활 지원)	①	②	③	④	⑤
16-1-2. 아플 때 병원 동행 및 간호	①	②	③	④	⑤
16-1-3. 자녀 학습 관리 (숙제 돕기, 준비물 챙기기, 교육정보 습득(학원정보 습득) 등)	①	②	③	④	⑤
16-1-4. 함께 놀아주기	①	②	③	④	⑤
16-1-5. 등하원/등하교	①	②	③	④	⑤
16-1-6. 학교, 돌봄 기관 행사 참여 및 방문	①	②	③	④	⑤

문16-2

귀하는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 및 돌봄 부담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SQ4의 ②응답자에게만 보이도록)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대체로 만족 ④ 매우 만족

문17

다음은 귀하의 경제활동과 그로 인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7-1. 경제활동 여부						
① 예	문17-2.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일한 날 기준) _____시간					
	문17-3. 귀하는 최근 1개월 간 일을 하면서 다음의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돌봄 기관(어린이집 등)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6)에 비례당으로 응답해주세요.)					
	항목	전혀 경험 한 적 없음	경험 한 적 있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비 해당
	1) 일 때문에 가족 및 개인 활동(모임참여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문17-1. 경제활동 여부							
	2) 가사, 양육,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3)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으로 아이를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맡겨야하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4) 휴일 근무로 기관이나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겨야하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5)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6)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p>문17-4. 현재 직장은 첫 번째 자녀 양육(임신, 출산, 입양 등 모두 포함하여,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 몇 번째 직장입니까? ① 첫 번째(첫째 출산 후 현재까지 계속 다님) ② 두 번째(한 번 이직) ③ 세 번째(두 번 이직) ④ 네 번째(세 번 이직) ⑤ 다섯 번째(네 번 이직) 이상</p> <p>문17-5.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원래부터 하지 않았음(한 번도 한 적이 없음) (→ 문18, 19의 '배우자 항목만 응답)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하게 되면서 그만 됨 ③ 자녀 외 다른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그만 됨 ④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됨 ⑤ 회사 사정(경영악화)으로 그만됨 ⑥ 힘들어서(직상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업무량, 적성에 맞지 않음 등) 그만 됨 ⑦ 기타()</p>						
② 아니오							

문18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의 고용 중단 경험 여부 및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8-1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일을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본인(하나라도 있는 경우, 문18-2도 응답)				배우자 (SQ4의 @응답자만)			
항목	있음	없음	해당 없음 (당시에 일 하지 않음)	항목	있음	없음	해당 없음 (당시에 일 하지 않음)
1) 임신	①	②	③	1) 임신	①	②	③
2) 출산	①	②	③	2) 출산	①	②	③
3) 영유아 자녀 돌봄	①	②	③	3) 영유아 자녀 돌봄	①	②	③
4) 자녀 초등학교 입학	①	②	③	4) 자녀 초등학교 입학	①	②	③
5) 자녀 학업 지원	①	②	③	5) 자녀 학업 지원	①	②	③
6) 장애자녀, 아픈 자녀 돌봄	①	②	③	6) 장애자녀, 아픈 자녀 돌봄	①	②	③

문20 귀하의 일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대상이 없을 경우)
20-1. 일과 생활의 균형	①	②	③	④	⑤알하지 않음
20-2. 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배우자 없음
20-3.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0-14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20-15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	①	②	③	④	
20-6. 전반적인 내 자신의 삶	①	②	③	④	

IV 가족 및 자녀 가치관

문21 귀하는 다음의 자녀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21-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1-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21-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1-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문22 귀하는 다음의 가족 간 부양에 대한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1.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가능한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22-2.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2-3.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2-4. 부모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야한다.	①	②	③	④
22-5.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손자녀 돌봄 포함)	①	②	③	④

문23 귀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V 사회·지역에 대한 인식

문24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24-1.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4-2. 우리 사회는 빈부에 따른 차별이 없다.	①	②	③	④
24-3.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	①	②	③	④
24-4.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4-5. 우리 사회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4-6.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①	②	④	⑤

문25 다음 문항은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문항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동네를 생각하면서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다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1. 우리동네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의 범죄위험에서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5-2. 우리동네의 먹거리는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5-3. 우리동네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5-4. 우리동네는 교통사고 등에서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5-5. 우리동네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안전하다 (붕괴위험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	①	②	③	④
25-6. 우리동네는 공공기관이나 길거리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25-7. 우리동네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문26 귀하는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 문26-1로 이동)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 문26-2로 이동)

문26-1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인프라 부족
②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음
③ 초, 중, 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 부족
④ 높은 교육비용(사교육 포함)
⑤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 문화 인프라 부족
⑥ 공원, 산, 강 등 자연환경 부족
⑦ 높은 주거비용
⑧ 높은 생활비(공공요금, 생필품 비용 등)
⑨ 돌봄 지원 서비스의 부족
⑩ 범죄, 사고, 교통 등의 위험한 거주환경
⑪ 미세먼지, 수질 등 환경오염
⑫ 주거환경(주거지와 유흥가 혼재, 소음, 교통 불편 등)
⑬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환경 미흡
⑭ 기타()

문26-2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많은 보육 인프라
②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의 높은 질
③ 초, 중, 고, 대학 등 교육 인프라
④ 다양한 교육 시설(사교육 포함)
⑤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
⑥ 공원, 산, 한강 등 자연환경
⑦ 편리한/좋은 주거환경
⑧ 다양한 편의시설
⑨ 다양한 돌봄 지원 서비스
⑩ 좋은 치안
⑪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환경
⑫ 기타()

문27 귀하는 출산, 양육,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을 이동(이동)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동의 범위는 광역시·도 및 자치구 변경을 의미함(같은 구 내 다른 동은 제외함)

- ① 예 (→ 문27-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8로 이동)

문27-1 이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이동
- ②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현 자치구로 이동
- ③ 기타(예: 해외에서 이동)

문28 귀하는 향후 출산, 양육,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을 이동(이동)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8-1로 이동)
- ③ 아니오 (→ 문29로 이동)

문28-1 계획 중인 이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타 시도로 이동
- ② 타 자치구로 이동
- ③ 기타(예: 해외로 이동)

문28-2 계획 중인 이동의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더 좋은 보육, 교육 기관/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 ② 사교육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학원 밀집 등)
- ③ 현재 사는 곳이 아이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치안 문제 등이 염려되어)
- ④ 더 좋은 여가, 문화, 자연환경/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 ⑤ 아이를 돌봐줄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 ⑥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 ⑦ 자녀가 타 시도/타 자치구의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 ⑧ 기타()

문29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양성평등한 사회
-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해소
- ③ 공교육 강화
- ④ 일중심의 사회(장시간 노동 등) 변화
- ⑤ 주택가격 안정
- ⑥ 고용안정
- ⑦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 ⑧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 ⑨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 문화 해소
- ⑩ 일·생활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확립
- ⑪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⑫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문30-4

위의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국가장학금 지원
- ② 자동차 취득세 감면
- ③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 ④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⑤ 전기요금 할인
- ⑥ 난방비 할인
- ⑦ 도시가스요금 할인
- ⑧ 출산크레딧 지원
- ⑨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⑩ 미숙아 의료비 지원
- ⑪ KTX, SRT 할인
- ⑫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⑬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⑭ 육아용품 비용 지원
- ⑮ 공항주차장 이용료 지원
- ⑯ 도움이 된 정책이 없음

문31

다음 문항은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이용 전반에 대한 문항입니다.

항목	31-1. 인지도		31-2. 활용 경험 (알고 있는 경우만)		31-3. (활용 해 본 응답자만) 만족도			
	알고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자치구)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2)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3) 하수도 사용료 감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4) 공영주차장 할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5) 서울시청소년수련관 할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6) 한강시민공원이용료 할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7) 서울대공원입장료 할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문31-4

위의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자치구)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
- ②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 ③ 하수도 사용료 감면
- ④ 공영주차장 할인
- ⑤ 서울시청소년수련관 할인
- ⑥ 한강시민공원이용료 할인
- ⑦ 서울대공원입장료 할인
- ⑧ 도움이 된 정책이 없음

문32 귀하께서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 ② 직장생활과 병행의 어려움
- ③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 ④ 양육 및 가사분담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 ⑤ 양육 및 가사분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⑥ 자녀와의 관계
- ⑦ 자녀간의 관계
- ⑧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 ⑨ 주거 및 생활비 부담
- ⑩ 자녀 학습 지도의 어려움
- ⑪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
- ⑫ 정부나 서울시의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미비로 인한 어려움
- ⑬ 자녀 양육 스트레스
- ⑭ 없음
- ⑮ 기타()

문33 귀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 수와 상관없이 개별 자녀에 따른 지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예: 자녀1을 100 지원하면, 자녀2도 100 지원, 즉 두 자녀 가구는 총 200 지원 받음)
- ② 자녀 수가 늘어나면 개별 자녀 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점증지원 방식)
(예: 자녀1을 100 지원하면, 자녀2는 120 지원, 즉 두 자녀 가구는 총 220 지원 받음)
- ③ 잘 모르겠음

문34 귀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 중 어떤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 ② 방과후돌봄 기관 등 공공돌봄 지원 확대
- ③ 자녀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확대
- ④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 확대
- ⑤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최소화(교육비용 최소화)
- ⑥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⑦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 ⑧ 세제, 공과금 등 지원 확대
- ⑨ 다자녀 가구의 문화생활(여가, 운동, 공연관람 등) 지원
- ⑩ 고연령,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
- ⑪ 기타()

VII 다동이행복카드 이용 현황

문35 귀하는 다동이행복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문35-1도 응답) ② 모른다 (→ 문36으로 이동)

문35-1 귀하는 다동이행복카드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서울시청 홈페이지 ② 구청 홈페이지 ③ 시설 홈페이지
 ④ 이용 시설(병원 포함)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 ⑤ 인터넷 뉴스 기사
 ⑥ 방송 ⑦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및 옥외광고 등
 ⑧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다가 ⑨ 포털 사이트 검색 ⑩ 주변 지인 추천
 ⑪ 기타()

문35-2~4 다음은 다동이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5-2. 발급 경험		문35-3. 이용 경험		문35-4. 만족도			
있다	없다 (→문36으로 이동)	있다	없다 (→문36으로 이동)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문35-5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월 3회 ④ 월 4회 이상

문35-6 주로 어떤 곳에서 이용하십니까?

- ① 건강/의료 ② 공영주차장 ③ 교육
 ④ 도서/문구 ⑤ 도서관 ⑥ 마트/식품
 ⑦ 문화/체육 ⑧ 생활/금융 ⑨ 외식
 ⑩ 청소년 시설 ⑪ 출산/육아 ⑫ 기타 ()

문35-7 다동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① 10만 원 미만 ② 10~19만 원 ③ 20~29만 원
 ④ 30~39만 원 ⑤ 40~49만 원 ⑥ 50만 원 이상
 ⑦ 기타()

문36 다둥이행복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② 혜택이 적어서
- ③ 다둥이행복카드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 ④ 기타()

VIII 주거 현황

문37 귀하의 주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7-1. 주택 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⑥ 오피스텔 ⑦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⑨ 판잣집, 비닐하우스 ⑩ 기타()				
37-2. 주택 점유 형태	① 자가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1년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의 임차 형식 ⑥ 무상(관사, 사택 등) ⑦ 기타()				
37-3. 주택 관련 부채(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만 원				
37-4. 월 평균 주거비용(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재)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원금상환 금액, 월세 등 주거 유지를 위해 매달 지출하는 총 비용, 공과금 제외)	()만 원				
37-5. 주거환경 만족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면적	①	②	③	④
	주거지 주변 안전환경	①	②	③	④
	공원, 한강 등 자연환경	①	②	③	④
	주변 교통환경	①	②	③	④
	아이들 놀이(놀이터 등)환경	①	②	③	④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 기관 접근성	①	②	③	④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공공 돌봄 기관 접근성	①	②	③	④
	학교, 학원, 도서관 등 학습환경	①	②	③	④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체육시설 포함)	①	②	③	④

문39 귀하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39-1. 동거 가구원 수(본인 포함, 함께 사는 사람의 수)	()명
39-1-1. 자녀를 제외한 함께 사는 사람에게 모두 체크 (자녀는 문1-1에서 응답하였으므로 별도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배우자 ② 나의 어머니 ③ 나의 아버지 ④ 배우자의 어머니 ⑤ 배우자의 아버지 ⑥ 나의 형제자매 ⑦ 배우자의 형제자매 ⑧ 나의 조부모 ⑨ 배우자의 조부모 ⑩ 기타()
39-2. 맞벌이 여부 (SQ3의 ②만 응답)	① 맞벌이 ② 여성 홀벌이 ③ 남성 홀벌이 ④ 둘 다 경제활동 안함
39-3.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적이전(가족용돈 등), 공적이전(정부지원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한 달 평균 가구소득, 세 후 기준)	지난 3개월 기준 월 평균 ()원
39-4. 월평균 가구 지출	지난 3개월 기준 월 평균 ()원
39-5. 주관적 계층 인식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층 ④ 중상층 ⑤ 상층
39-6. 자녀 외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유무	① 장애인 가구원 ② 환자 ③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④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없음
39-7. 귀하의 가구원 중 외국인 국적 또는 귀화한 외국인이 있습니까?	① 있음
	39-7-1. 해당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나) ② 배우자 ③ 나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나의 형제자매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⑦ 기타()
	② 없음

-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 정책연구 - 05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

발	행	인	정연정
저		자	강은애·남이해
발	행	일	2022년 9월
인	쇄	처	(주)행복드림
발	행	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발	간	등	록
번호			51-B552561-000103-01
I	S	B	N
			979-11-91139-98-3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